

M 45-130 | 2011. 6 |

제 130 호

세계 농업
WORLD AGRICULTURE

2011. 6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세계농업』은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전익수 부연구위원 iksuinje@krei.re.kr TEL 02-3299-4349 / FAX 02-962-7312
이정희 연 구 원 ljh8507@krei.re.kr TEL 02-3299-4159

목 차

농업 · 농정 동향

<특집>

OECD-FAO 2011-2020 농업 전망

- 3 OECD-FAO 2011-2020 세계 곡물 수급 전망
- 15 OECD-FAO 2011-2020 세계 육류 수급 전망
- 23 OECD-FAO 2011-2020 세계 바이오에너지 수급 전망

세계 농산물 수급 · 가격 동향

- 37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11. 6)
- 45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11. 6)
- 57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11. 6)

세계 농업 브리핑

- 73 세계 농업 브리핑 (2011. 6)
- 93 주요 외신 동향 (2011. 6)

세계 농업 통계

- 105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 109 세계 각국 돼지고기 수급 통계(2011)



농업 · 농정 동향

〈특집〉

OECD-FAO 2011-2020 농업 전망

OECD-FAO 2011-2020 세계 곡물 수급 전망

OECD-FAO 2011-2020 세계 육류 수급 전망

OECD-FAO 2011-2020 세계 바이오에너지 수급 전망

OECD-FAO 2011-2020 세계 곡물 수급 전망*

승 준 호

1. 시장 동향

러시아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수출 금지 조치와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악화로 2010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009년 대비 약 1.4% 감소하였다.

2010년 러시아의 심각한 가뭄으로 인한 밀 수출 금지 조치와 주요 곡물 생산국의 기상악화로 세계 곡물 공급 상황이 악화되었다. 2010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당초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불과 몇 개월 동안에 걸쳐 초기 전망치보다 약 3,100만 톤이 하향 조정되었다. 2010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009년 대비 약 1.4% 감소하였다.

반면 기상악화로 모든 곡물의 수급 상황이 악화되지는 않았다. 2010년 세계 쌀 생산량은 기록적인 수준이었으며, 쌀 이월재고량도 증가함에 따라 밀, 옥수수, 대두와 달리 가격 상승 압력이 크지 않았다. 밀과 잡곡 생산량은 기상악화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가격은 상승하였다. 밀과 보리의 경우 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세계 재고량과 수출 여력이 충분하였고, 여러 수입국들의 국내 생산량 증가로 수입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옥수수와 대두 등 타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폭이 작게 나타났다. 이와 달리 옥수수는 미국의 옥수수 단수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함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옥수수의 경우 이월재고량이 감소하였고,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국제가격이 2008년 수준보다 높게 형성

* 본 내용은 OECD가 2011년 6월에 발간한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1-2020 전망 보고서의 내용 중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부분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승준호 연구원이 발췌하여 작성하였다(jhseung@krei.re.kr, 02-3299-4267).

되었다. 2010년 옥수수 가격 상승과 함께 대두 가격도 급등하여 밀을 비롯한 기타 곡물들의 국제가격은 상승으로 이어졌다.

2.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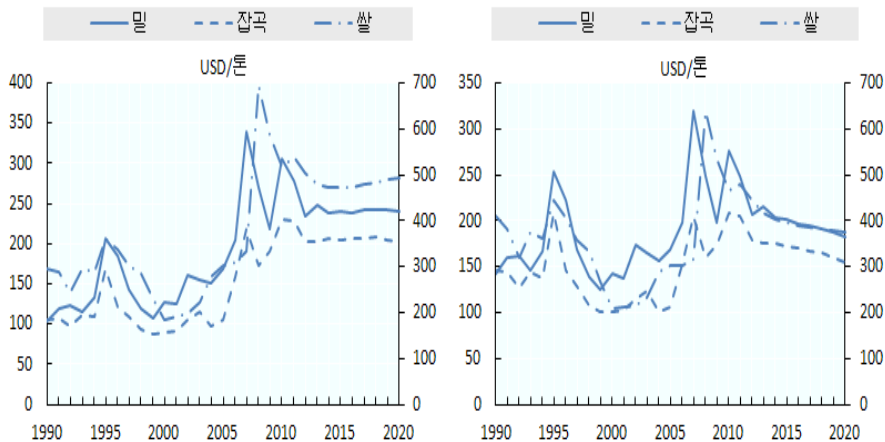
명목 밀 가격은 2020년까지 과거 평균 수준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옥수수 가격은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여 밀 가격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명목 쌀 가격은 2020년 톤당 490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실질 곡물 가격은 하락세가 예상되지만, 지난 10년보다 높은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률 증가로 2011/12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곡물 재고량은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량 대비 재고율(stock-to-use ratio)은 과거 평균 수준보다 낮게 유지될 전망이다.

밀과 잡곡 교역량은 증가할 전망이지만, 과거 수준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 옥수수 수출국의 입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2020년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은 최대 밀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 교역량은 과거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은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까지 명목 밀 가격은 과거 평균 수준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옥수수 가격은 비교적 빠르게 상승하여 밀 가격과의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곡물 가격 동향 및 전망(명목가격, 실질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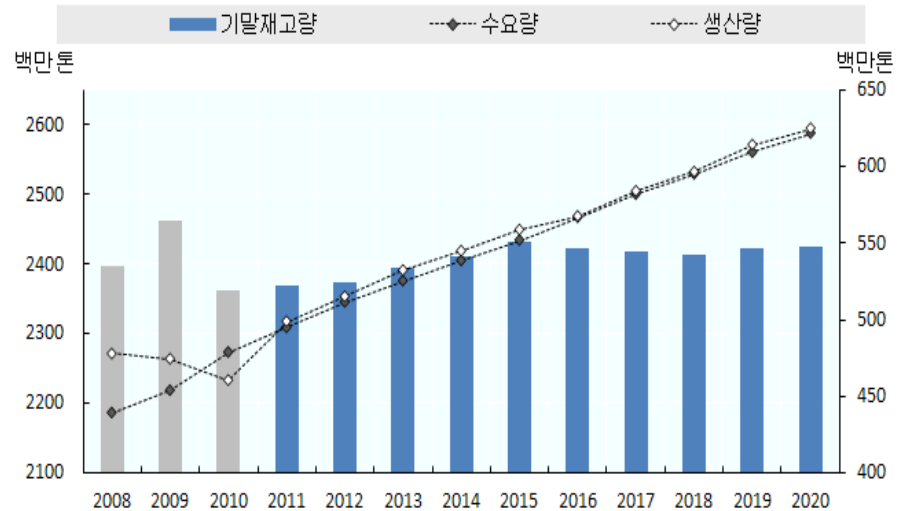


주: 1. 좌측은 명목가격, 우측은 실질가격

2. 밀 가격은 No.2 Hard Red Winter, USA f.o.b. Gulf Ports, 잡곡 가격은 미국 옥수수 No.2 Yellow, f.o.b. Gulf Ports, 쌀 가격은 태국 white 100% grade B, milled, f.o.b.

자료: OECD and FAO Secretariats.

그림 2 곡물 생산량, 수요량, 기말재고량



자료: OECD and FAO Secretariats.

3. 시장 동향 및 전망

가격

2020년 명목 밀 가격은 톤당 24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옥수수 가격은 톤당 203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세계 밀 생산량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1년 미국의 밀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2010년 급등하였던 밀 가격은 공급량 증가로 2012년까지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2020년 명목 밀 가격은 톤당 24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과거 평균 수준보다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질 가격의 경우 지난 10년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다소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명목 옥수수 가격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톤당 203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실질 옥수수 가격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명목 쌀 가격은 톤당 493달러로 전망된다. 실질 쌀 가격도 밀, 잡곡과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과거 수준보다는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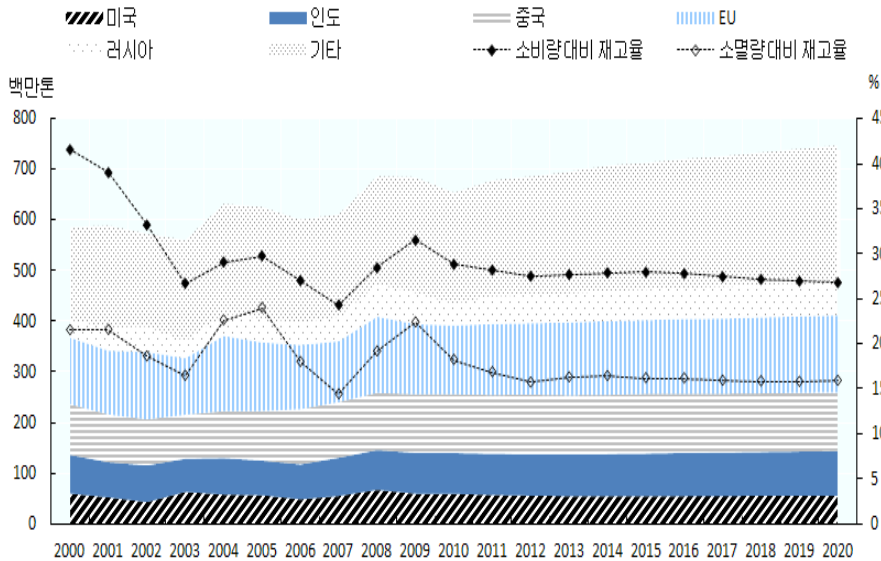
밀과 옥수수 가격의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옥수수 가격 대비 밀 가격 비율은 1.2에 근접한 수준으로 예상되어 과거 10년(1.4) 수준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옥수수가 밀에 비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밀의 전반적인 수요 탄력성이 옥수수보다 비탄력적이기 때문이다.

생산

2020년 세계 밀 생산량은 7억 4,600만 톤으로 기준년도(2008-2010년)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 10년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밀 재배면적 증가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2020년 밀 재배면적은 기준년도보다 약 2% 증가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은 밀 재배면적이 가장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밀 평균 단위 증가율은 매년 약 0.8%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주요 밀 생산국의 단수가 그동안 큰 폭으로 증가해 왔기 때문이다.

2020년 세계 밀 생산량은 7억 4,600만 톤으로 기준년도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잡곡 생산량은 18% 증가한 13억 2,100만 톤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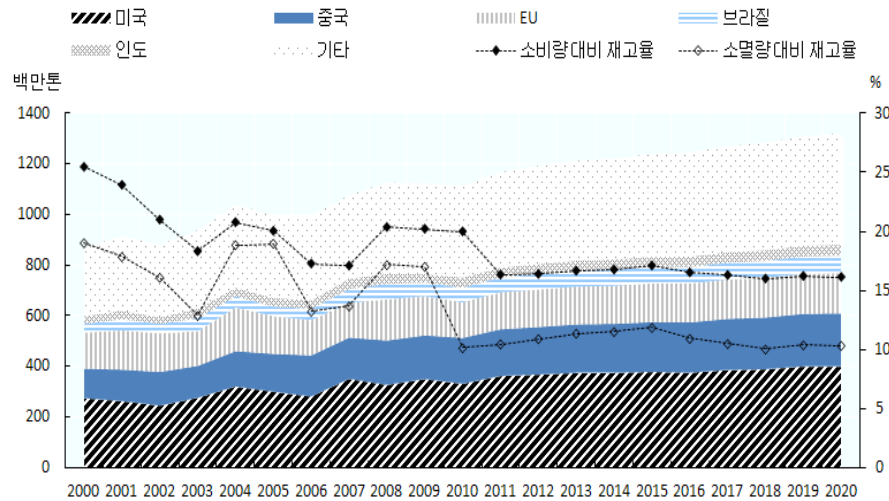
그림 3 밀 생산량, 재고율



자료: OECD and FAO Secretariats.

2020년 세계 잡곡 생산량은 기준년도보다 18% 증가한 13억 2,100만 톤으로 전망된다(그림 4). 이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국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브라질, 아르헨티나, 캐나다, 아프리카(사하라 사막 이남)의 재배면적 증가로 2020년 세계 전체 잡곡 재배면적은 기준년도보다 6.6%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 잡곡 단수는 매년 0.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거 증가 추세보다는 둔화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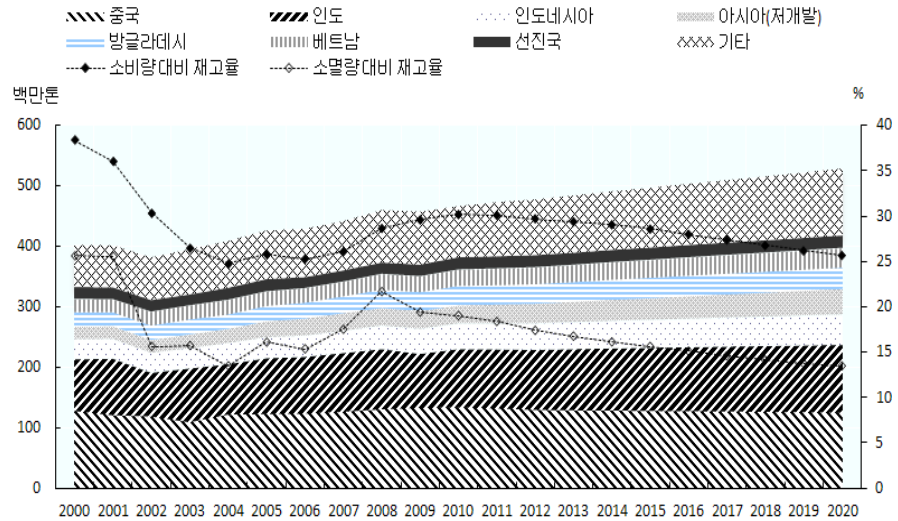
그림 4 잡곡 생산량, 재고율



자료: OECD and FAO Secretariats.

2020년 세계 쌀 생산량은 5억 2,800만 톤으로 기준년도보다 약 6,700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생산량은 매년 1.3%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어 2.2%의 증가율을 보였던 지난 10년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그림 5 쌀 생산량, 재고율



자료: OECD and FAO Secretari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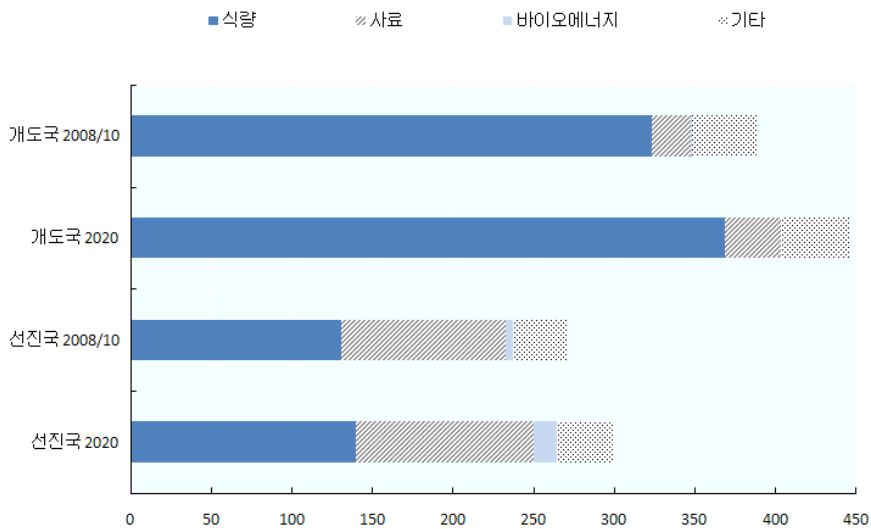
세계 쌀 재배면적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쌀 단수가 매년 1.1%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세계 쌀 생산량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질적으로 쌀 생산량 증가는 인도, 캄보디아, 미얀마, 아프리카 국가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생산국들 가운데 중국은 국내 소비 감소와 생산 대체로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

2020년 세계 밀 소비량은 7억 4,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밀은 식량 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2020년 전체 밀 소비량 중 식량 소비 비중은 약 68% 수준으로 전망된다. 1인당 연간 세계 밀 식용 소비량은 66kg수준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료용 밀 소비량은 과거 수준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1억 4,500만 톤에 이를 전망이다. 2020년 사료용 밀 소비량은 전체 소비량 가운데 19.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바이오에너지용 밀 소비량은 세계 전체 밀 소비량의 2% 수준으로 기준년도(0.9%)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에너지용 밀 소비량은 매년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EU에서 밀을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2020년 세계 전체 바이오에너지용 밀 소비량 가운데 EU의 비중은 약 75% 수준으로 기준년도(63%)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세계 잡곡 소비량은 기준년도 대비 18% 증가한 13억 1,300만 톤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사료 및 바이오연료 용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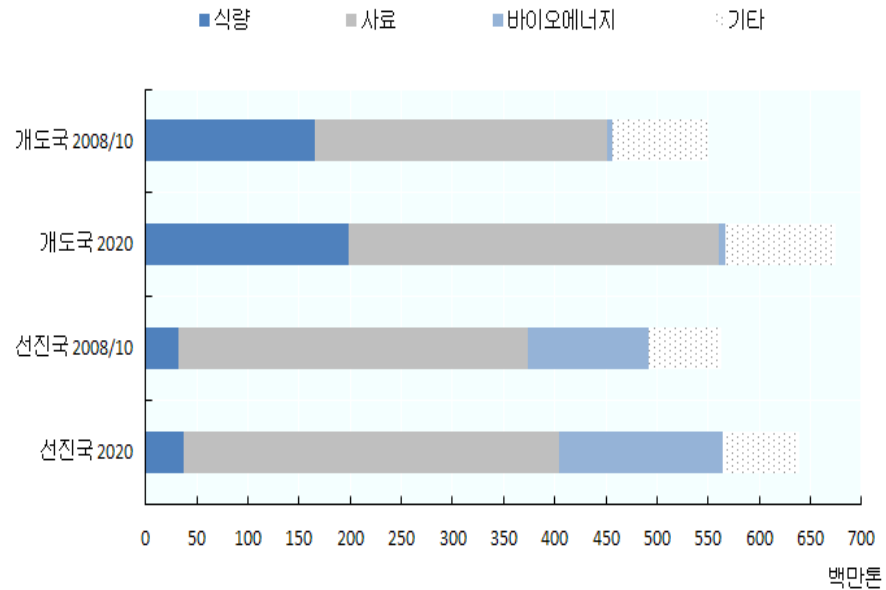
그림 6 밀 소비량(선진국, 개도국)



주: 기타는 산업용 소비(industrial use)
자료: OECD and FAO Secretariats.

2020년 세계 잡곡 소비량은 기준년도대비 18% 증가한 13억 1,300만 톤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사료 및 바이오연료용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식용 옥수수 소비 증가폭은 사료용 옥수수 증가폭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잡곡 소비량은 매년 1.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준년도(2.6%)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식량용 세계 잡곡 소비량은 기준년도보다 19% 증가한 2억 3,500만 톤으로 전망되며, 1인당 연간 소비량은 30.6kg 수준으로 예상된다. 2020년 사료용 잡곡 소비량의 경우 7억 2,900만 톤으로 기준년도보다 1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CIS와 미국의 사료용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의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2015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후 미국 정부가 셀룰로오스원료(cellulosic material)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을 도입하면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바이오에너지용 세계 잡곡 소비량은 기준년도보다 34% 증가한 1억 6,600만 톤으로 전체 생산량에서 12.6%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 잡곡 소비량(선진국, 개도국)



주: 기타는 산업용 소비(industrial use).
 자료: OECD and FAO Secretariats.¹

쌀은 대부분 식용으로 소비되며, 사료용 소비 및 수확 후 손실(post-harvest losses) 비중은 약 14% 수준이다. 2020년 세계 전체 쌀 소비량은 5억 2,900만 톤으로 기준

년도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세계 쌀 소비량은 매년 1.3%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과거 10년(1.5%) 증가율보다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매년 0.5% 증가하여 2020년에는 60kg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의 쌀 소비량은 인구 증가와 식생활 패턴이 쌀로 전환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중국은 완만한 인구 증가, 소득 수준의 꾸준한 상승, 도시화 등으로 인하여 쌀 생산량이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재고

세계 밀 재고량은 평년 기상 조건을 가정할 경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0년에는 2억 톤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CIS와 근동(Near East) 지역에서의 밀 재고량이 증가하여 미국과 EU의 재고 감소분을 상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밀 재고량은 6,000만 톤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2020년 세계 밀 소비량 대비 재고율은 27% 수준으로 기준년도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글로벌 식량위기가 있었던 2007년 수준보다 3%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0년 주요 밀 수출국의 소멸량 대비 재고율¹⁾(stocks-to-disappearance ratio)은 16% 수준으로 전망된다.

2020년 세계 잡곡 재고량은 기준년도 수준인 2억 1,100만 톤으로 예상된다. 2020년 중국의 잡곡 재고량은 6,600만 톤 수준으로 EU와 미국의 재고 감소분을 상쇄시킬 것으로 보인다. 세계 잡곡 소비량 대비 재고율은 16%로 지난 10년 평균 수준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세계 잡곡 소멸량 대비 재고율은 전망기간 동안 10~12%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생산량이 증가하고 공공 비축 물량을 늘리는 국가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2008년 이후 세계 쌀 재고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계 쌀 재고량은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1억 3,6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재고량이 감소하는 것은 중국과 인도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2020년 세계 쌀 소비량 대비 재고율과 소멸량 대비 재고율은 각각 26%, 13%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

2020년 세계 곡물 교역량은 기준년도대비 17% 증가한 3억 2,800만 톤으로 전망된다. 미국, 러시아, 캐나다, EU, 호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아르헨티나는 세계 전체 곡물 수출의 9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잡곡은 주요 메이저 수출국의

2020년 세계 밀 소비량 대비 재고율은 27% 수준으로 기준년도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잡곡 소비량 대비 재고율은 16%로 지난 10년 평균 수준보다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세계 곡물 교역량은 기준년도 대비 17% 증가한 3억 2,800만 톤으로 전망된다.

1) 밀과 잡곡의 주요 수출국(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EU, 미국), 쌀 주요 수출국(인도, 미국, 파키스탄, 태국, 베트남)의 소멸량(국내소비량+수출량) 대비 재고량의 비율임.

비중이 세계 전체 물량의 84%를 차지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7월부터 밀 수출 금지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발도상국의 밀 수입량은 매년 2.1%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며, 2020년에는 1억 2,000만 톤 수준으로 세계 밀 교역량의 8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브라질, 이집트,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도상국의 잡곡 수입량은 매년 2.3% 증가하여 2020년 1억 2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전체 수입 물량의 71%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EU,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국가에서 잡곡 수입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쌀 교역량은 과거 10년보다 빠른 증가세가 예상되며, 매년 2.2%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2020년 쌀 교역량은 4,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교역량 증가는 아프리카 지역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태국은 높은 가격 정책과 생산비 상승으로 수출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쌀 수출 시장 점유율이 2010년 30%에서 2020년 23% 수준으로 감소하여 최대 쌀 수출국 입지를 고수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지속적인 수출 증가로 베트남은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는 농업용수 사용에 대한 엄격한 정책으로 쌀 수출 여력이 없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비롯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쌀 시장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약 10%의 수출 증가율을 보일 전망이다. 미국은 쌀 수출량이 매년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EU의 쌀 수입량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이슈 및 불확실성

기후변화와 자국의 시장보호정책, 세계 곡물재고 수준 등으로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뭄과 호주의 홍수 등 기상여건의 악화는 2010년 세계 곡물 생산에 영향을 미친 바 있다. 이는 금년 유럽 지역의 가뭄, 북아메리카의 홍수 등으로 이어져 북반구(Northern hemisphere)의 곡물 생산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농업에 있어서 기후변화는 단수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지역에서 기상악화에 따른 생산 차질이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주요 곡물 수출국이 국내 가격 안정을 위한 시장 보호 정책을 취하면서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WTO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불확실성은 시장 불안을 예고하는 세계 곡물 재고 수준이다. 최근의 베이스라인에서는 기상여건 및 단수가 평균 수준일 것이라는 가정하에 전망년도(2011-2020년) 초기 세계 곡물 재고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에너지 시장은 곡물 수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바이오 에너지 수요 증가를 유발하는 원유 가격 상승은 베이스라인에서 주요 가정에 포함되었다. 또한 미국의

에탄올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에탄올 연료용 옥수수 수요의 중요성은 기준년도에서 이미 나타났으며, 미국의 정책 구조에 따라 에탄올 연료용 소비량은 2015년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대부분의 곡물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가격 변동성에 따른 생산 대체(미국의 경우 옥수수와 대두)로 인하여 향후 특정 곡물 생산 수준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같은 생산 수준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언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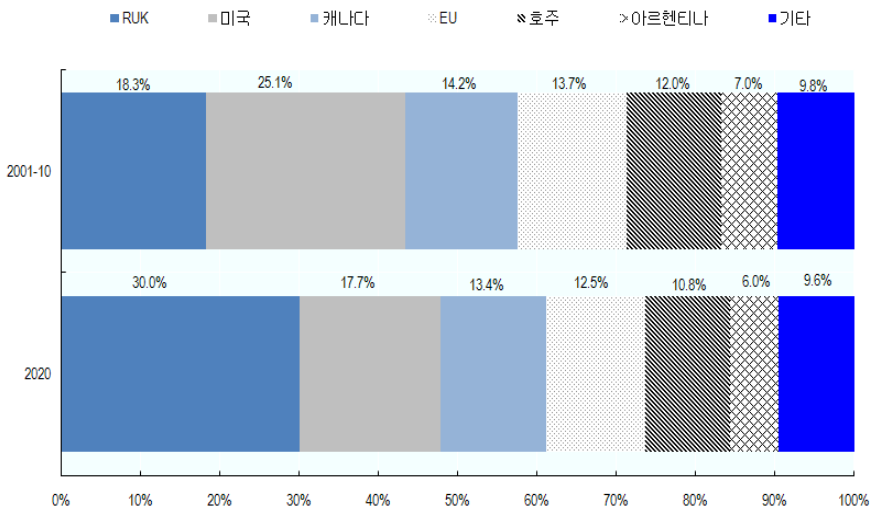
세계 밀 시장에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의 중요성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3개국(RUK)은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밀 수출량을 초과하여 세계 최대 밀 수출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USDA, ERS(Economic Research Service)는 세계 밀 시장의 변동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OECD-FAO의 전망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2020년 러시아의 밀 수출량은 미국의 수출량에 거의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며, RUK 전체 밀 수출량은 미국의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망된다. <그림 8>은 세계 밀 시장에서 차지하는 주요 수출국들의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서 2020년 미국의 수출 점유율이 과거 10년 대비 7.4%p 감소한 반면, RUK는 11.8%p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EU의 밀 수출 비중도 해당 기간 동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러시아의 밀 수출량은 미국의 수출량에 거의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며, RUK 전체 밀 수출량은 미국의 2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전망된다.

그림 8 주요 밀 수출국의 수출 비중



자료: OECD and FAO Secretariats.

USDA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밀 생산량은 1996년 농업법 개정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의 농가들은 밀 대신 유전적 개량(genetic improvement)에 있어서 유리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옥수수과 대두 등의 작물로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옥수수를 이용한 바이오에탄올 수요 증가도 생산 대체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RUK의 밀 수출 증가의 주된 요인은 효율적인 재배 및 영농관리를 위한 수직통합에 의한 생산량 증가 때문이다. 2008년 러시아는 밀을 포함한 곡물 수출 증가 및 인프라 개선과 국내 시장에서 곡물 구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영기업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RUK의 밀 생산 및 수출량 증가는 글로벌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RUK는 밀 공급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지금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에서는 기상여건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불규칙한 단수로 밀 생산량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최근 러시아의 수출 금지 조치와 국내 시장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종종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증대되고 있다.

참고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1-2020, 2011.

OECD-FAO 2011-2020 세계 육류 수급 전망*

한 석 호 신 성 철

1. 시장 상황

지난 3년간 사료분야에서 수급 불균형은 사료가격 변동과 육류산업에 영향을 미쳐왔다.

지난 3년간 사료분야에서 수급 불균형은 사료가격 변동과 육류산업에 영향을 미쳐왔다. 쇠고기와 양고기 가격은 상승하였으나, 백색육(white meats) 가격은 하락하여 공급이 감소하였다. 높은 생산비용, 대출제한, 높은 에너지 가격, 금융위기 동안에 육류수요가 감소하면서 소 사육 농가들은 사육 두수를 감소시켰다. 초기에는 공급량이 유지되면서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후 경기 침체국면에서 벗어나면서부터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적색육(red meats)은 사육두수 감소로 경기침체회복 이후 초과 수요가 발생하여 2010년에는 이들 제품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였다. 돼지고기와 가금육 공급은 회복된 수요에 탄력적으로 반응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적색육 가격보다 돼지고기와 가금육 가격이 더딘 회복세를 보였다.

2. 주요 예측들

개도국의 경우 수요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향후 10년간 세계 육류 시장은 상승

* 본 내용은 OECD가 2011년 6월에 발간한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1-2020 전망 보고서의 내용 중 세계 육류 수급 전망 부분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 신성철 연구원이 발췌하여 작성하였다 (shohan@krei.re.kr, 02-3299-4279, ssc0729@keri.re.kr, 02-3299-0729).

세를 유지해 온 사료 가격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 전망기간 중 상반기에는 가격상승에 따른 사육두수 증가가 예상되며, 하반기에는 세계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0년과 비교하여 전망기간의 축산 소비 성장세는 높은 육류 가격과 인구증가율 감소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수요 증가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석유수출국들의 큰 경제국가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의 세계 육류 수출량은 가금류와 쇠고기 수출량의 증가로 전망기간에 연간 1.7%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 10년 동안 연간 4.4% 증가). 이러한 성장률 하락은 가축 분야의 확장을 원하는 러시아 연방의 수입 수요의 감소 영향이 크다. 육류 수출의 성장 대부분은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 지역은 세계 수출량 증가의 84%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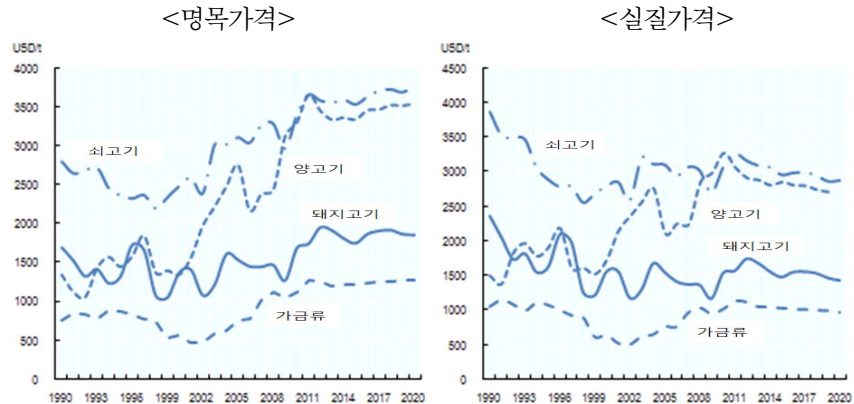
3. 시장 흐름과 전망

가격

2011년에 기록적으로 높았던 육류 가격은 향후 10년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육류가격은 가축 마리수의 감소와 높은 사료비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전망기간 중 하반기에는 높은 사료 가격뿐 아니라 엄격한 식품 안전 및 환경 규정, 동물 복지 규정, 이력 추적제 등으로 가격은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이러한 복합적인 성향은 미래의 국제 무역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2008년~2010년과 비교해보면 쇠고기와 양고기의 명목가격은 2020년까지 18%와 20% 높아질 것이고, 같은 기간 돼지고기와 가금류 가격은 26%와 16%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고기 가격은 최근 감소된 공급량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환율하락으로 상당히 증가했다.

2011년에 기록적으로 높았던 육류 가격은 향후 10년 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그림 1 세계 육류가격 변화



주: 1. 소고기는 미국 네브라스카산 수소, 도체중 1100~1300lb, 양고기는 뉴질랜드산의 표시장가 가격, 돼지고기는 미국산 수돼지와 암돼지의 도체중 230~250lb, 닭고기는 아이오와, 미네소타 남부, 브라질, 냉동육 평균 가격임.
2. c.w.e 또는 r.t.c 기준.
자료: OECD와 FAO 사무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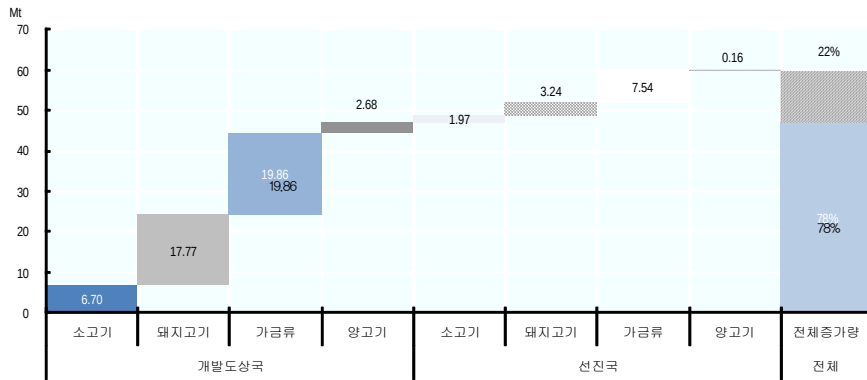
생산

연간 세계 육류 생산 증가율은 감소하여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세계 육류 생산 증가율은 감소하여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1.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1월에 시행될 양돈축사규제로 인해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생산이 감소할 수 있다. 높은 사료 가격, 자연 자원이 풍부한 주요지역(브라질, 러시아 연방,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의 비효율적인 도로수송 인프라와 자연자원이 용 제약 등이 생산 증가에 지장을 줄 것이다. 그러나 생산증가는 주로 추가 생산량의 약 78%가 생산되는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육류 생산량 증가는 대부분 가금류와 돼지고기의 생산량 증가에서 발생된 것으로 이는 적색 육류에 비해 생산주기가 더 짧고 생산효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시장에 영향을 주는 중동 국가의 수입 수요 증가로 오세아니아에서 양 사육두수는 더 이상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망기간 동안 육류의 생산은 높게 유지되는 사료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을 전망이다. 높은 사료가격으로 인해 사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술적인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점은 집중적인 사료 기반 생산 시스템에서 특히 가금류와 양고기, 돼지고기 산업에서 더 효율적인 사료 대 육류 전환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쇠고기의 경우 조사료 기반의 생산 시스템이 확장되어야 하고 농축사료가 더 전략적인 사용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림 2 육류종류 및 지역별 육류 생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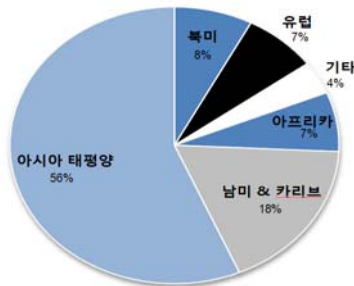
주: c.w.e 또는 r.t.c 기준임.
자료: OECD와 FAO 사무국.

소비

지난 10년간에 비해 전망기간의 소비증가율은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높은 육류 가격과 낮은 인구증가율에 의해 육류 소비 증가율이 소폭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노령화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육류생산의 영향에 관해 증가하는 의식은 특히 선진국에서 육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대장균과 살모넬라 등 육류 기반의 질병들의 발생은 최근의 육류 및 우유 화학 합성 물질 오염(다이옥신과 멜라민 등)과 더불어 경우에 따라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저하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와 도시화로 인한 높은 육류 소비는 신흥 경제에서 채소 식품 섭취 대신 동물 단백질 섭취를 가중시킬 것이다. 수요는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석유수출국에 의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10년간에 비해
전망기간의 소비증
가율은 감소할 전망
이다.

그림 3 2020년 지역별 육류 소비 현황



주: c.w.e 또는 r.t.c 기준임.
자료: OECD와 FAO 사무국.

향후 10년간 국제 육류 무역 성장은 줄어드는 생산과 안정된 세계 육류가격으로 인해 수입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향후 10년간 국제 육류 무역 성장은 감소하는 생산과 안정된 세계 육류가격으로 인해 수입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금류와 쇠고기 수출로 인해 세계 육류 수출량은 기준기간에 비해 2020년까지 16%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까지 육류 교역량 증가분 중 대부분은 모든 육류 수출 증가량의 84%를 육박하는 북·남미에서 비롯될 전망이다. 미국의 육류 수출량은 한국과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약에 적용되는 더 낮은 수입 관세와 고소득 무역 파트너들이 부과하는 BSE 연관 수입 제약이 점차적으로 완화되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EU의 육류 수출량은 정책 개혁으로 감소된 국내 생산량과 EU확대에 의해 증가하는 국내 소비량으로 인해 전망기간 동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육류 수입 쿼터는 EU에 새로운 국가들이 가입하면서 증가하였다. 일본은 2020년까지 가장 많은 육류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멕시코와 한국이 그 다음으로 많은 육류를 수입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연방도 총 육류 수입국 중 수입량이 가장 많은 국가이나 TRQ와 중국의 자금 정책으로 인해 육류 수입은 방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 동안의 쇠고기 수출량은 지난 10년간의 연간 2.9%에 비해 연간 1.8%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증가는 미국, 브라질, 캐나다의 수출량 증가 때문이다. 브라질은 2000년대 중반에 최고 수준의 수출량을 기록하였다. 이는 BSE 사건 발생 이후 미국과 캐나다 쇠고기 수출량이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2020년에 2Mt 수준의 양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 상위권의 수출국 자리를 굳힐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태평양 시장에 대한 개선된 시장 접근으로 지속적으로 수출량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미국 수출량은 BSE 위기가 발생하기 전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수출량 증가는 더 많은 수입량으로 상쇄되거나 그 이상을 수입해 미국은 쇠고기 분야에서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캐나다 쇠고기 수출량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으로 이는 생산량의 향상과 사육방식의 변화의 영향이 크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수출량은 사육두수의 감소와 비싼 사료가격으로 인해 정체될 것이며, 뉴질랜드의 수출량은 낙농 사육두수의 증가로 부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르헨티나에서는 수출계약으로 무역량을 지속적으로 제한할 전망이다.

세계 돼지고기의 무역 확장은 전망기간 동안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생산량의 절반이 생산, 소비되는 중국의 전체 무역량은 전망기간에는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정책들은 돼지고기 산업을 지속적인 생산량 규모 증가와 시장의 현대화를 통해 지원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주도의 물량확보, 선물 시장 확립, 대규모 생산 시설과 유전자 개선 지원을 포함한다.

무역량 증가율은 지난 10년간 평균 4.7%증가에서 향후 전망기간 평균 2%로 무역량 증가율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되는 수출량 증가에 가장 큰 몫을 공헌한 국가들은 미국과 브라질인데 이들 국가들은 세계 무역에서 우세한 위치를 굳힐 것으로 예상된다. 전망기간 상반기에 이들의 수출량은 높은 가금류 제품 가격과 비싼 사료 가격으로 인한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공급 상황으로 인해 정체될 것이다. 그러나 생산자가 높은 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에 적응하면 이는 생산량과 수출량을 특히 전망기간 하반기에 증가시키며 산업 내 구조적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까지 미국과 브라질 수출량은 세계 시장의 추가 수출 공급량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의 남아메리카 시장으로의 수출량 상승은 충분한 사료투입, 폐소화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끊임없이 상승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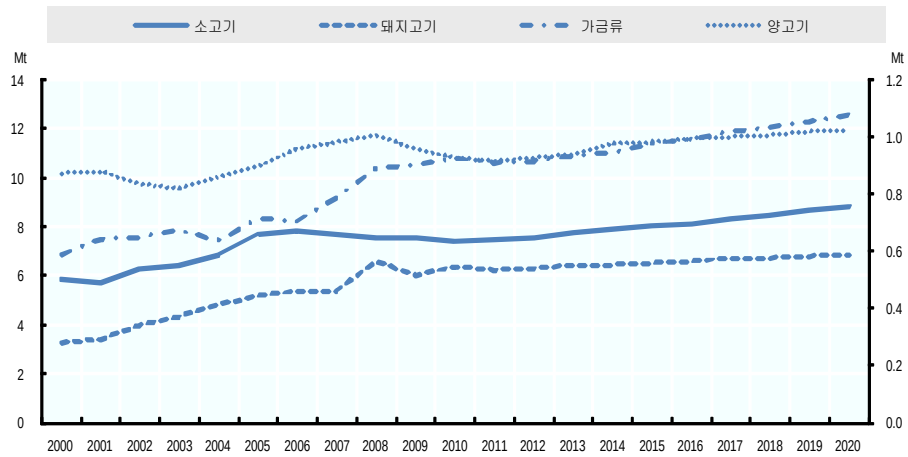
태국의 수출량도 가공생산물을 주로 하여 약간 확장될 것으로 예측된다. EU 수출량은 증가하는 국내 수요, 유로화의 강세, 사육 밀도를 제한하는 동물 복지 규정 등으로 인해 감소할 것이다.

수입량 증가율은 중동,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 등지의 국가가 이끌 것이다. 멕시코의 식품가공산업 확장은 수입 수요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되며, 한때 세계 최대 수입국가였던 러시아의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EU에서는 전망기간 동안의 수출량 감소가 많지 않으나 지속적인 수입량 증가가 동시에 발생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전통적으로 수출만 주도했던 EU 무역 수지의 지속적인 감소로 2020년에는 무역 수지의 균형을 찾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는 가금류 제품의 수출과 수입지역으로서 세계 시장에서 주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오세아니아주의 양고기 수출은 호주의 공급 대응으로 인해 약간 증가하는데 이는 초원기반의 육류 생산은 점차적으로 곡물이 주도하는 육류생산과 경쟁에서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수입지역은 중동지역으로부터 양고기 수요가 증가하는 전통적 시장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시장의 (쿼터 수준 이하로 유지될)수입량은 전 세계적으로 공급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국내수요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무역량증가율은 향후 전망기간 동안 평균 2%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림 4 육류별 세계 수출량 현황



주: c.w.e 또는 r.t.c 기준임.
자료: OECD와 FAO 사무국.

주요 이슈와 불확실성들

동물성 질병 발생은 공급, 수요 그리고 무역에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동물성 질병 발생은 공급, 수요 그리고 무역에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FMD나 BSE같은 질병에 있어서 이러한 영향은 그 지역이 수입 지역인가 수출지역인가의 여부, 시장점유율의 중요성, 질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가 간 지역 내에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등에 따라 달라진다. 호주, 캐나다, 미국, 브라질과 같은 주요 수출국의 국지화되지 못한 질병 발생은 국내와 국제 시장에 영향을 준다. 미국과 캐나다의 BSE발생으로 인한 무역 제약은 세계 시장을 상당한 기간 동안 변화시켰다. 수입지역에서의 이러한 영향은 일반적으로 훨씬 덜 민감하다. 신종 인플루엔자(H1N1)처럼 동물이 매개체일 수 있는 잠재적 질병 발생은 육류시장에서 무역뿐 아니라 소비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요인으로 남아있다.

시장을 핵심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과 거시경제적 요인들은 이러한 전망 보고서의 육류 시장 예상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러시아 연방은 전통적으로 주요 육류 수입국으로써, 최근 몇 년 동안 돼지고기와 가금류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전망기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러시아 연방이 자급자족을 달성하고 수출 가능한 잉여생산물을 달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돼지고기 시장은 세계 시장에서 핵심적인 불확실한 요인이다. 중국의 예측하지 못한 사건들은 국제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잠재력을 지닐 수 있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는 양고기, 가금류, 쇠고기의 대형 수입업체들, 석유가격의 변화, 시민불안의 결과 등이 세계 육류 무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계 육류 시장은 위생적 측면의 제약으로 고도로 분할되어 있다. 이로 인한 시장 접근의 구조상 변화는 예측의 맞고 틀림에 상당한 위험 요소가 된다. 예를 들면, 쇠고기 시장은 구제역 자유무역 루트와 세계의 나머지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미국, 브라질과 같은 대규모 수출지역은 서로 다른 순환에 속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가격들은 항상 같은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 미국의 육류 시장 접근을 브라질의 산타카타리나 주에 허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서양과 태평양 시장의 가격 중재를 증강할 가능성이 높다. 쇠고기의 경우, 무역시장 개방의 영향은 브라질 농부들이 호주의 생산지와 경쟁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경 비용으로 인해 사실상 모든 육류의 생산비용은 높아지고 있으며, 생산에 환경 보호의 역할을 부여하는 새로운 입법이 축산 분야의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축산 제품은 인간이 발생하는 온실가스(GHG) 배출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러한 배출은 미래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와 수입 증가는 축산 제품에 대한 세계의 수요를 증진시킨다. 축산이 향후 10년간 몇몇 국가들에서 탄소 경감 제한들에 어느 정도까지 해당될지는 불확실하다. 축산의 탄소배출을 측정하는 것은 생산과 연관된 육류가격의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생산의 지리학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특히 가금류 같은 더 낮은 GHG배출량과 관련된 더 저렴한 육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에까지 영향을 주게 된다. 게다가 동물복지, 식품의 품질, 생산방식과 처리방식 등의 이슈와 관련된 소비자의 추가적인 관심으로 인해 육류 무역에서 세그멘테이션(Segmentation)이 도입될 수 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식품과 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대한 정책 응답: OECD 워크숍의 결과물”(OECD 2010과 Tothova, M.(2009)과 “사회적 관심에 대한 서로 다른 정책대응의 무역과 무역정책이 시사하는 것”(OECD 식품 농업 어업, Working Partners, 제20권, OECD 출판)을 참고바란다.

참고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1-2020, 2011.

OECD-FAO 2011-2020 세계 바이오에너지 수급 전망*

한 석 호 승 준 호 김 태 우

1. 시장 동향

2010년 세계 에탄올 가격은 설탕, 옥수수 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30% 이상 상승하였다.

2010년 세계 에탄올 가격은 설탕, 옥수수 등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30% 이상 상승하였다. 2010년 상황은 에탄올 가격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다르게 움직이고 수익률은 낮았던 2007/08년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10년 미국은 최초로 에탄올 순수출국이 되었으며, 원당 가격 급등으로 브라질의 에탄올 수출량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채유(rapeseed oil) 및 식물성유지(vegetable oil) 가격과 원유가격 상승으로 2010년 세계 바이오디젤 가격은 상승하였다. 바이오디젤 가격은 에탄올 가격보다 상승 폭에 비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2.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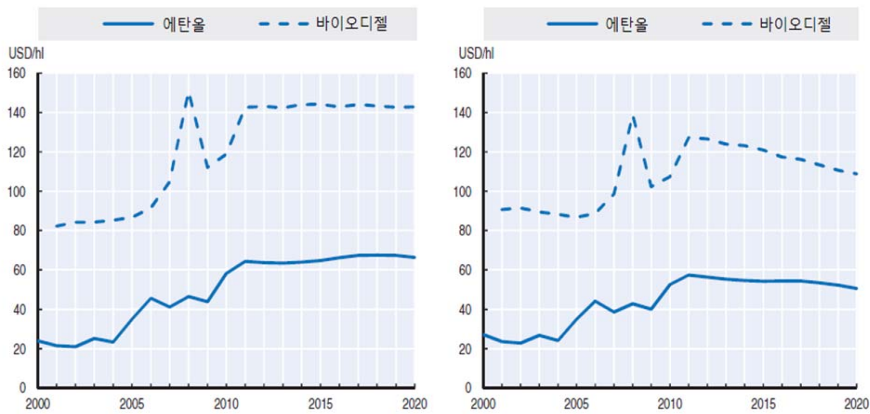
세계 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가격은 2011년에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전망기간 동안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가격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생산량은 향후 10년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본 내용은 OECD가 2011년 6월에 발간한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1-2020 전망 보고서의 내용 중 세계 곡물 수급 전망 부분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부연구위원, 승준호 연구원, 김태우 연구원이 발췌하여 작성하였다(shohan@krei.re.kr, 02-3299-4279, jhseung@keri.re.kr, 02-3299-4267, ktw0703@keri.re.kr, 02-3299-4354).

미국은 최대 에탄올 생산국 및 소비국 입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당 가격은 하락하고, 사탕수수를 원료로 하는 에탄올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브라질의 수출량은 전망기간 초기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경우 바이오디젤의 최대 생산국이자 소비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 말레이시아, 태국 등 일부 개도국에서의 바이오디젤 수출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생산량이 정체 또는 감소함에 따라 여러 개도국에서의 바이오에너지 생산 전망은 불확실하다. 한편, 자트로파(jatropha), 카사바(cassava)와 같은 새로운 바이오에너지 원료 작물은 대규모 생산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림 1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가격 전망



주: 1. 왼쪽은 명목가격, 오른쪽은 실질가격 변화

2. 에탄올 가격은 브라질 상파울로(증류소 제외), 바이오디젤 가격은 독일 생산자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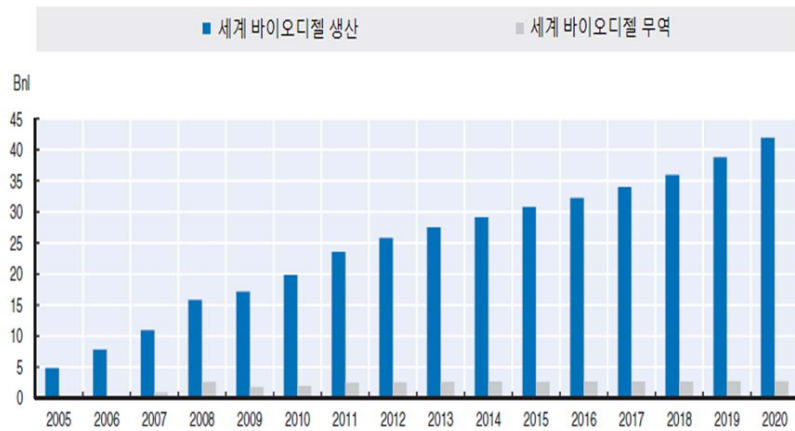
자료: OECD and FAO Secretariats.

그림 2 세계 에탄올 시장 전망



자료: OECD and FAO Secretariats.

그림 3 세계 바이오디젤 시장 전망



자료: OECD and FAO Secretariats.

3. 시장 동향 및 전망

가격

2011년 세계 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바이오디젤 가격의 경우 이러한 상승세가 더욱 뚜렷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원유 실질 가격은 2011년에도 강세를 지속한 이후 2020년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명목 원유 가격은 2020년 배럴당 107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11년 세계 에탄올 및 바이오디젤 가격도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디젤 가격의 경우 이러한 상승세가 더욱 뚜렷할 것으로 보이며, 식물성유지 가격대비 바이오디젤 가격 비율과 원유 가격대비 바이오디젤 가격 비율은 2007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소비 촉진 정책과 생산자 및 소비자 세금 감면, 연료 혼합 기준, 주요 생산국의 투자 등으로 향후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수요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가격은 전망기간(2011-2020년) 동안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가격은 각각 과거 10년 평균 가격대비 80%, 45% 상승한 헥토리터(hl)당 66.4달러, 142.9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실질 가격은 전망기간에 걸쳐 완만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바이오에너지 원료 가격대비 바이오에너지 가격 비율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에너지 가격이 원유 가격에 비해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바이오에너지의 경쟁력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생산 및 소비

각국의 재생 에너지 관련 목표치 설정 및 정책 등의 영향으로 세계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전망기간 동안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각각 1,550억 리터, 420억 리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바이오에너지 생산은 정책변화, 거시경제요인, 원유가격 등과 같은 불확실성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2010년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바이오에너지를 1세대와 2세대로 구분하였다. 1세대 바이오에너지는 전형적인 형태로 사탕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탄수화물과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및 바이오디젤이 대표적이다. 한편, 식용 및 사료용으로 소비가 가능한 설탕, 유지작물, 동물성 지방(animal fats) 등도 1세대 바이오에너지 생산 원료로 이용된다. 2세대 바이오에너지는 셀룰로오스(cellulose), 헤미셀룰로오스(hemicellulose), 리그닌(lignin) 등을 생산 원료로 하며, 셀룰로오스 에탄올과 피셔-트롭스크(Fischer-Tropsch) 연료 등이 대표적이다.

각국의 재생 에너지 관련 목표치 설정 및 정책 등의 영향으로 세계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의 시장 전망

신재생에너지 의무혼합제도(RFS2; Renewable Fuels Standard)의 시행에 따라 미국은 에탄올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에탄올 및 바이오디젤의 혼합 기준에 대한 세금 공제 및 에탄올 수입 관세를 가정하였다. 미국의 에탄올 소비량은 전망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약 710억 리터에 이를 전망이다. 2020년 가솔린 형태의 수송용 연료 가운데 에탄올 소비 비중은 8.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셀룰로오스 에탄올에 대한 연구개발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생산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세대 에탄올 생산은 전망기간 후반부터 증가하여 2020년 43억 리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셀룰로오스 바이오에너지 목표치인 400억 리터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미국의 에탄올 생산에는 주로 옥수수가 이용되며, 2015년에는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 목표치는 568억 리터이다.

2011년 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2011년 이후 생산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반 휘발유에 에탄올 혼합 비중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주된 원인은 소매업자들이 고객에게 별도의 펌프를 필요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솔린을 권장하지 않을뿐더러 법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에탄올 가격 경쟁력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중장기적인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2년까지 에탄올 혼합 비중은 1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FS2에서는 2012년까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디젤 소비량 목표치를 38억 리터로 설정하고 있다. 2012년 이후 부터는 설정된 목표치가 없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에탄올 소비량은 2020년에는 약 710억 리터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의 바이오 디젤 소비량은 2020년에는 48억 리터에 이를 전망이다.

EU의 총 바이오디젤 소비량은 2020년에는 200억 리터에 이를 전망이다.

전망기간 동안 기존 목표치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미국의 바이오 디젤 소비량은 전망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48억 리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디젤 소비는 2020년에는 1세대 바이오 에너지 목표치인 570억 리터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동물성 지방, 폐유(waste oil), 옥수수기름 부산물 등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은 미국 바이오디젤 생산량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신재생에너지 규정(RED; Renewable Energy Directive) 시행으로 2020년 총 수송용 연료 소비량 중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10%로 늘어날 전망이다. RED에서는 전기 자동차와 같은 기타 재생 자원이 고려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가정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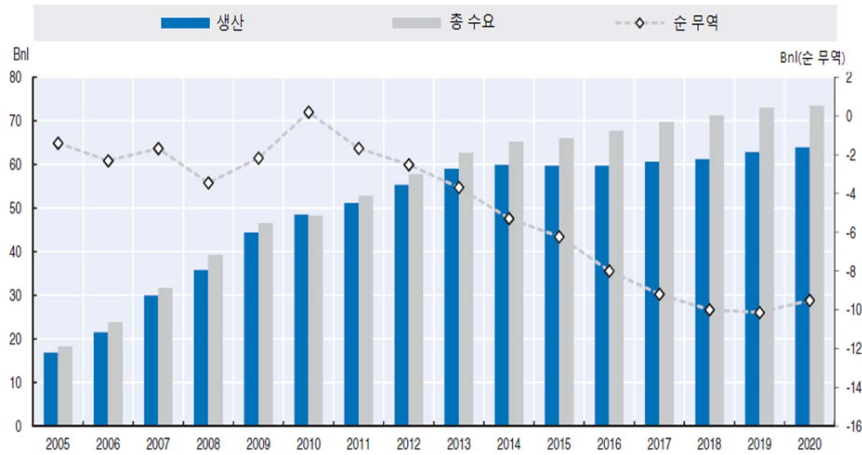
EU의 총 바이오디젤 소비량은 전망기간 동안 약 85% 증가하여 2020년에는 200억 리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08-2010년 대비 70%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 디젤 연료의 6.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EU의 바이오디젤 생산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EU의 바이오디젤 수입량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이후 2세대 바이오디젤의 생산량은 증가하여 2020년 22억 리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밀, 잡곡(coarse grains), 사탕무(sugar beet)를 원료로 하는 EU의 에탄올 생산량은 2020년에는 약 165억 리터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2세대 바이오 에탄올 생산량은 전망기간 후반부터 증가하여 2020년에는 16억 리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가솔린 소비는 전망기간 동안 기준년도(2008-2010년)대비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가솔린 형태의 수송용 연료 가운데 에탄올 비중은 8.2%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의 경우 가솔린 연료 소비량 중 에탄올 비중을 5%로 목표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료 소비 증가와 함께 캐나다의 에탄올 소비는 늘어날 전망이다. 캐나다의 생산량은 전망기간 내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약 24억 리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난방유를 비롯한 모든 디젤 수송 연료에 대한 바이오디젤 혼합 기준(1.6%)으로 인하여 바이오디젤 소비량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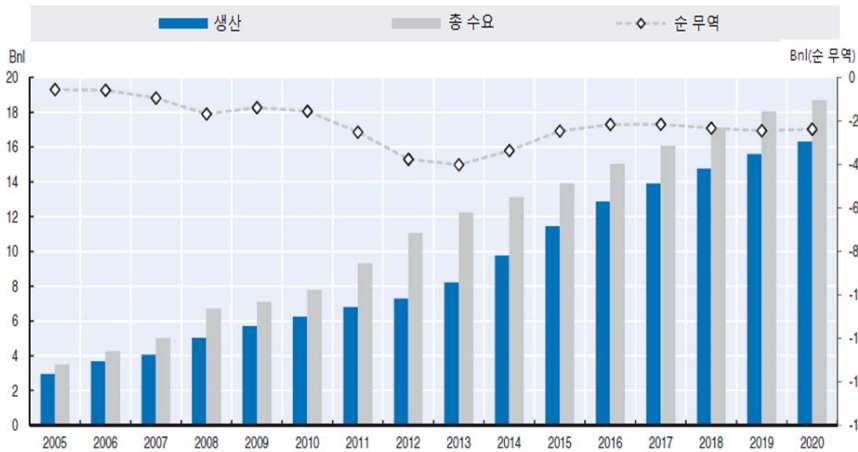
호주는 가솔린 연료 소비에서 차지하는 에탄올 비중이 1.6% 수준으로 전망기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와 퀸즐랜드(Queensland)에서는 2010년 에탄올 혼합 기준이 도입되었다. 디젤 연료 중 바이오디젤 비중은 전망기간 내내 2.7%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호주의 바이오디젤은 대부분 수지(animal tallow)를 이용하여 생산된다.

그림 4 미국 에탄올 시장 전망



자료: OECD and FAO Secretariats.

그림 5 유럽 바이오텔 시장 전망



자료: OECD and FAO Secretariats.

개도국의 시장 전망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바이오에너지 사용에 대한 혼합 기준을 도입한 대부분의 개도국에서는 2010년 바이오에너지 생산량이 예상치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개도국에서 자트로파(jatropha), 카사바(cassava) 등의 바이오에너지 원료 대체작물 생산이 계획 단계에 있거나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와 가나는 카사바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개도국에서는 바이

2020년 개도국의 에탄올 생산량은 710억 리터로 전망되며, 브라질, 인도, 중국의 생산비중은 85%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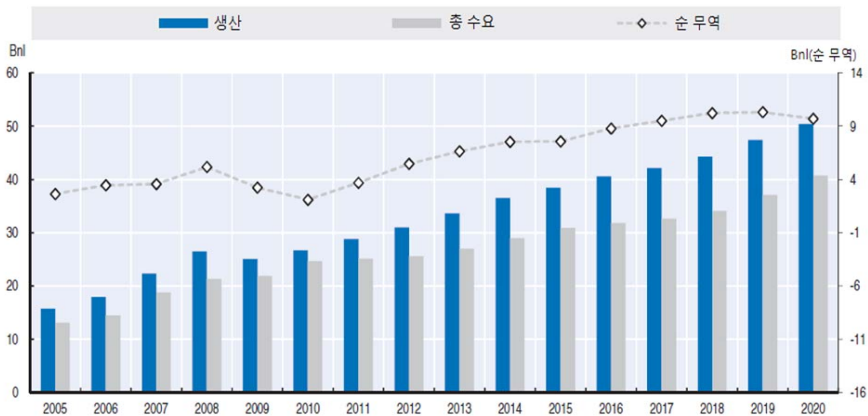
오에너지 생산이完만한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소비량이 목표치 또는 혼합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사탕수수, 식물성유지(vegetable oil), 팜유 등의 생산 잠재력은 높은 국가들도 있다.

2020년 개도국의 에탄올 생산량은 710억 리터로 전망되며, 이중 브라질, 인도, 중국의 생산비중은 85%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생산된 에탄올의 대부분이 식량 및 화학산업 등 연료 외적인 용도로 소비되고 있다.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지역은 주요 에탄올 생산국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2020년에는 태국의 에탄올 생산량은 22억 리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개도국에서는 에탄올 생산 기반을 위한 투자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탕수수를 이용한 에탄올 생산량은 매년 약 6%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세계 2위의 에탄올 생산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33%를 차지할 전망이다. 브라질의 에탄올 시장 상황은 2010년과 다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내용은 전망기간 초기 원당 가격 하락, 사탕수수 재배면적 증가 및 단수 회복, 에탄올 시장 투자 증가 등으로 에탄올 생산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회복되면서 에탄올 생산이 설탕 생산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탕수수 생산량의 절반 정도는 에탄올 생산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의 에탄올 소비량은 전망기간 동안 증가하여 2020년에는 410억 리터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다중연료 차량(flexi-fuel vehicles)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개도국 가운데 바이오 디젤 최대 생산국은 아르헨티나로 2020년에는 개도국의 전체 바이오디젤 생산량의 25%(32억 리터), 세계 전체 바이오디젤 생산량의 8%를 차지할 전망이다. 브라질의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대두유와 팜유를 주원료로 하며, 2020년에는 30억 리터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바이오디젤 혼합 기준에 따른 국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차별화된 수출 관세제도에 따른 인센티브로 수출 시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말레이시아의 생산량은 2020년에는 13억 리터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동아시아 국가의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약 10~15억 리터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량 증가는 국내 소비를 위한 것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바이오디젤 혼합 기준 설정에 의한 것이다.

그림 6 브라질 에탄올 시장 전망



자료: OECD and FAO Secretariats.

바이오에너지 생산 원료

<그림 7>은 에탄올 생산에 사용된 원료별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에탄올 생산의 주원료인 옥수수과 사탕수수의 비중은 향후 10년간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2020년 세계 에탄올 생산 원료 중 잡곡과 사탕수수의 비중은 각각 44%, 3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셀룰로오스 에탄올 생산은 5%에 불과할 전망이다. 선진국의 경우 옥수수를 이용한 에탄올의 비중이 기준년도 89%에서 2020년 78%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밀을 이용한 에탄올 생산이 전체 에탄올 생산의 6%를 차지하여 기준년도(3%)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EU에서 밀을 원료로 하는 에탄올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사탕무를 이용한 에탄올의 경우 전체 에탄올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망기간 내내 약 4%를 유지할 전망이다. 선진국에서는 2017년 이후 셀룰로오스 에탄올 생산이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체 에탄올의 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개도국의 에탄올 생산 원료는 사탕수수가 8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브라질의 사탕수수 에탄올 생산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카사바와 같은 근류(roots) 및 괴경(tuber)을 이용한 에탄올 생산 비중은 4%에 그칠 전망이다. 브라질의 에탄올 시장을 제외할 경우 상황은 다르다. 이 경우 개도국에서는 전체 에탄올 생산에서 당밀(molasses)과 사탕수수 원료 비중이 각각 40%, 1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근류와 괴경의 원료 비중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은 에탄올 연료용 카사바 생산 잠재력이 높다. 그러나 사탕수수와 비교할 경우 높은 생산비와 생산 규모가 작아 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8>은 바이오디젤 생산 원료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2020년 세계 바이오

2020년 세계 에탄올 생산 원료 중 잡곡과 사탕수수의 비중은 각각 44%, 3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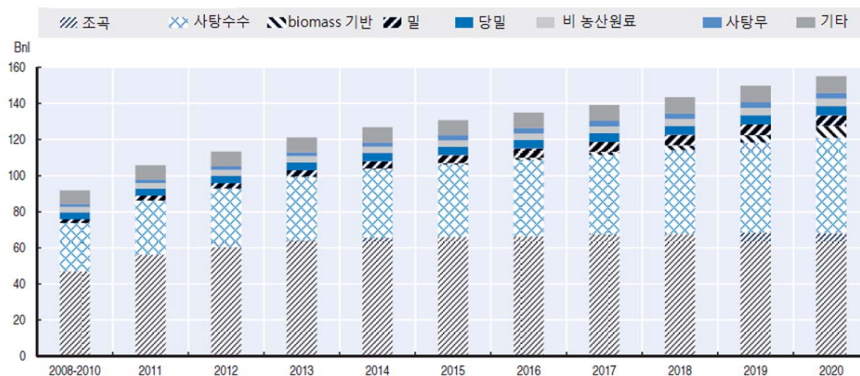
2020년 세계 바이오디젤 생산량 가운데 식물성유지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5% 이상으로 전망된다.

디젤 생산량 가운데 식물성유지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75% 이상으로 전망된다. 한편, 자트로파 원료 비중은 7% 수준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에서는 2020년 식물성유지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비중이 75%로 기준년도(85%)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 및 수지를 활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비중은 전망기간 내내 약 1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에서는 2018년 이후 2세대 바이오디젤 생산이 늘어날 전망이며, 2020년 전체 바이오디젤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할 전망이다.

개도국에서는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연료로 팜유, 대두유와 같은 식물성유지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 이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주 원료로 대두유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개도국의 바이오디젤 연료 중 자트로파의 비중은 2020년 10% 수준에 그칠 전망이며,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제외할 경우 19%로 예상된다. 칠레를 제외한 개도국에서는 채유(rapeseed oil)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생산 비중이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칠레는 기상여건이 채유 생산에 유리하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의 채유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생산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수지(tallow) 원료 비중은 세계 시장에서 미미한 수준이지만 축산업 비중이 큰 파라과이와 우루과이에서는 높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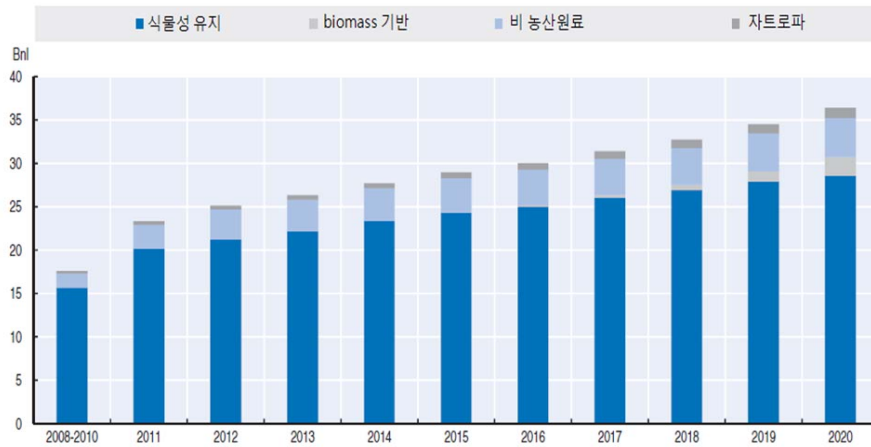
전망기간 동안 바이오에너지 소비는 곡물, 사탕수수, 식물성유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세계 잡곡 생산량의 12%가 에탄올 생산에 소비될 것으로 전망되어 기준년도(11%)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며, 식물성유지의 경우 바이오디젤 원료용 소비 비중이 기준년도 11%에서 2020년 16%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2020년 세계 설탕 생산량의 33%는 바이오디젤 생산에 이용될 것으로 전망되어 기준년도(21%)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7 사용 원료에 따른 세계 에탄올 생산 변화



자료: OECD and FAO Secretariats.

그림 8 사용 원료에 따른 세계 바이오디젤 생산 변화



자료: OECD and FAO Secretariats.

교역

세계 에탄올 교역량은 전망기간 동안 세계 전체 생산량의 약 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브라질은 에탄올 수출량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수요 증가 및 2세대 에탄올 생산 증가가 저조하여 2020년 미국의 에탄올 순수입량은 95억 리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에탄올의 교역량 증가는 브라질과 태국의 수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난다. 2020년에 브라질과 태국의 에탄올 수출량은 각각 97억 리터, 5억 리터로 전망된다. EU의 에탄올 수입량의 경우 전망기간 초기에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 40억 리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RED 기준과 셀룰로오스 에탄올의 개발 및 생산으로 전망기간 후반부터는 감소하여 2020년에는 23억 리터가 수입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는 바이오디젤 수출 강국의 입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25억 리터를 수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0년 말레이시아와 콜롬비아의 바이오디젤 수출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 소비를 위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바이오디젤 교역량은 낮은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EU의 바이오디젤 수입량은 수요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 증가로 큰 변동없이 전망기간 동안 약 20억 리터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에탄올 교역량은 전망기간 동안 전체 생산량의 약 7%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주요 이슈 및 불확실성

세계 바이오에너지 시장의 성장은 많은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는다.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곡물의 식량 및 연료 생산에 있어서 용도 경쟁 구도가 심화됨에 따라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소비 촉진 정책, 정부 보조가 점진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 변화

최근 몇 년간 바이오연료 시장은 주로 정책 변화, 거시경제 요인, 그리고 원유가격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의 상호작용은 해당 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출 및 투자 의사가 결정된다. 현재, 미국의 바이오에너지 혼합 기준에 대한 세금 감면과 에탄올 관세 개정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이 크다. 이러한 정책변수들이 없을 경우를 가정하면 전망치가 수정될 것이다. 예를 들어, 2010년에 바이오에너지 혼합 기준 개정이 연기되었을 경우 미국의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상당 수준 감소가 예상된다. 옥수수보다 사탕수수를 이용한 에탄올의 경쟁력이 높을 경우 브라질산 에탄올은 미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곡물의 식량 및 연료 생산에 있어서 용도 경쟁 구도가 심화됨에 따라 바이오에너지 생산과 소비 촉진 정책, 정부 보조가 점진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1세대 바이오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자원으로

곡물 원료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액체 수송 연료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자원 성장의 첫 단계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식되어왔다.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메스(lignocellulosic biomass), 폐기물 등을 이용한 2세대 바이오에너지로의 변천은 향후 몇 년간의 연구개발 및 투자, 생산 장려 정책에 의해 성패가 좌우될 것이다. 2세대 바이오 에너지의 성장 가능성은 전망기간 후반부터 현저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세대 바이오에너지의 저조한 성장이 지속되면서 바이오에너지 소비를 강력하게 권장하는 국가들의 추가적인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자원은 향후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 및 하이브리드 차량의 성장 가능성은 불확실하지만 EU 회원국들의 곡물 원료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 가능한 정책 기준

바이오 연료 주요 소비국의 정책에 포함된 정책 기준들은 바이오에너지 시장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EU의 바이오에너지 생산자들의 경우 엄격한 온실가스(CHG) 배출량 목표치가 요구된다. RFS2에서는 다양한 바이오연료들에 대하여 온실가스 방출 감축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린과 비교할 때 기존의 신재생 연료는 20%, 바이오메스 디젤 및 비셀룰로오스 바이오에너지는 50%, 셀룰로오스 바이오에너지는 60%에 해당하는 온실 가스 방출량을 감축해야 한다. 기존 에탄올 생산 설비의 경우 이러한 요구 사항이 해당되지 않지만, 새로운 시설의 경우 위의 기준이 적용된다. RED에서는 기존 바이오에너지에 대해 온실가스를 최소한

35% 감축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 기존 시설과 새로운 시설에 대한 기준치가 각각 50%, 60%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한 기준들은 교역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수입국의 정책과 어긋나는 경우 바이오에너지 또는 바이오에너지 원료 수입이 제한된다. 다양한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은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RFS2에서는 대두유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불이행 기준이 57%로 규정되지만, RED의 경우 31%에 불과하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바이오에너지의 생산을 위한 대두와 대두유 교역이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팜유 교역은 환경 및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생산 지속가능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개도국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발전

대다수 개도국의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소비 데이터는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도국 중 일부 국가는 향후 생산 여력 및 소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바이오에너지 원료 작물 생산이 여의치 않은 국가는 수입을 하지 않을 경우 국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바이오에너지 원료가 부족한 국가들에서는 생산 여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비식용작물인 자트로파를 고려하였다. 이는 바이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원료로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당초 기대치보다 생산 여력이 매우 낮으며, 자트로파의 대규모 생산은 현재로서 불가능한 실정이다. 다양한 생육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재식재료(planting materials)의 발달로 자트로파의 발전 가능성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개도국의 또 다른 국면은 이미 매우 높은 수준의 바이오에너지 생산 여력을 갖춘 국가들의 등장이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은 향후 주요 바이오에너지 수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2010년 말레이시아의 생산량은 17억 5,000리터로 생산 가능량의 약 45% 수준이었다. 이들 국가에서 바이오에너지 생산 여력이 전적으로 발휘되었는지 또는 향후 보다 높은 성장 가능성이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EU의 RED 기준은 팜유를 이용한 바이오디젤 수입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바이오디젤 생산 및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참고자료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1-2020, 2011.

• 세계 농산물 수급·가격 동향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11. 6)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11. 6)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11. 6)

세계 곡물 가격 동향 (2011. 6)*

성명환

1. 국제 연물가격

쌀의 본선인도가격

2011년 6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7.9% 상승한 톤당 871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0.6% 상승한 톤당 512달러이다.

미 농무부(USDA)가 2011년 6월 10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6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의 본선인도가격(F.O.B.: free on board)은 전년 동월대비 17.9% 상승한 톤당 871달러, 태국산 장립종 쌀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10.6% 상승한 톤당 512달러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쌀은 2002년 10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2004년 2월에는 톤당 570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7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쌀 가격은 2004년 11월 톤당 397달러로 내려간 이후 2005년 4월까지 동일한 가격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5년 9월부터 가격이 다시 상승하여 11월에는 톤당 507달러까지 상승한 후 2006년 2월까지 유지되었다가 2006년 4월에는 톤당 485달러로 하락했다.

2006년 5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가격은 2007년 상반기 550달러, 하반기에는 5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후부터 중립종 쌀가격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4월 758달러, 9월에는 1,11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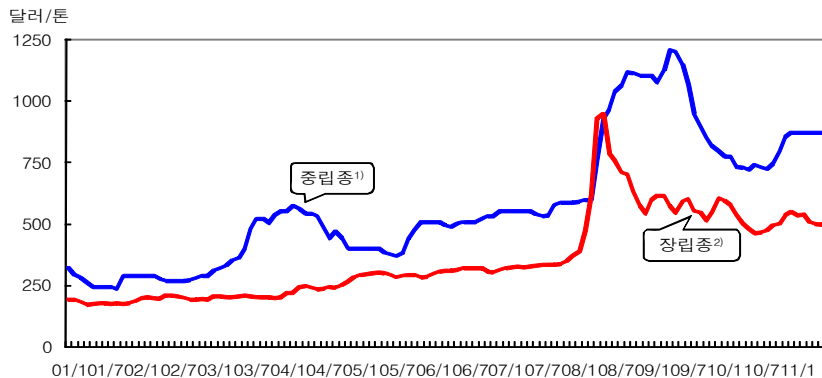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mhsung@krei.re.kr, 02-3299-4366)

후 약간 하락하여 2009년 2월까지 1,075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4월에는 톤당 1,208달러로 상승하였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0년 5월에는 톤당 719달러까지 하락하였다가 이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1년 6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중립종 쌀 가격은 톤당 871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17.9% 상승하였다. 2011년 미국의 중·단립종 쌀가격은 당분간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태국산 장립종 가격은 태국 수출 수요 증대로 2006년 5월 초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에는 321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11월에는 302달러까지 내려갔다. 이후 2007년 10월까지 톤당 320~3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2월에는 474달러, 3월 615달러, 4월에는 929달러, 5월에는 949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하락하여 12월에는 548달러까지 하락하였다가 2009년 3월에는 615달러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태국산 가격은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0년 6월에는 463달러까지 하락하였다가 반전되어 2011년 6월 현재 전년 동월대비 10.6%, 전월대비 2.8% 상승한 톤당 512달러이다. 2011년 태국 장립종 쌀가격은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중립종 쌀 가격은 앞으로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장립종 쌀가격은 강보합세가 전망된다.

그림 1 월별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자료: USDA, Rice Outlook, June 10, 2011.

표 1 쌀의 본선인도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FOB

국 가		2008/09	2009/10	2010.6	2011.5	2011.6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미 국	CA 중립종 ¹	1,119	791	739	871	871	17.9	0.0
	남부 장립종 ¹	610	506	451	503	503	11.5	0.0
태 국 ²		609	532	463	498	512	10.6	2.8
베 트 남 ³		456	397	363	473	473	30.3	0.0

주: (1) California 1등급 정곡기준, 남부 장립종은 2등급, (2) 태국 100% grade B, (3) 베트남 5% broken.
자료: USDA, Rice Outlook, June 10, 2011.

2011년 6월 27일 현재 운임포함 현물가격은 옥수수가 톤당 344달러, 대두가 톤당 565달러, 대두박이 톤당 443달러로 나타났다.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

미국 걸프만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옥수수의 운임포함가격(C&F: cost and freight)은 2006년 상반기 14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6월에는 424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08년 12월에는 188달러 수준이었다. 2011년 6월 27일 현재 톤당 344달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월대비 53.6%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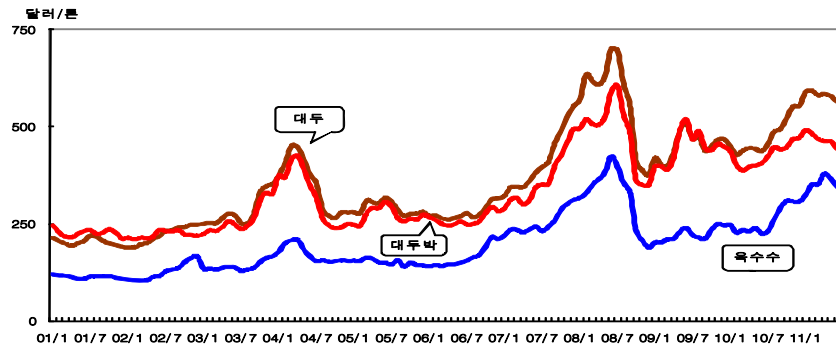
대두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산 대두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3월 톤당 450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2004년 10월에는 264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280-30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9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6월에는 톤당 700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하여 2008년 12월에는 375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11년 6월 27일 현재 톤당 565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월대비 29.6% 상승하였지만 전월대비로는 2.4% 하락하였다.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미국산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4년 4월 톤당 42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여 2006년 상반기까지 25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6년 8월 248달러를 시작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은 2008년 7월 60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하여 2008년 12월에는 34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상승하기 시작해 2009년 6월에는 톤당 518달러까지 상승하였다. 2011년 6월 27일 현재 톤당 443달러로서 전년 동월대비 9.4% 상승하였지만 전월대비로는 4.1% 하락하였다.

그림 2 월별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자료: 2011년 6월 가격은 한국사료협회에서 산정한 6월 27일 가격임.

표 2 옥수수·대두·대두박의 운임포함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C&F)

품 목	2008	2009	2010.6	2011.5	2011.6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옥 수 수	322	222	224	366	344	53.6	-6.0
대 두	565	451	436	579	565	29.6	-2.4
대 두 박	484	446	405	462	443	9.4	-4.1

자료: 2011년 6월 가격은 한국사료협회에서 산정한 6월 27일 가격임.

2. 국제 선물가격

2011년 6월 27일 현재 캔사스상품거래소(KCBOT)의 2011년 7월물 인도분 밀 선물 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45.7% 상승한 톤당 268달러이다. 시카고상품거래소(CBOT)의 2011년 7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79.3% 상승한 톤당 260달러, 2011년 7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39.3% 상승한 톤당 489달러이다.

밀의 선물가격

2005년 상반기까지 밀 선물가격은 톤당 120~13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0월에는 톤당 139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1월에는 132달러로 다시 하락하였으나 이후부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6년 10월에는 19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밀 선물가격은 톤당 18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7년 5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3월에는 42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계속 하락하여 12월에는 20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1월에는 톤당 226달러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등락을 거듭하였다. 2010년 7월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1년 6월 27일 현재 2011년 7월물 인도분 밀 선물가격은 톤당 268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45.7% 상승하였지만 전월대비로는 19.0% 하락하였다.

2011/12년도 미국, 호주 등 주요 소맥 생산국의 생산량은 이상기후와 파종지연으로 감소하고 재고량도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맥가격은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6월 현재 캔사스 상품거래소의 2011년 7월물 인도분 소맥 선물가격은 268달러이며,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2011년 7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260달러, 2011년 7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489달러이다.

옥수수 선물가격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124달러로 2000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04/05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하면서 2004년 11월에는 톤당 78달러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5년 상반기 옥수수 생산량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7월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2005/06년도에는 공급량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여 2005년 11월에는 톤당 76달러에 이르렀다.

2005년 12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7년 2월에는 162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다소 하락한 후 10월까지 톤당 140달러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7년 11월 톤당 150달러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2008년 6월에는 275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옥수수 선물가격은 12월에 145달러를 기록하였다.

2009년 1월에는 톤당 154달러까지 상승한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9년 8월에는 톤당 129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던 선물가격은 2010년 7월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1년 6월 27일 현재 2011년 7월물 인도분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60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79.3% 상승하였지만 전월대비로는 8.5% 하락하였다.

2011/12년도 옥수수 생산량이 증가되나 재고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2010/11년도 옥수수 선물가격은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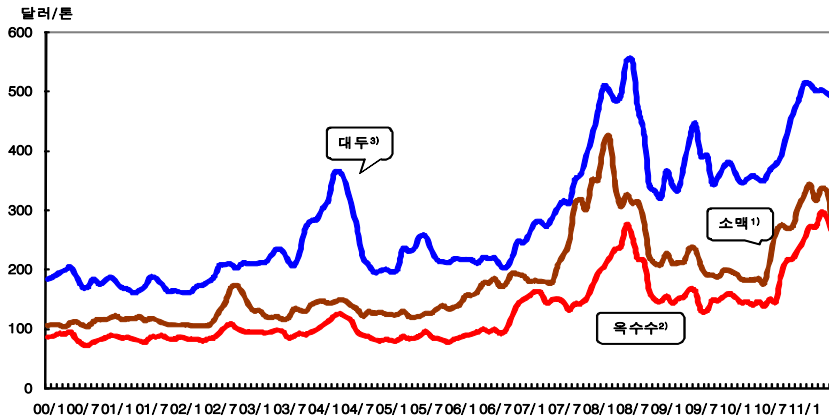
대두 선물가격

2001년 이후 대두 재고량이 감소함에 따라 대두 선물가격은 2004년 4월에 톤당 364달러까지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4/05년도 대두 생산이 늘어나면서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함으로써 2004/05년 대두 가격은 톤당 219달러로 전년보다 25.8% 하락하였고 2004년 10월에는 톤당 193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 2006년 10월까지 톤당 210~220달러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 2월 508달러, 6월에는 553달러까지 상승하였다. 이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12월에 319달러까지 하락하였다. 2009년 1월에는 톤당 365달러까지 상승하였다가 2009년 3월에는 332달러로 하락하였으나 6월에는 다시 톤당 445달러로 상승하였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면서 2009년 9월에는 톤당 342달러까지 하락하였다. 이후에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2010년 6월에는 348달러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1년 6월 27일 현재 2011년 7월물 인도분 대두 선물가격은 전년 동월대비 39.3% 상승하였지만 전월대비로는 1.4% 하락한 톤당 489달러이다.

2011/12년도 대두 소비량이 늘어나서 재고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어 대두 선물가격은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 월별 소맥·옥수수·대두 선물가격 동향



주: (1) 소맥은 Kansas Hard Red Winter Wheat 2등급

(2) 옥수수는 Chicago Yellow Corn 2등급 (3) 대두는 Chicago 1등급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표 3 소맥·옥수수·대두의 선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품 목	2008/09	2009/10	2010.6	2011.5	2011.6	증감률(%)	
						전년동월	전월대비
소 맥1)	247	192	184	331	268	45.7	-19.0
옥 수 수2)	155	145	145	284	260	79.3	-8.5
대 두2)	373	359	351	496	489	39.3	-1.4

주: (1) 소맥(HRW) 2등급(KCBOT). 소맥 곡물연도 6~5월. (2)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옥수수·대두 곡물연도 9~8월. 2011년 6월 27일 기준 선물가격임.

자료: USDA AMS and ERS(Average monthly closing price for the nearby futures).

표 4 연도별 세계 곡물가격 동향

단위: 달러/톤

연도 ¹⁾	쌀(FOB 가격)				선물가격		
	미국 ²⁾		태국		소맥 ³⁾	옥수수 ⁴⁾	대두 ⁴⁾
	장립종	중립종	100% Grade B	5% parboiled			
1987/88	421	366	273	261	108	87	251
1988/89	324	301	292	276	152	106	274
1989/90	342	352	292	259	144	100	217
1990/91	331	347	296	270	103	94	214
1991/92	368	384	287	269	131	99	212
1992/93	322	383	244	227	124	87	218
1993/94	439	451	294	244	123	103	242
1994/95	314	375	290	276	136	96	211
1995/96	414	445	362	344	188	150	271
1996/97	450	415	338	323	164	110	281
1997/98	415	396	302	292	130	101	239
1998/99	366	470	284	276	110	85	182
1999/00	270	454	231	242	105	83	182
2000/01	275	304	184	186	114	82	174
2001/02	207	285	192	197	108	85	174
2002/03	223	327	199	195	137	94	213
2003/04	360	533	220	221	136	104	295
2004/05	312	405	278	278	126	83	219
2005/06	334	484	301	293	142	88	214
2006/07	407	538	320	317	181	140	267
2007/08	621	694	551	570	315	203	462
2008/09	610	1,119	609	616	247	155	373
2009/10	506	791	532	397	192	145	359

주: (1) 곡물년도 쌀(8~7), 소맥(6~5), 옥수수(9~8), 대두(9~8)평균임. (2) 장립종 1997-98년까지는 Texas, 1998-99년 이후는 4% broken, Gulf Coast, 중립종 1등급 4% broken California, (3) 소맥(HRW) 2등급 (KCBOT) (4) 옥수수(yellow corn) 2등급, 대두(yellow soybean) 1등급(CBOT)

자료: USDA ERS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Outlook>

<http://www.ers.usda.gov/Data/PriceForecast/>

<http://www.ams.usda.gov/mnreports/lstdgr.pdf>

세계 곡물 수급 동향 (2011. 6)*

성명환

1. 전세계 곡물

2011/12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3.5% 증가
된 22억 6,459만 톤,
소비량은 전년대비
1.8% 증가된 22억
7,725만 톤으로 전
망된다.

미국 농무부(USDA)가 지난 6월 9일에 발표한 세계 곡물 수급 전망에 의하면, 2011/12년도 세계 전체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3.5% 증가된 22억 6,45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대비 쌀, 소맥, 옥수수 생산량 모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11/12년도 총공급량은 전년 기말재고량 4억 3,709만 톤과 생산량을 합친 27억 167만 톤으로 전년대비 1.0%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년보다 2,700만 톤 늘어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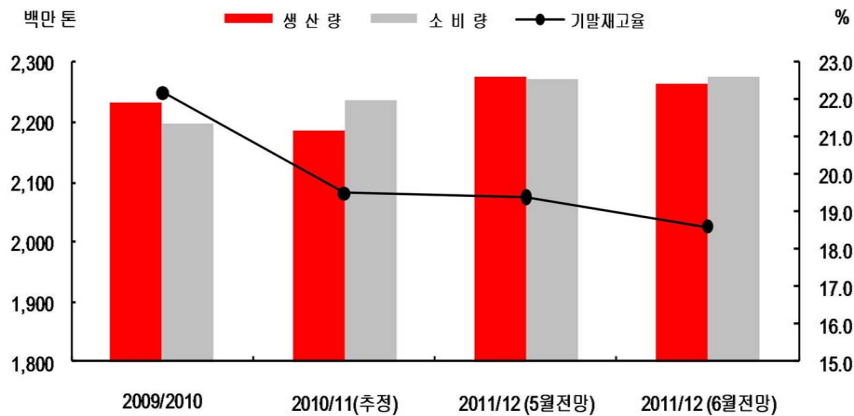
2011/12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22억 7,725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12년도에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1,270만 톤 정도 초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곡물 교역량(수출량 기준)은 전년보다 0.6% 증가된 2억 7,421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12년도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2.9% 감소한 4억 2,442만 톤으로 전망된다. 기말재고율은 2010/11년도보다 0.9% 포인트 낮은 18.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본 내용은 미국 농무부(USDA)가 발간한 전망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mhsung@krei.re.kr, 02-3299-4366)

세계 농산물 수급·가격 동향

그림 1 전체 곡물의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율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5, June 9, 2011.

표 1 전체 곡물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9/10	2010/11 (추정)	2011/12(전망)		변동율(%)	
			2011.5	2011.6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233.95	2,187.67	2,274.22	2,264.59	3.5	-0.4
공 급 량	2,685.64	2,674.67	2,711.84	2,701.67	1.0	-0.4
소 비 량	2,198.64	2,237.59	2,272.05	2,277.25	1.8	0.2
교 역 량	290.06	272.51	274.63	274.21	0.6	-0.2
기말재고량	487.00	437.09	439.79	424.42	-2.9	-3.5
기말재고율(%)	22.2	19.5	19.4	18.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5, June 9, 2011.

2. 쌀

2011/12년도 쌀 생산량은 2010/11년보다 1.4% 증가된 4억 5,639만 톤 수준으로 전망된다. 태국, 인도, 중국의 생산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은 생산량은 전년대비 15.2%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12년도 쌀 소비량은 전년대비 2.4% 증가한 4억 5,797만 톤으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4억 4,740만 톤보다 약 1,060만 톤 정도 늘어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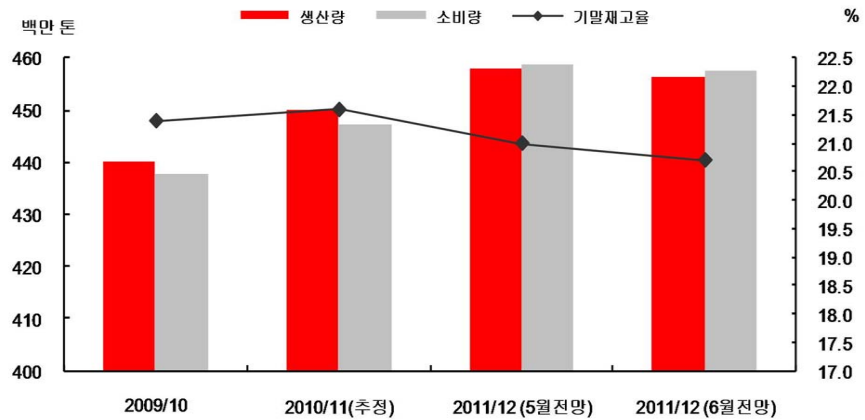
2011/12년도 세계 전체 쌀 교역량은 전년보다 2.7% 늘어난 3,234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교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7.1%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2011/12년도 쌀 생산량은 4억 5,639만 톤, 소비량은 4억 5,797만 톤으로 예상된다. 교역량은 3,234만 톤 수준으로 전망되며, 기말재고율은 20.7%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와 베트남의 수출량이 전년대비 각각 16.7%, 3.2% 증가하는 반면 미국은 3.7% 감소될 전망이다. 전세계 쌀 수출량 중에서 태국이 30.9%, 베트남 19.8%, 미국이 10.5%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국의 비중이 61.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쌀 기말재고량은 전년대비 1.6% 감소된 9,49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 2011/12년도 기말재고율은 20.7%로 전년도보다 0.9% 포인트 낮아질 전망이다. 미국, 인도네시아의 재고량은 전년대비 각각 23.3%, 17.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쌀의 생산량, 소비량, 기말재고율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5, June 9, 2011.

표 2 쌀(정곡기준)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9/10	2010/11 (추정)	2011/12(전망)		변동율(%)	
			2011.5	2011.6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440.06	450.01	457.86	456.39	1.4	-0.3
공 급 량	531.59	543.88	554.90	552.87	1.7	-0.4
소 비 량	437.72	447.40	458.73	457.97	2.4	-0.2
교 역 량	31.07	31.49	32.24	32.34	2.7	0.3
기말재고량	93.87	96.48	96.17	94.90	-1.6	-1.3
기말재고율(%)	21.4	21.6	21.0	20.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5, June 9, 2011.

3. 소맥

캐나다, 러시아 등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2011/12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전년보다 2.5% 증가한 6억 6,434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12년도 세계 소맥 소비량은 2010/11년보다 1.2% 증가한 6억 6,719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중국, 파키스탄의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그중에서도 미국은 전년대비 5.1% 늘어날 전망이다.

소맥의 국제 교역량은 전년대비 0.9% 증가된 1억 2,759만 톤이 될 전망이다. 2011/12년도 미국의 소맥 수출량은 전년보다 18.9% 줄어든 2,858만 톤이나 전체 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4%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의 수출량은 전년보다 15.6% 늘어난 1,850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12년 기말재고량은 1억 8,426만 톤으로 전년보다 1.5%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의 재고량이 전년대비 15.1% 줄어든 전망이다. 기말재고율은 지난해보다 0.8% 포인트 하락한 27.6%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11/12년도 세계 소맥 생산량은 캐나다, 러시아의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6억 6,434만 톤, 소비량은 미국, 중국의 소비가 늘어나 6억 6,71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소맥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9/10	2010/11	2011/12(전망)		변동율(%)	
		(추정)	2011.5	2011.6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684.25	648.21	669.55	664.34	2.5	-0.8
공 급 량	850.49	846.50	851.75	851.46	0.6	0.0
소 비 량	652.20	659.39	670.49	667.19	1.2	-0.5
교 역 량	135.85	126.40	127.34	127.59	0.9	0.2
기말재고량	198.29	187.12	181.26	184.26	-1.5	1.7
기말재고율(%)	30.4	28.4	27.0	27.6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5, June 9, 2011.

4. 옥수수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생산량이 전년대비 각각 6.1%, 18.2%, 14.0%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2011/12년도 전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5.6% 증가된 8억 6,618만 톤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생산량도 2.9%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1/12년도의 소비량은 전년보다 약 2,510만 톤 정도 늘어난 8억 7,174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EU와 중국의 소비량이 전년대비 각각 4.2%, 5.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1/12년도에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약 560만 톤 정도 초과할 전망이다.

2011/12년도 세계 옥수수 교역량은 전년보다 2.8% 증가한 9,320만 톤이고, 생산

2011/12년도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전년보다 5.6% 증가된 8억 6,618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량은 전년대비 3.0% 증가된 8억 7,174만 톤이 될 전망이다. 기말재고율은 12.8%가 될 전망이다.

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수출량 중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9.1%, 19.3%로 이들 두 국가가 전체 수출량의 68.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수출량은 전년보다 5.3% 줄어드나 아르헨티나는 24.1% 늘어날 전망이다.

2011/12년도 옥수수 기말재고량은 전년보다 4.7% 감소된 1억 1,189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보다 약 560만 톤 줄어든 수준이다. 2011/12년도 기말재고율은 전년보다 1.1% 포인트 하락한 12.8%가 될 전망이어서 매우 낮은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표 4 옥수수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9/10	2010/11	2011/12(전망)		변동율(%)	
		(추정)	2011.5	2011.6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812.98	820.62	867.73	866.18	5.6	-0.2
공 급 량	960.22	964.07	989.92	983.62	2.0	-0.6
소 비 량	816.77	846.63	860.78	871.74	3.0	1.3
교 역 량	97.00	90.64	92.50	93.20	2.8	0.8
기말재고량	143.45	117.44	129.14	111.89	-4.7	-13.4
기말재고율(%)	17.6	13.9	15.0	12.8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5, June 9, 2011.

5. 대두

2011/12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6,279만 톤, 소비량은 2억 6,321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에서 교역량의 비중은 37.6%로 전망되며 주요 수출국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이다.

2011/12년도 세계 대두 생산량은 2억 6,279만 톤으로 전년대비 0.3%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가 전년대비 7.1%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브라질, 중국은 감소될 전망이다.

2011/12년도 세계 대두 소비량은 2010/11년 2억 5,578만 톤보다 약 740만 톤 늘어난 2억 6,321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의 소비량이 전년대비 각각 2.5%, 3.6%, 8.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었다.

대두 교역량은 전년보다 4.5% 증가한 9,875만 톤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7.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출량 중에서 미국이 41.9%, 브라질이 34.4%, 아르헨티나가 11.9%의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3국의 수출비중이 88.2%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수출량은 전년대비 각각 30.1%, 6.8% 증가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1.3% 감소될 전망이다.

대두의 기말재고량은 6,159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의 6,453만 톤과 비교하여 4.6% 감소,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1.8% 포인트 하락한 23.4%가 될 전망이다.

표 5 대두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9/10	2010/11	2011/12(전망)		변동율(%)	
		(추정)	2011.5	2011.6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260.84	263.49	263.29	262.79	-0.3	-0.2
공 급 량	303.52	322.80	327.10	327.32	1.4	0.1
소 비 량	238.36	255.78	262.69	263.21	2.9	0.2
교 역 량	92.65	94.52	98.79	98.75	4.5	0.0
기말재고량	59.31	64.53	61.85	61.59	-4.6	-0.4
기말재고율(%)	24.9	25.2	23.5	23.4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5, June 9, 2011.

6. 대두박

2011/12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1억 8,366만 톤으로 전년대비 3.1% 증가, 소비량은 1억 8,178만 톤으로 전년대비 4.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량이 소비량을 약 190만 톤 정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 교역량은 전년대비 0.3% 증가한 6,107만 톤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교역량의 비중은 33.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수출량 중에서 아르헨티나 49.5%, 브라질 24.3%, 미국이 12.9%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국의 수출 비중은 86.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두박의 기말재고량은 671만 톤으로 전망되어 전년대비 0.9%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기말재고율은 전년대비 3.7%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1/12년도 세계 대두박 생산량은 전년대비 3.1% 증가, 소비량은 4.1%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역량은 생산량의 33.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표 6 대두박 수급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9/10	2010/11	2011/12(전망)		변동율(%)	
		(추정)	2011.5	2011.6	전년대비	전월대비
생 산 량	165.27	178.16	183.19	183.66	3.1	0.3
공 급 량	169.75	184.26	189.69	190.43	3.3	0.4
소 비 량	161.07	174.59	181.43	181.78	4.1	0.2
교 역 량	55.72	60.88	60.61	61.07	0.3	0.8
기말재고량	6.10	6.77	6.55	6.71	-0.9	2.4
기말재고율(%)	3.8	3.9	3.6	3.7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5, June 9, 2011.

표 7 주요국별 쌀(정곡기준)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9/10	2010/11	2011/12(전망)		변동율(%)	
		(추정)	2011.5	2011.6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531.59	543.88	554.90	552.87	1.7	-0.4
기초재고량	91.53	93.87	97.04	96.48	2.8	-0.6
생산량	440.06	450.01	457.86	456.39	1.4	-0.3
미국	7.13	7.55	6.77	6.40	-15.2	-5.5
태국	20.26	20.26	20.75	20.75	2.4	0.0
베트남	24.99	25.53	25.43	25.43	-0.4	0.0
인도네시아	36.37	36.90	37.60	37.60	1.9	0.0
인도	89.09	94.50	97.00	97.00	2.6	0.0
중국	136.57	137.00	140.00	138.00	0.7	-1.4
일본	7.71	7.72	7.68	7.68	-0.5	0.0
수입량	28.08	29.58	28.82	28.92	-2.2	0.3
인도네시아	1.15	1.75	0.40	0.40	-77.1	0.0
중국	0.39	0.60	0.40	0.40	-33.3	0.0
일본	0.67	0.70	0.70	0.70	0.0	0.0
소비량	437.72	447.40	458.73	457.97	2.4	-0.2
미국	4.01	4.01	4.01	3.98	-0.7	-0.7
태국	10.20	10.50	10.90	10.90	3.8	0.0
베트남	19.15	19.30	19.45	19.55	1.3	0.5
인도네시아	38.00	38.85	39.14	39.14	0.7	0.0
인도	85.69	91.00	94.70	94.70	4.1	0.0
중국	134.32	135.00	137.70	136.50	1.1	-0.9
일본	8.20	8.13	8.25	8.25	1.5	0.0
수출량	31.07	31.49	32.24	32.34	2.7	0.3
미국	3.52	3.53	3.50	3.40	-3.7	-2.9
인도	1.90	2.40	2.80	2.80	16.7	0.0
태국	9.05	10.00	10.00	10.00	0.0	0.0
베트남	6.73	6.20	6.40	6.40	3.2	0.0
기말재고량	93.87	96.48	96.17	94.90	-1.6	-1.3
미국	1.18	1.76	1.56	1.35	-23.3	-13.5
태국	6.10	6.06	6.01	6.01	-0.8	0.0
베트남	1.47	2.10	1.90	2.08	-1.0	9.5
인도네시아	6.58	6.38	5.24	5.24	-17.9	0.0
인도	20.50	21.60	21.10	21.10	-2.3	0.0
중국	40.53	42.53	45.73	43.83	3.1	-4.2
일본	2.69	2.79	2.77	2.77	-0.7	0.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5, June 9, 2011.

표 8 주요국별 소맥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9/10	2010/11	2011/12(전망)		변동율(%)	
		(추정)	2011.5	2011.6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850.49	846.50	851.75	851.46	0.6	0.0
기초재고량	166.24	198.29	182.20	187.12	-5.6	2.7
생산량	684.25	648.21	669.55	664.34	2.5	-0.8
미국	60.37	60.10	55.61	56.01	-6.8	0.7
호주	21.92	26.00	24.50	25.00	-3.8	2.0
캐나다	26.85	23.17	26.00	25.00	7.9	-3.8
EU27	138.67	135.66	138.62	131.50	-3.1	-5.1
중국	115.12	115.18	115.50	115.50	0.3	0.0
러시아	61.77	41.51	53.00	53.00	27.7	0.0
수입량	133.58	125.42	124.02	124.32	-0.9	0.2
EU27	5.52	4.50	6.00	6.50	44.4	8.3
브라질	7.13	6.70	6.70	6.70	0.0	0.0
북아프리카	21.40	22.90	19.80	19.80	-13.5	0.0
파키스탄	0.17	0.20	0.20	0.20	0.0	0.0
인도	0.22	0.30	0.30	0.30	0.0	0.0
러시아	0.16	0.30	0.20	0.20	-33.3	0.0
소비량	652.20	659.39	670.49	667.19	1.2	-0.5
미국	30.93	32.11	33.75	33.75	5.1	0.0
EU27	125.00	122.50	125.00	122.50	0.0	-2.0
중국	107.00	109.50	111.00	111.00	1.4	0.0
파키스탄	23.00	23.20	23.40	23.40	0.9	0.0
러시아	40.00	41.30	40.80	40.80	-1.2	0.0
수출량	135.85	126.40	127.34	127.59	0.9	0.2
미국	23.98	35.24	28.58	28.58	-18.9	0.0
캐나다	19.04	16.00	18.50	18.50	15.6	0.0
EU27	22.12	22.00	18.00	15.00	-31.8	-16.7
기말재고량	198.29	187.12	181.26	184.26	-1.5	1.7
미국	26.55	22.02	19.12	18.70	-15.1	-2.2
EU27	16.01	11.67	13.32	12.18	4.4	-8.6
중국	54.43	60.11	64.43	64.61	7.5	0.3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5, June 9, 2011.

표 9 주요국별 옥수수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9/10	2010/11	2011/12(전망)		변동율(%)	
		(추정)	2011.5	2011.6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960.22	964.07	989.92	983.62	2.0	-0.6
기초재고량	147.24	143.45	122.19	117.44	-18.1	-3.9
생산량	812.98	820.62	867.73	866.18	5.6	-0.2
미국	332.55	316.17	343.04	335.30	6.1	-2.3
아르헨티나	22.80	22.00	26.00	26.00	18.2	0.0
EU27	57.28	55.47	59.29	59.29	6.9	0.0
멕시코	20.37	21.50	24.50	24.50	14.0	0.0
동남아시아	21.93	23.12	24.95	24.95	7.9	0.0
중국	158.00	173.00	172.00	178.00	2.9	3.5
수입량	90.23	91.04	89.26	90.26	-0.9	1.1
이집트	5.83	5.40	5.60	5.60	3.7	0.0
EU27	2.93	7.00	4.00	5.00	-28.6	25.0
일본	15.98	16.10	16.10	16.10	0.0	0.0
멕시코	8.30	8.00	9.20	9.20	15.0	0.0
동남아시아	6.55	7.25	7.15	7.15	-1.4	0.0
한국	8.46	8.00	7.70	7.70	-3.8	0.0
소비량	816.77	846.63	860.78	871.74	3.0	1.3
미국	281.42	293.38	293.51	290.97	-0.8	-0.9
EU27	59.80	61.60	63.20	64.20	4.2	1.6
일본	16.30	16.20	16.10	16.10	-0.6	0.0
멕시코	30.20	29.30	32.10	32.10	9.6	0.0
동남아시아	28.40	30.40	31.60	31.60	3.9	0.0
한국	8.39	8.10	7.80	7.80	-3.7	0.0
중국	159.00	172.00	168.00	181.00	5.2	7.7
수출량	97.00	90.64	92.50	93.20	2.8	0.8
미국	50.46	48.26	45.72	45.72	-5.3	0.0
아르헨티나	16.49	14.50	18.00	18.00	24.1	0.0
중국	0.15	0.10	0.20	0.20	100.0	0.0
기말재고량	143.45	117.44	129.14	111.89	-4.7	-13.4
미국	43.38	18.53	22.85	17.65	-4.7	-22.8
아르헨티나	0.59	1.00	1.51	1.51	51.0	0.0
EU27	5.04	4.91	4.00	4.00	-18.5	0.0
중국	51.31	53.71	63.01	51.01	-5.0	-19.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5, June 9, 2011.

표 10 주요국별 대두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9/10	2010/11	2011/12(전망)		변동율(%)	
		(추정)	2011.5	2011.6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303.52	322.80	327.10	327.32	1.4	0.1
기초재고량	42.68	59.31	63.81	64.53	8.8	1.1
생산량	260.84	263.49	263.29	262.79	-0.3	-0.2
미국	91.42	90.61	89.40	89.40	-1.3	0.0
아르헨티나	54.50	49.50	53.00	53.00	7.1	0.0
브라질	69.00	74.50	72.50	72.50	-2.7	0.0
중국	14.98	15.20	14.80	14.30	-5.9	-3.4
수입량	86.80	92.03	96.24	96.24	4.6	0.0
중국	50.34	54.00	58.00	58.00	7.4	0.0
EU27	12.30	14.00	13.30	13.30	-5.0	0.0
일본	3.40	3.35	3.40	3.40	1.5	0.0
소비량	238.36	255.78	262.69	263.21	2.9	0.2
미국	50.62	48.31	48.17	48.17	-0.3	0.0
아르헨티나	35.72	40.63	41.35	41.65	2.5	0.7
브라질	36.80	39.10	40.10	40.50	3.6	1.0
중국	59.43	67.05	72.50	72.50	8.1	0.0
EU27	13.38	14.80	14.40	14.40	-2.7	0.0
일본	3.58	3.57	3.60	3.60	0.8	0.0
멕시코	3.62	3.81	3.84	3.84	0.8	0.0
수출량	92.65	94.52	98.79	98.75	4.5	0.0
미국	40.85	41.91	41.91	41.37	-1.3	-1.3
아르헨티나	13.09	9.00	11.80	11.80	31.1	0.0
브라질	28.58	31.85	33.50	34.00	6.8	1.5
기말재고량	59.31	64.53	61.85	61.59	-4.6	-0.4
미국	4.11	4.90	4.36	5.18	5.7	18.8
아르헨티나	22.28	22.15	22.15	21.70	-2.0	-2.0
브라질	15.84	19.42	17.13	17.47	-10.0	2.0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5, June 9, 2011.

표 11 주요국별 대두박 수급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톤

구 분	2009/10	2010/11	2011/12(전망)		변동율(%)	
		(추정)	2011.5	2011.6	전년대비	전월대비
공급량	169.75	184.26	189.69	190.43	3.3	0.4
기초재고량	4.48	6.10	6.50	6.77	11.0	4.2
생산량	165.27	178.16	183.19	183.66	3.1	0.3
미국	37.83	36.00	35.64	35.64	-1.0	0.0
아르헨티나	26.62	30.44	30.97	31.21	2.5	0.8
브라질	26.12	27.75	28.52	28.75	3.6	0.8
인도	5.99	7.50	7.03	7.03	-6.3	0.0
중국	38.64	44.43	48.71	48.71	9.6	0.0
수입량	53.14	57.97	58.90	59.14	2.0	0.4
EU27	20.73	22.90	23.00	23.30	1.7	1.3
중국	0.08	0.35	0.35	0.35	0.0	0.0
소비량	161.07	174.59	181.43	181.78	4.1	0.2
미국	27.78	27.76	27.94	27.94	0.6	0.0
아르헨티나	0.69	0.71	0.74	0.74	4.2	0.0
브라질	12.84	13.45	13.90	13.95	3.7	0.4
인도	2.75	3.01	3.23	3.23	7.3	0.0
EU27	30.14	32.91	33.06	33.36	1.4	0.9
중국	37.55	43.98	48.26	48.26	9.7	0.0
수출량	55.72	60.88	60.61	61.07	0.3	0.8
미국	10.14	8.39	7.85	7.85	-6.4	0.0
아르헨티나	24.91	29.64	30.11	30.22	2.0	0.4
브라질	12.99	14.10	14.59	14.85	5.3	1.8
인도	3.15	4.50	3.81	3.90	-13.3	2.4
기말재고량	6.10	6.77	6.55	6.71	-0.9	2.4
미국	0.27	0.27	0.27	0.27	0.0	0.0
아르헨티나	1.87	1.96	2.09	2.21	12.8	5.7
브라질	2.23	2.50	2.43	2.50	0.0	2.9

자료: USDA,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WASDE-495, June 9, 2011.

표 12 전체 곡물의 수급추이

단위: 만 톤, %

연도	생산량	공급량(1)	소비량(2)	교역량	재고량	재고율
1980/81	142,934	175,707	144,922	21,199	30,785	21.2
1981/82	149,058	179,844	146,431	21,412	33,413	22.8
1982/83	154,126	187,539	148,415	20,034	39,124	26.4
1983/84	150,914	190,038	155,043	21,178	34,996	22.6
1984/85	167,066	202,062	159,189	21,815	42,873	26.9
1985/86	168,284	211,157	159,257	17,912	51,900	32.6
1986/87	170,389	222,289	164,934	19,140	57,356	34.8
1987/88	164,201	221,556	168,651	21,801	52,906	31.4
1988/89	159,008	211,913	166,754	22,709	45,159	27.1
1989/90	170,815	215,974	171,819	22,658	44,155	25.7
1990/91	181,009	225,164	175,502	21,722	49,663	28.3
1991/92	172,385	222,048	173,174	22,671	48,874	28.2
1992/93	179,640	228,514	176,166	22,649	52,348	29.7
1993/94	171,972	224,320	175,768	21,374	48,552	27.6
1994/95	176,110	224,662	176,845	21,638	47,817	27.0
1995/96	171,225	219,042	175,315	21,714	43,727	24.9
1996/97	187,254	230,981	182,311	21,951	48,670	26.7
1997/98	187,817	236,487	182,396	21,724	54,092	29.7
1998/99	187,555	241,647	183,590	22,072	58,057	31.6
1999/00	187,217	245,274	186,542	24,419	58,732	31.5
2000/01	184,276	243,008	186,326	23,355	56,682	30.4
2001/02	187,411	244,094	190,226	23,951	53,868	28.3
2002/03	182,085	235,953	191,293	24,136	44,660	23.3
2003/04	186,219	230,879	194,990	24,043	35,890	18.4
2004/05	204,447	240,275	199,470	24,112	40,814	20.5
2005/06	201,720	242,170	203,159	25,347	39,011	19.2
2006/07	200,081	239,015	204,819	26,029	34,196	16.7
2007/08	212,299	246,653	210,137	27,559	36,516	17.4
2008/09	224,050	261,162	215,785	28,562	45,377	21.0
2009/10	223,395	268,564	219,864	29,006	48,700	22.2
2010/11(E)	218,767	267,467	223,759	27,251	43,709	19.5
2011/12(P)	226,459	270,167	227,725	27,421	42,442	18.6

주: E(추정치), P(전망치), (1) 공급량=전년도 재고량+생산량, (2)소비량=공급량-재고량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http://www.fas.usda.gov/psd>)

참고자료

<http://www.usda.gov/oce/commodity/wasde/latest.pdf>

미국 축산물의 수급동향 및 전망 (2011. 6)*

남 경 수

2011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25억 9천만 파운드로 예상되며, 쇠고기 수입은 21억 8천만 파운드로 전망된다. 2012년에도 일본과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3년과 2010년의 수출량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유제품 수출량은 81억 파운드로 전년대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돼지고기 수출량은 2010년보다 15.3% 증가한 48억 7천 2백만 파운드로 전망되고, 이는 미국 돼지고기 생산량의 21.5%에 달하는 수준이다.

4월 닭고기 수출량은 전년대비 7.6% 감소하였고,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의 경우는 전년대비 21% 증가하였다.

1. 쇠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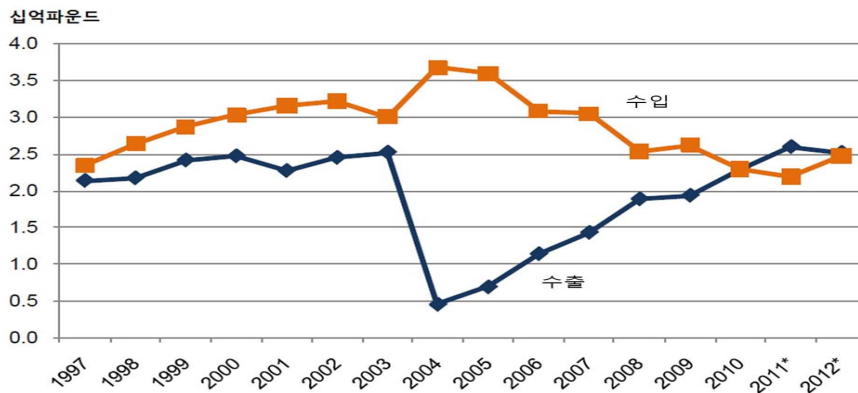
2011년 쇠고기 수출량은 25억 9천만 파운드로 대규모 수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25억 9천만 파운드로 이는 미국에서 BSE가 발생했던 2003년(25억 2천만 파운드) 수준을 초과하였으며, 대규모 수출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BSE 발생 이전 수준의 시장 점유율을 회복하지는 못하였으나, 대만, 베트남, 홍콩 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쇠고기 수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였다. 2010년에는 이집트, 러시아 등으로의 쇠고기 수출이 크게

* 본 내용은 미국농무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의 「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2011년 6월호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경수 연구원이 작성하였다(ksnam@krei.re.kr, 02-3299-4162).

증가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 또한 2003년 수준에 육박하였다. 2012년에도 일본과 한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03년과 2010년 수출량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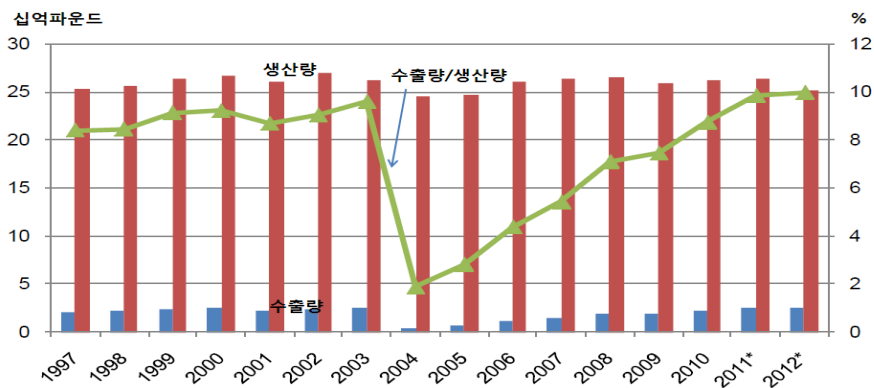
그림 1 미국의 쇠고기 수출입 추이



자료: USDA, ERS.

2011년 쇠고기 수출량이 미국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미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63억 파운드로 추정된다.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이 국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9%로 예상된다. 2012년 미국의 쇠고기 수출량은 25억 2천만 파운드로 전망된다. 2012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05년 이래 최저치인 250억 파운드로 쇠고기 수출량이 국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쇠고기 수출량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USDA, 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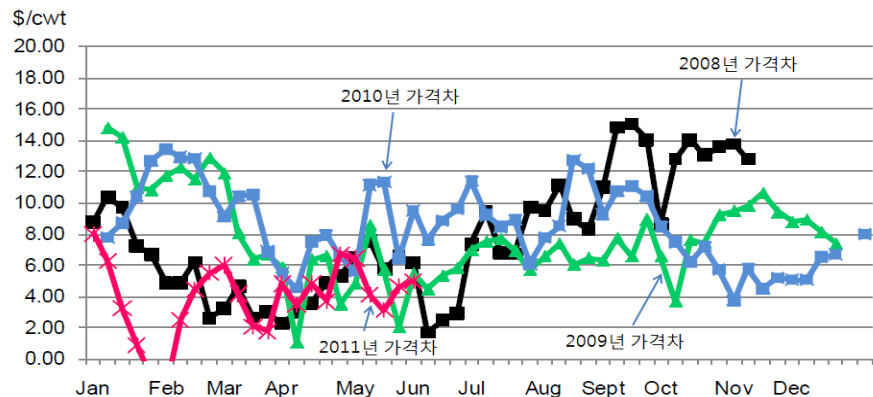
2011년 쇠고기 수입량은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수입감소로 2010년보다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부터 수입이 감소하여 2011년 미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010년보다 5% 감소한 21억 8천만 파운드로 예상된다. 2011년 2분기 쇠고기 수입량은 2010년 동기보다 17% 감소하였다. 이러한 수입량 감소는 미 달러화 약세에 기인한다. 지난 2010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된 미 달러화 약세는 지난달(2011년 5월)에는 0.91호주달러/USD, 1.22뉴질랜드달러/USD까지 이르렀다. 2011년 4월까지 호주와 뉴질랜드로부터의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보다 각각 24%, 7% 감소하였다. 오세아니아 국가로부터의 선적량이 증가하여 2012년 미국의 쇠고기 수입량은 24억 8천 만 파운드로 2011년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멕시코의 가뭄으로 미국 생우 수출 가격은 급상승하였다. 만약, 6, 7월 우기(雨季) 시점에 강수량이 부족할 경우 소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4월까지 멕시코로부터의 생우 수입은 2010년보다 28% 증가하였다. 기후 여건에 따라 올해 4분기 멕시코 생우 수출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4월 캐나다로부터의 생우 수입은 전년보다 38% 감소하였으며, 6월 첫째주에는 전년보다 40% 감소하였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거세우 가격 격차가 많이 좁혀졌기 때문이다.

그림 3 미국과 캐나다 거세우 가격차



자료: USDA, AMS.

2. 낙농

2011/12년 높은 사료 가격은 축산부문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특히 낙농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011/12년 높은 사료 가격은 축산부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낙농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2010/11년 평균 옥수수 가격은 부셸당 \$5.20~5.50, 2011/2012년 가격은 부셸당 \$6.00~7.00로 전망된다.

기상여건의 악화는 미국 주요 생산지역 경작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궁극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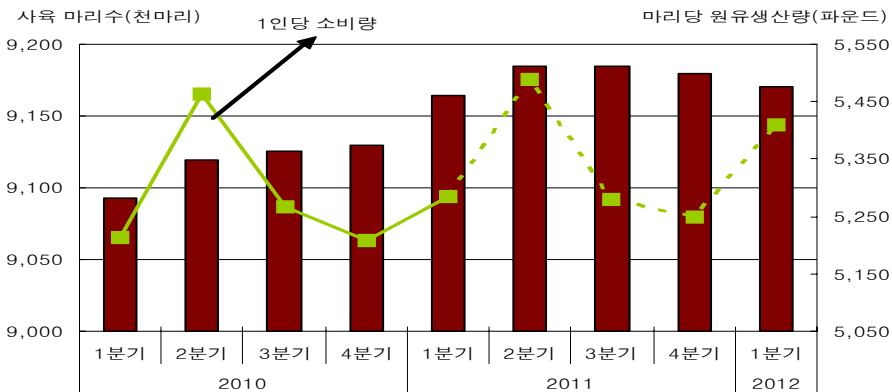
으로 초기의 재배의향 면적도 감소시켰다. 2010/11년 대두 가격은 톤당 \$350, 2011/2012년 가격은 톤당 \$375~405로 전망되었다. 이는 많은 지역에서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건조 공급감소에 대한 우려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다른 사료가격들도 올해 건조가격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올해와 내년 사료가격 전망은 낙농 사육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젖소 사육 마리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 증가율 0.7% 상승한 918만 마리보다는 적을 것이다. 2012년 사육규모는 높은 사료가격의 영향으로 소폭 하향 조정된 916만 마리로 전망된다.

2011년 마리당 1일 원유 생산량은 21,305 파운드로 증가가 예상된다. 내년 마리당 1일 원유 생산량은 21,685파운드로 2011년과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예측하였다. 높은 사료 가격은 생산성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영향으로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무리로의 교체가 궁극적으로 마리당 원유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올해 원유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사육 규모가 축소됨에도 불구하고 1,955억 파운드로 전망되며, 2012년에는 마리당 원유 생산량 증가와 착유일수 증가가 예상되어 1,985파운드로 전망된다.

2012년 사육규모는 높은 사료가격의 영향으로 소폭 하향 조정된 916만 마리로 전망된다.

그림 4 젖소 사육 마리수 및 마리당 원유 생산량



자료: USDA, AMS.

2011년 유제품(원유환산) 수입량은 34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이 전망치는 치즈와 유단백의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난달보다 약간 상향 조정되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장기 하향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전지성분(원유환산) 수입량은 2010년 총량을 초과한 50억 파운드로 예상된다. 2012년 유제품 수입량은 32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이 전망치는 지난달보다 상향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2011년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전지성분 수입량은 45억 파운드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유제품 수입량은 34억 파운드로 지난달보다 상향조정되었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장기 하향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2011년 유제품 수출량은 81억 파운드로 예상되지만 2010년보다는 감소한 수치이다.

2011년 유제품 수출량은 지난달 전망치보다 증가한 총 81억 파운드로 예상되지만 2010년보다는 감소한 수치이다. 전지성분 수출량은 지난달 전망치보다 증가한 320억 파운드로 예상되며, 2010년의 수출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수출량은 87억 파운드 증가한 323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달러약세와 국제 유제품 수요 강세지속이 이 전망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가격은 국제 가격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에 유리한 상황이다.

국내 수요는 지속적인 경기회복으로 2011년과 2012년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국내 수요는 유지방 기준 1,896억 파운드, 2012년 1,919파운드로 판단되며, 전지성분 기준으로 2011년 1,678억 파운드, 1,700억 파운드로 전망된다.

유제품의 전망가격은 5월부터 상승하였다. 치즈 가격은 국내수요와 수출수요의 지속적인 강세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파운드 당 평균 1.755~1.795달러로 전망되며, 2012년에는 1.660~1.760달러로 전망된다. 2011년 버터 가격은 파운드 당 평균 1.915~1.985달러, 2012년 1.610~1.740달러로 전망된다. 2011년 탈지분유의 가격은 파운드 당 평균 1.505~1.545달러로, 2012년 1.375~1.445달러로 예측된다. 탈지분유 수출 호조가 높은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2011년 유장가격은 파운드 당 평균 46.5~48.5센트, 2012년에는 41.0~44.0센트로 예상된다.

유제품 가격의 강세가 2011년과 2012년의 우유의 가격 지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1년 Class IV 우유 가격은 2011년, 2012년 각각 cwt당 평균 18.95~19.45달러, 16.50~17.60달러로 전망되며, Class IV 우유 가격은 17.40~17.80달러, 16.00~17.00달러로 전망된다. 2011년 모든 우유 가격은 cwt당 평균 19.65~20.05달러, 2012년 17.75~18.75달러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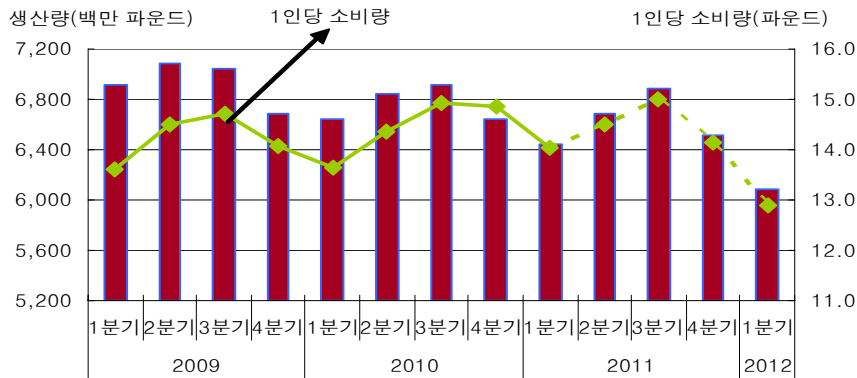
3. 돼지고기

사료가격 상승으로 생산자들은 사육기간을 최소화하여 지난 5월 이후 돼지 평균출하 체중은 감소하였다.

2011~2012년 수확기 곡물 생산량 감소가 사료 공급량 부족으로 이어져, 사료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돈 생산자들은 콩과 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이윤이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료가격이 상승하면서 생산자들은 사육기간의 최소화로 지난 5월 이후 돼지 평균출하 체중이 감소하였다.

출하체중의 감소로 2011~2012년 돼지고기 생산량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돼지고기 생산량 추정결과 2011년은 5월 전망치보다 1천만 파운드 감소한 226억 1천 5백만 파운드로 추정되고, 2012년은 4천만 파운드 감소한 229억 1천만 파운드로 추정된다.

그림 5 돼지고기 생산량 및 1인당 소비량



자료: USDA, AMS.

4월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월대비 19.5% 증가한 4억 2천 1백만 파운드이며, 2분기 돼지고기 수출량은 전년 동기간보다 17% 증가한 12억 7천만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011년 돼지고기 수출량은 5월 전망치보다 증가하였다. 2011년 돼지고기 수출량은 2010년보다 15.3% 증가한 48억 7천 2백만 파운드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 돼지고기 생산량의 21.5%에 달하는 수준이다.

수출량 증가의 이유는 지속적이 달러 약세와 한국에서 발생한 구제역 여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아시아의 공급량 때문이다. 지금까지 미국산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5개국으로는 일본, 멕시코, 한국, 캐나다, 중국이다. 그리고 해마다 4월 돼지고기 수출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한국, 중국, 러시아로의 판매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4월 미국의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월대비 5.8% 증가한 6천 8백만 파운드였고, 2분기 수입량은 2억 2천만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로부터의 수입량은 증가한 반면, 폴란드와 멕시코로부터의 수입량은 감소하였다. 2010년 미국 돼지고기 수입량의 78.7%를 차지했던 캐나다산 돼지고기가 4월 76.5%를 차지하였다.

2011년 돼지고기 수출량은 2010년보다 1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닭고기

4월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보다 2.3% 감소한 29억 7천만 파운드였다. 이러한 생산량의 감소는 2011년 4월의 도계일수가 전년보다 하루 적었기 때문이다. 4월 도계 마리수는 전년대비 4% 감소한 6억 8천 6백만 마리였다. 도계 마리수의 감소는 출하체중의 증가로 다소 상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평균 출하체중은 전년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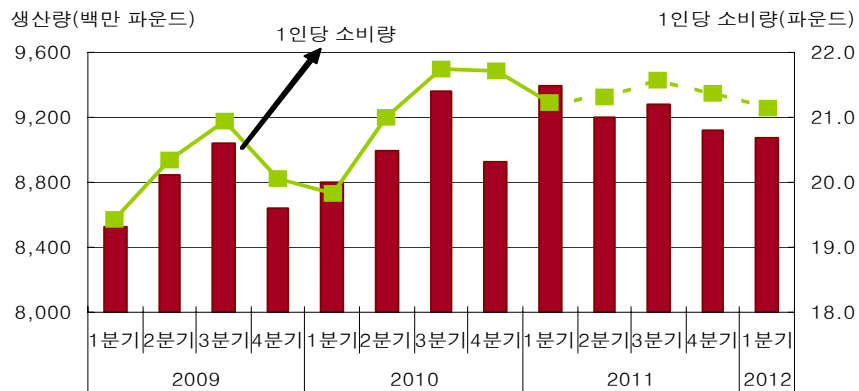
4월 닭고기 생산량은 도계일수 감소로 전년보다 2.3% 감소하였다.

1.4% 증가한 5.76파운드로, 평균 도체중은 전년보다 1.8% 증가한 4.33파운드였다.

미국경제의 지속적인 불황과 함께 옥수수과 콩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2011년 4분기와 2012년 닭고기 생산은 5월 추정치보다 감소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1년 4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2011년 4분기는 기존 추정치보다 2천 5백만 파운드가 감소한 94억 파운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되고, 2012년 1분기 또한 2천 5백만 파운드가 감소한 93억 6천만 파운드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12년 닭고기 생산량은 1억 파운드 감소한 380억 파운드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아리 입식 마리수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5월 7일부터 6월 4일까지 5주간 일주일 평균 입식 마리수는 1억 7천 3백만 마리로 2010년 동기간보다 0.6% 증가하였다. 지난 5주간 입란 개수는 전년보다 1.8% 감소하였다. 이러한 입란 개수의 감소는 2011년 3분기 닭고기 생산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1년 3분기 닭고기 생산량은 전년대비 1% 감소한 94억 3천만 파운드로 전망된다.

그림 6 닭고기 생산량 및 1인당 소비량



자료: USDA, AMS.

4월말 닭고기 비축물량은 7억 7백만 파운드로 전년보다 16% 높은 수준이며, 전월보다 4천 6백만 파운드(7%) 증가하였다. 2011년 1분기 비축물량은 기존의 6억 6천 1백만 파운드에서 1백만 파운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생산량 증가와 국내 경기불황으로 비축물량이 증가하여 이후 닭고기 생산량 증가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닭고기 생산량의 증가로 2011년 2분기와 3분기 비축물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분기 비축물량은 4천 5백만 파운드 증가한 6억 7천 5백만 파운드로 추정되고, 3분기 비축물량은 5백만 파운드 증가한 6억 5천만 파운드로 전망된다.

지난 몇 달간 닭고기 부분육간의 가격이 다른 형태를 보였다. 북동지역의 닭가슴살(정육 기준)의 경우 2010년 5월에 비해 21% 하락한 1.13달러/파운드였다. 그러나 닭다리 가격은 상승하였다. 5월 닭다리 가격은 49.6센트/파운드로 전년대비 30% 상승하였다. 넓적다리(정육 기준) 가격 또한 전년보다 43% 상승한 1.35달러/파운드로 나타났다. 5월 넓적다리 가격이 닭가슴살 가격보다 3.7센트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0년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2010년 닭가슴살 가격은 1.65달러로 넓적다리(0.94달러)보다 71센트 높았다.

2011년 2분기인 4월 닭고기 수출량이 소폭 감소하였다. 4월 닭고기 수출량은 2010년 4월보다 7.6% 감소한 4억 9천 7백만 파운드였다. 수출량 감소는 전년대비 30% 상승한 닭다리 가격상승에 기인한다.

지난 몇 달간 닭고기 부분육간의 가격은 2010년과 비교했을 때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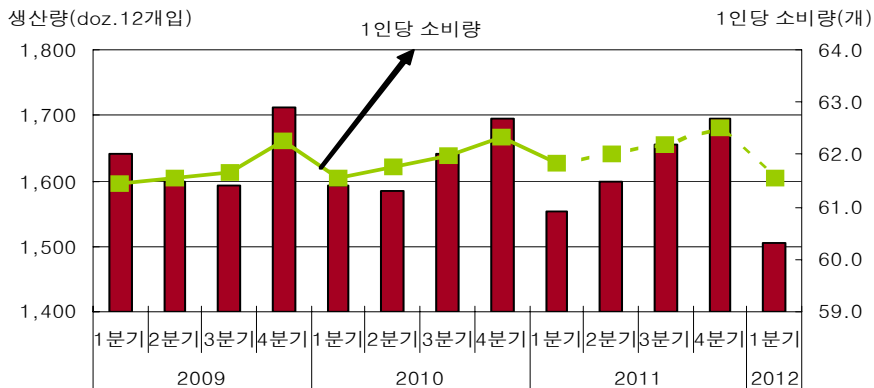
5. 계란

2011년 1~4월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동기간보다 증가하였다. 4월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산란용 닭 마리수의 증가로 283백만 마리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그 결과로 4월 계란생산량은 5억 4천 6백만 판(12개입)으로 전년보다 1% 증가하였다.

2011년 하반기 생산량 추정치는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2012년 계란과 종란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계란 총 생산량은 기존 전망치보다 2천만 판이 감소한 65.4억만 판(12개입)으로, 종란 총 생산량은 8백만 판이 감소한 10억만 판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계란시장의 변화는 주로 사료곡물 가격의 상승과 관련되어 있으며, 종란 생산량은 닭고기 생산의 감소예상에 의한 것이다.

2011년 하반기 생산량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2012년 계란과 종란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7 계란 생산량 및 1인당 소비량



자료: USDA, AMS.

지속적인 달러 약세로 인해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의 수출을 견인하여 4월 수출량은 전년보다 21% 증가하였다.

4월~ 6월 초까지 계란 도매가격은 부활절 계란 수요증가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였다. 올해 계절적인 가격하락폭은 전년보다 크지 않았다. 부활절 이후의 뉴욕시장의 계란가격은 판당 1.20달러로, 5월 주간 계란가격은 월평균 판당 0.99달러로 전년에 비해 20센트 이상 상승하였다. 6월 초 주간가격은 판당 0.98달러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2011년 하반기 계란가격은 1.04~1.05달러로 예상된다. 계란 도매가격은 3분기에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4분기는 계란가격이 계절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기간으로 1.08~1.16달러로 전망된다.

지속적인 달러 약세가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4월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의 수출은 2천 4백 7십만 판으로 전년보다 21% 증가하였다. 2011년 1~4월 총 계란 수출은 2010년 동기간보다 18% 증가한 9천 1백 8십만 판이었다. 선적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수출국가도 확대되었다. 특히 홍콩과 일본으로의 계란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1년 1~4월 일본 수출 선적량(33% 증가)의 증가는 일본을 미국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의 가장 큰 수출시장으로 만들었다. 홍콩은 전통적인 미국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의 주요 수출시장이고, 2011년까지 선적량 증가의 일부(48% 증가)는 중국으로의 직접 수출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11년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의 총 수출량은 1분기에 6천 7백만 판이었으며, 2분기에 6천 5백만 판으로 전망된다. 2011년 1~4월 계란 및 계란 가공품의 수출량은 18%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http://www.ers.usda.gov/Publications/Livestock, Dairy, & Poultry Outlook/>

표 1 U.S. 육류 및 가금류 전망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연간	I	II	III	IV	연간	I	연간
생산량, 백만 파운드								
-쇠고기	26,316	6,411	6,600	6,795	6,460	26,266	5,950	25,005
-돼지고기	22,436	5,720	5,360	5,530	6,005	22,615	5,720	22,910
-양고기	164	36	40	37	39	152	40	154
-닭고기	36,911	9,288	9,325	9,425	9,350	37,391	9,260	38,040
-칠면조고기	5,643	1,402	1,430	1,440	1,455	5,727	1,400	5,775
-전체 육류	92,108	23,011	22,907	23,385	23,472	92,778	22,527	92,525
-계란, 백만더즌/12개	6,550	1,627	1,640	1,655	1,680	6,602	1,605	6,540
1인당 소비량, 파운드								
-쇠고기	59.6	14.1	14.7	15.2	14.3	58.3	13.2	55.6
-돼지고기	47.7	11.6	11.1	11.5	12.3	46.3	11.5	11.3
-양고기	0.9	0.2	0.2	0.2	0.2	0.9	0.2	0.9
-닭고기	82.2	21.6	21.0	21.2	20.8	84.5	20.7	84.3
-칠면조고기	16.4	3.5	3.6	4.0	5.0	16.1	3.6	16.2
-전체 육류	208.6	51.5	51.0	52.5	53.0	207.7	49.6	205.7
-계란, 개수(백만더즌)	247.4	61.3	61.5	62.2	62.7	247.4	60.3	244.3
시장가격								
-초이스급 거세우(Neb,\$/cwt)	95.38	110.07	112-113	110-116	109-119	110-114	110-120	111-120
-비육밀소 (Ok City,\$/cwt)	108.71	127.20	126-128	118-126	119-129	122-127	118-128	122-130
-유틸리티급 정육 (S. Falls,\$/cwt)	56.1	68.66	72-73	68-72	68-72	70-73	71-75	71-76
-초이스급 양고기 (San Angelo,\$/cwt)	124.67	174.66	146-147	137-143	142-148	150-154	135-145	134-140
-돼지고기 (N. base, i.e. \$/cwt)	55.06	59.94	67-68	65-69	57-61	62-65	60-64	61-66
-닭고기 (12도시, cents/lb)	82.9	77.9	83-84	83-87	83-89	82-85	81-87	83-89
-칠면조고기 (동부, cents/lb)	90.4	90.2	98-99	99-105	102-110	97-101	86-94	92-100
-계란 (뉴욕, cents/doz)	106.3	105.8	104-105	97-101	108-116	103-107	103-111	100-108
교역량, 백만 파운드								
-쇠고기 수출량	2,299	625	670	680	610	2,593	630	2,515
-쇠고기 수입량	2,297	460	570	595	555	2,181	600	2,475
-양고기 수입량	161	48	44	33	43	170	47	178
-돼지고기 수출량	4,227	1,150	1,265	1,135	1,225	4,872	1,180	4,775
-돼지고기 수입량	880	200	220	235	240	896	200	895
-닭고기 수출량	6,773	1,500	1,600	1,650	1,700	6,480	1,600	6,700
-칠면조 고기 수출량	583	150	160	155	160	635	150	620
-모든 수입두수(천두)	5,783	1,450	1,420	1,500	1,470	5,842	1,460	5,890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 2 낙농업 전망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연간	I	II	III	IV	연간	I	연간
젖소 (천두)	9,117	9,164	9,185	9,185	9,180	9,179	9,170	9,160
두당 산유량(파운드)	21,149	5,284	5,490	5,280	5,250	21,305	5,410	21,665
우유 생산량 (십억 파운드)	192.8	48.4	50.4	48.5	48.2	195.5	49.6	198.5
- 농가소모분	1.0	0.2	0.2	0.2	0.2	1.0	0.2	1.0
- 납유량	191.8	48.2	50.2	48.3	48.0	194.6	49.4	197.5
유지방(원유 환산, 십억 파운드)								
- 납유량	191.8	48.2	50.2	48.3	48.0	194.6	49.4	197.5
- 연초 재고량	11.3	10.9	12.1	13.2	12.7	10.9	11.2	11.2
- 수입량	4.1	0.8	0.8	0.9	1.0	3.4	0.8	3.2
- 총공급량	207.2	59.9	63.1	62.3	61.6	208.9	61.4	211.9
- 수출량	8.3	2.5	2.1	1.9	1.7	8.1	2.1	8.7
- 연말 재고량	10.9	12.1	13.2	12.7	11.2	11.2	12.7	11.3
- 소모분	0.2	0.0	0.0	0.0	0.0	0.0	0.0	0.0
- 집유량	187.8	45.3	47.8	47.7	48.7	189.6	46.6	191.9
탈지성분(원유환산, 십억 파운드)								
- 납유량	191.8	48.2	50.2	48.3	48.0	194.6	49.4	197.5
- 연초 재고량	11.3	12.3	11.9	12.2	11.8	12.3	11.9	11.9
- 수입량	4.8	1.3	1.2	1.1	1.4	5.0	1.3	4.5
- 총공급량	208.0	61.7	63.2	61.6	61.1	211.8	62.6	213.9
- 수출량	32.1	8.2	8.2	8.0	7.7	32.1	8.1	32.3
- 연말 재고량	12.3	11.9	12.2	11.8	11.9	11.9	11.9	11.7
- 소모분	0.0	0.0	0.0	0.0	0.0	0.0	0.0	0.0
- 집유량	164.0	41.6	42.8	41.8	41.6	167.8	42.6	170.0
우유가격(달러/100 파운드) 1)								
- 우유	16.29	18.73	19.80	20.50	19.55	19.65	17.95	17.75
- III 등급	14.41	16.63	-20.00	-21.00	-20.35	-20.05	-18.95	-18.75
- IV 등급	15.09	18.08	17.20	18.25	17.50	17.40	15.85	16.00
			-17.40	-18.75	-18.30	-17.80	-16.85	-17.00
			20.15	19.75	17.90	18.95	16.70	16.50
			-20.45	-20.35	-18.80	-19.45	-17.80	-17.60
유제품 가격(달러/파운드) 2)								
- 체다 치즈	1.523	1.708	1.725	1.830	1.775	1.755	1.635	1.660
			-1.745	-1.880	-1.855	-1.795	-1.735	-1.760
- 유장 분말	0.372	0.425	0.485	0.485	0.475	0.465	0.425	0.410
			-0.505	-0.515	-0.505	-0.485	-0.455	-0.440
- 버터	1.702	1.990	2.040	1.970	1.680	1.915	1.575	1.610
			-2.080	-2.050	-1.790	-1.985	-1.705	-1.740
- 탈지분유	1.169	1.373	1.590	1.575	1.505	1.505	1.415	1.375
			-1.610	-1.615	-1.565	-1.545	-1.485	-1.445

주: 1) 매월 가격을 단순 평균한 가격으로써 연평균과 다를 수 있음.

2) AMS에서 각 등급별 가격을 취합한 뒤 합산한 값임.

자료: World Agricultural Supply and Demand Estimates and Supporting Material.

표 3 생산 지표

구 분	단위	2010년	2011년		
		5월	3월	4월	5월/**
비육우					
사육두수/*	1,000 두	10,428	11,399	11,271	11,200
입식두수	1,000 두	1,932	1,862	1,736	1,730
출하두수	1,000 두	1,865	1,990	1,807	2,002
육계					
입란물량 /1	1,000 개	643,089	642,437	649,752	649,093
병아리 생산수수 /2	1,000 수	797,833	793,957	779,859	806,574
종계수수 /1	1,000 수	56,161	54,333	54,451	55,309
6개월 미만 종계수수	1,000 수	8,012	6,733	6,904	7,721
종계 도태수수 /2	1,000 수	5,760	6,424	5,785	6,157
칠면조					
입란물량 /1	1,000 개	28,740	28,359	27,720	27,754
새끼칠면조 생산수수	1,000 수	24,078	23,720	23,378	23,693
계란					
생산량 /2	백만 더즌(12개)	550.6	562.8	546.3	556.1
산란용 마리수 /1	1,000 수	280,479	281,669	284,492	281,236
산란율 /1	%	75.7	76.5	77.2	77.0
실용계 병아리 생산수수 /2	1,000 수	43,075	43,974	43,429	43,305
노계 도태수수 /2	1,000 수	5,783	6,537	5,991	6,424

주: 1) /* 조사대상은 1,000두 이상 사육농가임.

3) /1 월초 기준임.

2) /** 추정치임.

4) /2 월말 추정량임.

표 4 소득 추정표 - 비육우

단위: 센트/파운드

구 분	2010년	2011년		
	6월	4월	5월	6월/**
대평원주 비육장 기준				
손익분기점 /*	86.38	109.40	119.08	124.84
판매가격	92.49	119.58	109.79	109.00
순이익	6.11	10.18	-9.29	-15.84

주: 1) /* Does not include capital replacement cost.

2) /** 추정치임.

표 5 소득 추정표 - 가금류

단위: 1998~2000=100

구 분	2010년	2011년		
	6월	4월	5월	6월/*
육계(지수)				
사료비	141.3	206.1	205.5	215.4
시장가격	133.1	127.3	127.4	127.1
이윤(가격-비용)	130.2	99.4	99.8	95.9
칠면조(지수)				
사료비	149.2	220.6	229.7	228.6
시장가격	141.9	146.5	151.1	156.0
이윤(가격-비용)	138.6	112.7	115.4	123.0
계란(지수)				
사료비	152.7	240.9	256.8	251.4
시장가격	98.6	152.8	126.6	122.7
이윤(가격-비용)	70.4	106.7	58.6	55.5

주: /* 추정치임.

표 6 육류 통계

구 분	2010년 1-5월	2011년 1-5월	201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육류 생산량(백만파운드)							
- 쇠고기	10,330.5	10,455.3	2,093.1	1,994.1	2,236.7	2,026.1	2,105.3
- 송아지고기	54.3	52.5	10.5	10.2	11.8	10.	10.
- 돼지고기	9,012.5	9,206.6	1,884.2	1,756.2	2,040.2	1,778.6	1,747.4
- 양고기	65.2	60.8	10.7	10.5	13.6	13.7	12.3
적색육 전체	19,462.4	19,775.2	3,998.5	3,771.	4,302.3	3,828.4	3,875.
- 육계	14,791.	15,499.3	3,127.5	2,854.	3,309.9	2,973.4	3,234.5
- 기타 계육	196.9	204.3	39.8	37.4	44.1	40.3	42.9
- 칠면조육	2,233.4	2,353.7	463.	435.6	503.1	455.6	496.4
백색육 전체	17,268.1	18,107.6	3,640.7	3,336.2	3,867.7	3,479.	3,784.
전체 육류 생산량	36,730.5	37,882.8	7,639.2	7,107.2	8,170.	7,307.4	7,659.
도축두수(천두)							
소	13,567.7	13,635.3	2,687.2	2,580.1	2,913.	2,677.7	2,777.3
- 거세우	6,550.4	6,654.6	1,281.8	1,223.	1,409.7	1,309.	1,431.1
- 미경산우	4,075.3	4,113.1	808.5	818.	903.7	800.5	782.4
- 경산우	1,446.6	1,391.8	290.1	248.	277.2	280.9	295.6
- 젖소	1,155.4	1,238.8	263.9	249.	268.1	237.8	220.
- 비거세우	248.2	239.1	43.	42.	54.2	51.7	48.2
- 송아지	359.8	328.4	70.8	67.9	71.8	57.9	60.
돼지	44,280.4	44,300.4	9,036.1	8,439.9	9,794.6	8,559.4	8,470.4
- 비육돈	42,897.3	42,964.	8,772.2	8,194.	9,500.7	8,295.	8,202.1
- 모돈	1,214.8	1,200.7	238.2	220.	264.7	236.8	241.
양	932.2	837.1	150.5	145.5	183.5	191.8	165.8
육계	3,493,948.	3,565,229.	713,638.	659,576.	764,174.	686,642.	741,199.
칠면조	93,541.	97,606.	18,846.	17,978.	21,166.	19,061.	20,555.

구 분	2010년 1-5월	2011년 1-5월	2010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정육량 (파운드)							
소	1,270.2	1,274.6	1,301.	1,286.	1,276.	1,257.	1,253.
송아지	261.	278.6	262.	264.	283.	296.	288.
돼지	271.8	277.	278.	277.	278.	277.	275.
양	137.6	141.4	139.	141.	146.	138.	143.

구 분	2010년 1-6월	2011년 1-6월	201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재고 입고량 (백만파운드)								
쇠고기	2,377.91	2,708.99	444.96	461.73	459.83	445.53	443.15	453.78
돼지고기	2,922.15	3,257.61	475.83	538.75	574.24	574.4	549.28	545.11
닭고기	3,701.14	4,278.21	772.59	739.54	682.47	660.78	704.	718.83
칠면조고기	2,169.9	1,868.12	191.56	253.53	288.98	325.69	364.5	443.86
냉동달걀	138.52	164.16	25.36	26.79	28.14	27.29	27.68	28.91

표 7 생축 가격

구 분	2010년	2011년				
	6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소 (100파운드당 가격)						
- 초이스급 거세우 1,100 ~ 1,300 파운드급						
텍사스 팬핸들	92.49	109.22	115.58	119.58	109.79	109.00
네브라스카	92.25	109.50	116.81	119.80	111.42	111.00
- 암소(수풀스지역)						
유틸리티급 1,200 ~ 1,600파운드	NA	NA	NA	NA	NA	NA
유틸리티급 800 ~ 1,200파운드	NA	NA	NA	NA	NA	NA
- 비육밀소(오클라호마)						
거세우						
1) 500 ~ 550 파운드	129.50	138.62	159.85	153.12	147.72	139.00
2) 600 ~ 650 파운드	117.51	121.30	146.68	145.04	137.72	135.00
3) 750 ~ 800 파운드	111.64	128.36	128.69	131.46	129.78	132.00
미경산우						
1) 450 ~ 500 파운드	118.72	144.08	143.05	144.58	137.58	132.00
2) 700 ~ 750 파운드	104.56	128.36	121.65	124.94	122.64	123.00
돼지 (100파운드당 가격)						
- 비육돈						
살코기 51 ~ 52% 기준	58.23	61.62	62.63	68.10	68.41	69.00
- 모돈						
-아이오와 #1-2, 300 ~ 400파운드	55.35	51.62	55.58	56.52	55.25	54.50

주: /* 추정치임.

표 8 곡물 및 사료가격

구 분	2010년	2011년				
	6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곡물(\$/부셀)						
- 옥수수, #2 Yellow, Cen. Ill	N/A	N/A	N/A	N/A	N/A	N/A
- 밀, HRW Ord., K.C. (\$/부셀)	N/A	N/A	N/A	N/A	N/A	N/A
사료(\$/톤)						
- SBM, 48% Solvent, Decatur	N/A	N/A	N/A	N/A	N/A	N/A
- 알팔파, U.S. Avg.(\$/톤)	119.00	127.00	136.00	155.00	186.00	N/A
- 건초, U.S. Avg.(\$/톤)	99.10	93.90	97.30	103.00	112.00	N/A

주: /* 추정치임.

표 9 축산물 도매가격 현황

구 분	2010년	2011년				
	6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쇠고기 (\$/100파운드)						
- 쇠고기 절단 포장육						
초이스급 1-3, 600 ~ 900 lb	156.54	169.82	182.52	188.05	177.96	175.00
셀렉트급 1-3, 600 ~ 900 lb	148.42	168.96	180.88	183.29	172.56	171.00
- 뼈없는 냉장 쇠고기. 90%	N/A	197.11	197.32	203.20	198.45	193.00
- 수입 냉동 쇠고기. 90%	N/A	197.25	202.75	207.75	199.00	190.00
- 가족 및 내장	N/A	N/A	N/A	N/A	N/A	N/A
돼지고기 (\$/100파운드)						
- 지육	83.76	89.76	92.35	94.95	93.24	93.00
- 등심, 14-19 lb Bl 1/4" trim	114.17	119.98	123.08	131.20	138.84	133.00
- 삼겹살, 12-14 lb skin on trmd.	N/A	N/A	N/A	143.00	125.00	119.00
- 후지, 20-23 lb Bl trmd, TS1	78.45	78.14	85.00	76.98	79.65	78.00
- 잡육, 72% fresh	88.20	85.70	85.30	83.94	85.20	88.00
육계 (센트/파운드)						
- 12개 도시 평균	86.63	75.43	81.97	82.12	83.38	82.70
- 조지아 독(Georgia dock)	86.75	84.42	85.53	85.74	85.75	86.20
- 북동부						
· 뼈없는 가슴살	152.43	118.41	131.72	135.01	130.97	125.50
· 뼈있는 가슴살	108.20	82.31	92.15	98.73	99.10	97.30
· 다리(전체)	49.19	54.46	61.73	66.36	68.13	67.60
· 다리(1/4도체)	37.84	37.24	42.08	46.82	49.61	49.20
계란, A등급, lg, 12개 기준						
- 12개 대도시 평균	72.11	104.32	91.34	111.69	92.55	89.70
- 뉴욕	77.64	109.37	91.87	120.00	99.19	100.00

주: /* 추정치임.

표 10 육계 사료비용과 시장가격

구 분	디케이터 대두박	시카고 No.2 옥수수	사료비용	시장가격	시장가격과 사료비 차이
단위	달러/톤	달러/부셸	1998-2000=100	1998-2000=100	1998-2000=100
2010년 4월	291.21	3.30	142.5	132.4	128.8
2010년 5월	287.85	3.44	139.9	135.4	133.8
2010년 6월	305.78	3.26	141.3	133.1	130.2
2010년 7월	325.56	2.89	142.9	133.8	130.6
2010년 8월	331.76	3.71	143.1	137.1	134.9
2010년 9월	317.65	4.32	140.6	137.0	135.7
2010년 10월	321.92	5.21	155.0	126.4	116.3
2010년 11월	341.78	5.18	162.5	120.3	105.3
2010년 12월	351.93	5.50	177.7	117.3	96.0
2011년 1월	368.54	5.97	180.7	118.0	95.8
2011년 2월	358.59	6.56	187.7	116.4	91.2
2011년 3월	345.43	6.66	198.3	126.2	100.7
2011년 4월	335.87	7.37	206.1	127.3	99.4
2011년 5월	342.30	7.11	205.5	127.4	99.8

표 11 계란 사료비용과 시장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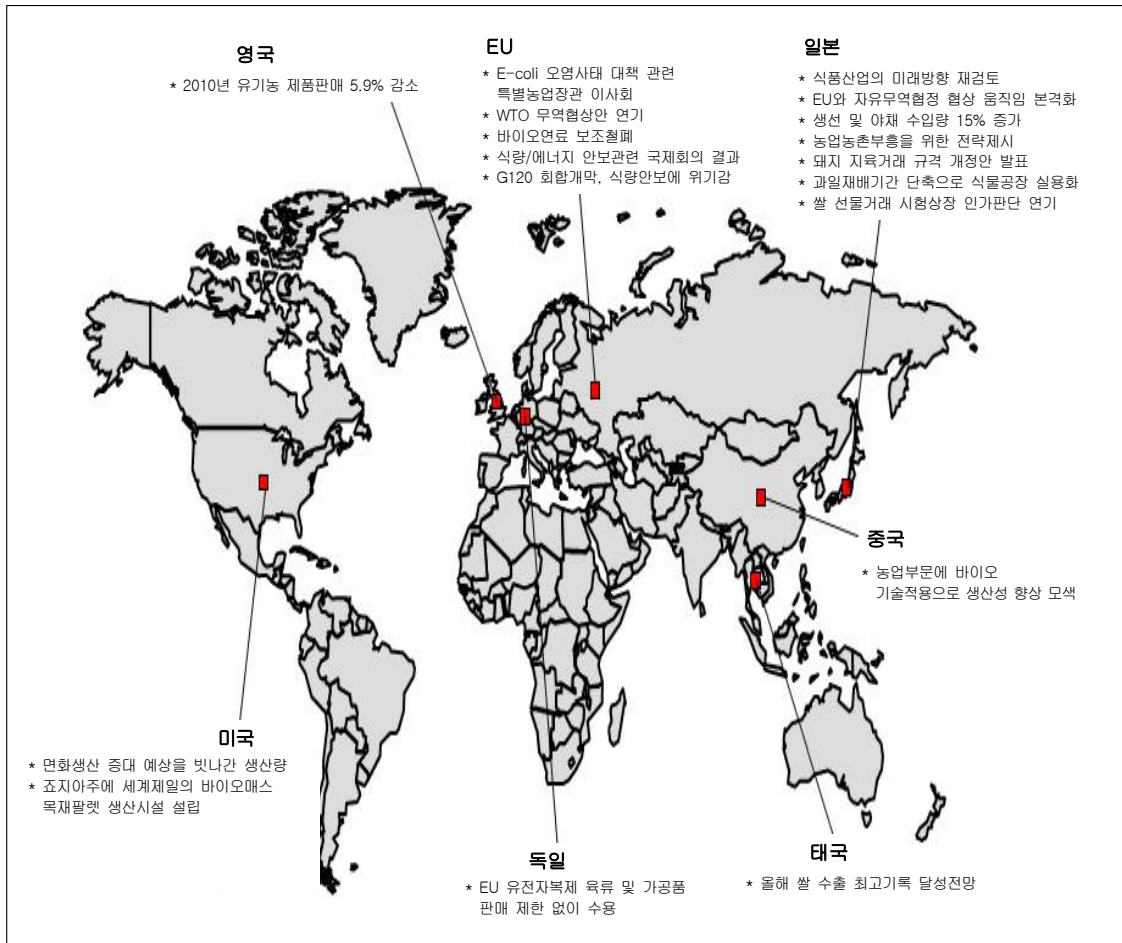
구 분	디케이터 대두박	시카고 No.2 옥수수	사료비용	시장가격	시장가격과 사료비 차이
단위	달러/톤	달러/부셸	1998-2000=100	1998-2000=100	1998-2000=100
2010년 4월	291.21	3.30	149.1	119.8	104.5
2010년 5월	287.85	3.44	149.8	92.2	62.2
2010년 6월	305.78	3.26	152.7	98.6	70.4
2010년 7월	325.56	2.89	151.1	107.0	83.9
2010년 8월	331.76	3.71	145.3	119.9	106.6
2010년 9월	317.65	4.32	166.4	124.2	102.2
2010년 10월	321.92	5.21	179.0	111.0	75.5
2010년 11월	341.78	5.18	201.5	176.0	162.6
2010년 12월	351.93	5.50	204.0	176.4	161.9
2011년 1월	368.54	6.25	213.5	142.7	105.7
2011년 2월	358.59	6.56	227.7	142.7	98.3
2011년 3월	345.43	6.66	240.6	124.9	64.5
2011년 4월	335.87	7.37	240.9	152.8	106.7
2011년 5월	342.30	7.11	256.8	126.6	58.6

• 세계 농업 브리핑

세계 농업 브리핑 (2011. 6)

주요 외신 동향 (2011. 6)

세계 농업 브리핑 (2011.06)*



1. 아시아/오세아니아

○ 일본, 식품산업의 미래방향 재검토

- 일본 농림수산성은 동일본대지진 발생으로 인해 2010년도 연말보고에서 연기된 ‘식품산업의 미래방향’에 대해 지진피해의 대응을 포함한 정책방안을 발표함. 이것은 원전사고의 영향을 고려하여 긴급시 식품공급망의

* 세계 농업 브리핑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교통상부, 주유럽연합대표부 등 국내외 유관기관의 정보를 소개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rei.re.kr>)의 「세계농업정보」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유지와 일본브랜드의 신뢰회복책을 포함한 일본정부의 신 성장전략의 재검토와 조기대책을 목표로 함.

- 농림수산성은 5.27일 식료·농업·농촌정책심의회 식품산업부회에 3월 시점 보고서와 지진피해로 인한 재검토의 방향성을 제출함. 보고서에는 각 식품업자가 업종과 규모, 경영자의 자세에 맞추어 (1)소비자 기점 (2)세계화 기점 (3)지역 기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전략을 정하도록 제기하고 있음. 이것은 세계화를 겨냥한 대기업이나 지역식자재를 사용하여 독창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늘리고, 산업의 활성화를 목표로 함.
- ‘식품산업의 미래방향’은 2020년도를 목표로 식품산업의 일본국내 생산액은 83억 엔 이상, 농림수산물 수입액 및 아시아에서 일본기업의 매출향상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한편, 향후 식품산업의 과제로서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공급망의 붕괴와 긴급상황시 재고유통 협정의 체결이나 포장자재의 표준화 등이 있음.

○ 일본, EU와 자유무역협정 협상 움직임 본격화

- 지난 5.28일 일본 총리인 간 나오토(菅直人)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의 상임의장인 반 롬푸이(Rompuy)와 바로수(Barroso) 유럽위원장과 회담을 가지고, 일본과 EU의 경제협력협정(EPA)의 범위 등을 정하는 예비협정을 체결함. EU는 의약품 인정기준과 같은 비관세분야의 개방을 정식협상의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소고기 수입 금지해제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EU는 효자산업인 자동차부문을 비롯하여 분야에 따라 FTA 협상 내용과 전망,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 철폐뿐만 아니라 정부조달을 비롯한 공공시장 개방, 투자 촉진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함. 또한 EU관계자는 일본의 농림수산물 관계자에게 EPA협상의 조건으로 소고기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것을 몇 차례에 걸쳐 시사함. 하지만 일본의 협상관계자는 “EU로부터의 소고기수입액은 크지 않으나 EU회원국의 소고기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하면 미국으로부터 수입소의 개월 수 철폐 압력이 커질 것이다”고 염려함.
- 현 단계에서는 농산물의 관세철폐에 대해 협의하고 있지 않지만 카렐 데 휘르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3일 EU각료회의 후, 일본과의 EPA협상에 대해 “농업을 포함하여 최대한의 관세철폐가 필요하다.”는 입

장을 표명함. E U는 돼지고기나 치즈 수출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일본, 생선 및 야채 수입량 15% 증가

- 지난 30일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생선, 야채 수입량이 전년대비 15% 증가한 8만 9953 톤으로, 21개월 연속으로 전년을 웃돈 것으로 나타남. 4월 수입량이 8만 톤을 넘은 것은 2006년 이래로 처음임.
- 전체수입의 35%를 차지하는 양파가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으며, 당근은 100%, 양배추는 50% 증가한 반면 일본산 공급이 안정적인 브로콜리나 양상추의 수입량은 감소함. 향후 양파나 당근의 거래전망에 대해 수입업자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입량이 될 것이다”고 주장함.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일본산 공급이 늘어나, 수입은 감소할 것이다”라고 예상함. 과실의 경우 바나나가 수입량은 전년대비 4% 감소하였고, 가격은 6% 인하됨. 키위의 경우 수입량이 전년대비 40% 증가하였으며, 가격은 1% 인하됨.
- 4월의 소, 돼지, 닭고기의 수입량은 전년대비 증가함. 지진피해 이후 외식업의 매출액이 감소와 절약지향으로 저렴한 수입고기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 소고기의 수입량은 전년대비 8.6% 증가한 4만 8,030톤으로 3월 대비 11.6% 증가함. 특히 미국산이 71% 증가하였고, 호주산은 작년 말 대홍수의 영향으로 3.6% 감소함. 냉장상품은 전년대비 10.4% 감소한 반면 냉동상품은 25.3% 증가함. 돼지고기의 수입량은 전년대비 3.1% 증가한 7만 1,544톤으로 미국산이 7.2% 증가, 덴마크산이 3.3% 감소, 캐나다산이 10.2% 감소함. 닭고기의 수입량은 0.8% 증가한 4만 198톤으로 15개월 연속 증가추세에 있음. 국가별로 미국산이 6.2% 증가한 반면 브라질산은 0.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 가뭄으로 인한 농산물가격 상승, 물류비용 증가 등

- 2010년 쓰촨성, 윈난성, 구이저우성, 광시좡족자치구, 충칭 등 서남 5개 성시에 만연했던 대가뭄에 이어 올해는 창장일대에 50년 만에 극심한 가뭄이 닥침. 이번 가뭄은 과거 1978년, 1981년, 1986년, 1994년, 2000년 등 심한 가뭄을 겪었던 그 어느 해보다 정도가 심하고 시간이 길며, 범위가 넓어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 현지 전문가들은 이번 가뭄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함.

- 지난 24일 상무부가 발표한 중국 50개 도시의 5.11일에서 20일간 채소가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그중 배추, 유채, 셀러리 가격이 각각 11.9%, 16.4%, 11.6% 증가함. 이번 가뭄이 하절기 농산물의 수확에 영향을 미쳐 곡물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가뭄으로 인해 강물의 수위가 낮아져 운반선이 통과할 수 없거나 정상 적재량보다 적게 실어야 하는 상황임. 수로에 의지해 공업원료를 구매하는 창장중하류 기업이 수운이 원활하지 않아 원료운송에 애로를 겪고 있음. 가뭄으로 수력발전이 부족해지면서 전력난이 심화되고 조업량 부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음.
- 중국정부는 가뭄 대책 마련을 위해 19억 6,000만 위안을 지원함. 후베이성, 후난성, 장시성, 안후이성, 장쑤성 등 5개 성에 대해 가뭄대책 마련을 위해 총 649만 명이 투입되며, 가뭄예방 관련 설비 138만 개가 가동됨.

○ 일본, 농업농촌부흥을 위한 전략제시

- 지난 4일 일본정부 부흥구상회의의 8번째 회합에서 6월 말 보고예정인 제 1차 제언에 대해 농업·농촌부흥의 기본적 자세를 밝힘. 부흥전략으로서 ‘고부가가치’, ‘저원가’, ‘경영다각화’를 제시하고, 농지규모 등 지역특성에 맞추어 지역별로 미래상을 그린다는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음.
- 농업·농촌 부흥의 기본적 자세에 대해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한 후 집락에서 철저히 회의하여 미래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인 이미지도 제시함.
- ‘고부가가치’는 6차 산업화와 브랜드화, ‘저원가’는 농지의 대구획화, ‘경영다각화’는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의 추진과 바이오매스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함. 이에 덧붙여 지역별 전략의 예를 들고, 지진피해를 입은 동북지방의 좁은 평야지역은 ‘고부가가치’와 ‘경영다각화’를 편성하고, 넓은 평야지역에서는 ‘저원가’와 ‘고부가가치’를 편성할 것을 제시함.

○ 일본, 돼지지육거래규격 개정안 발표

- 일본 식육등급협회는 일본산돼지지육 등급규정인 ‘돼지지육거래규격’의 개정안을 발표함. 신규격안은 지육의 ‘양’과 ‘질’을 나누어 평가하며, 지육중량이나 지방이 붙은 모양과 고기, 지방의 색깔을 총 9단계로 나눠 등급을 매김.
- 현행의 ‘돼지지육거래규격’은 지육의 (1)중량과 등지방 (2)외관 (3)육질을

각각 5단계 (극상(極上), 상(上), 중(中), 병(並), 등외 (等外))로 평가하고, 3항목 중 가장 낮은 평가를 그 지육의 등급으로 채택함. 예를 들면 육질이나 외관에서 ‘상’의 평가를 받아도, 중량과 등지방에서 ‘병’으로 평가받으면, 육질은 좋아도 등급이 낮아짐.

- 개정된 ‘돼지육거래규격’으로 인해 일본양돈협회는 “일본식육등급협회가 시행한 실험적 등급의 지육성적을 분석 중”이라며 판단을 보류하고 있으며, 유통관계자 중에는 “경매에 사용하는 전광게시판 등을 바꿀 필요가 있어서 간단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 일본, 과일재배기간 단축으로 식물공장 실용화

- 동경농공대학은 블루벨리를 생산하는 「식물공장」 실용화를 국내 최초로 실시함. 야채에 비해 재배기간이 긴 과실은 공장생산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산 사이클을 단축하고 수확량을 늘리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함.
- 식물공장은 동대학의 후쥬 캠퍼스 내에 설치함. 지상 1층, 지하 1층의 건물로 지상부분은 태양광을 활용하기 위해 유리 외벽으로 공장지붕에는 태양전지판을 설치하고 에너지 절약에도 배려함. 공장내의 온도와 습도, 일조량 등을 섬세히 조정하고 인공적으로 사계절을 재현함. 지상에 「봄, 여름, 가을」, 지하에 「늦가을, 겨울, 초봄」 환경의 방을 각각 설치하여 이 동시키면서 묘를 육성함. 또한, 이산화탄소 주입으로 활발히 광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실이 열리는 비율을 늘리는 것에도 성공함. 이로 인해 통상 밭에서 재배하는 양에 비해 연간수확량은 3배로 대량공급이 가능함.
- 식물공장의 보급을 위해 제조, 유통, 외식 등의 기업용으로 단기간에 공장 과 재배법을 이해하는 연수 프로그램도 준비중임. 또한 판매단가가 높고 소비자에게도 인기가 높은 딸기나 체리 등에 응용도 검토함.

○ 태국, 올에 쌀 수출 최고기록 달성 전망

-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태국은 높은 국제 쌀 수요와 각국의 공급 감소로 금년 쌀 수출이 기록적인 1,400만 톤까지 이를 것으로 업계 전문가는 전망함. 올 1~5월 중 태국이 수출한 쌀은 이미 5만 톤을 초과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42.7%나 증가한 수치임. 주요 쌀을 수출국가는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국가들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국가임.

- 태국이 금년 쌀 수출의 호황을 맡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제 식량 생산 감소를 꼽을 수 있음. Office of State Flood Control and Drought Relief Headquarters에 따르면, 올 5월 기준으로 중국은 가뭄으로 인해 650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음. 한편 미국은 5월 미시시피 강 유역에 홍수로 인해 약 360만 에이커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음. 또한 캐나다의 프렌치맨 강 유역에서 발생한 홍수는 1952년 이래 가장 큰 규모로 경작물의 파종시기를 늦추고 있음.
- 태국 쌀 수출업자들은 이와 같은 각국의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에 대한 수요와 가격상승의 이점을 누리는 반면, 국내외 위협요인에 직면함. 우선 해외 위협요인으로는 광대한 농토와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과 미얀마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쌀을 국제시장에 공급하고 있어 쌀 수출 경쟁국으로 등장함. 국내 위협요인으로는 올 7.3일 실시하는 태국 총선에서 야당 푸에타이당이 집권해 선거공약을 실천할 경우 태국 쌀은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을 상실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중국, 유제품 기준 논란 확산

- 광저우유제품협회 회장인 왕딩미옌은 지난 15일에 열린 업계 회의에서 “중국의 유제품 안전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형편없는 것”이라며, “유제품 업계의 치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함.
- 이번 논란은 중국당국이 작년에 유제품의 안전기준을 대폭 완화한데서 비롯된 것임. 중국은 지난해 유제품 안전기준을 원유 1㎖당 세균 허용치를 종전의 50만 개에서 200만 개로 대폭 늘리고 단백질 기준치는 100g 당 2.95g에서 2.80g으로 완화함.
- 왕 회장은 “유제품 기준을 완화한 것은 상온우유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기준이 완화되면 상온 우유를 주력 제품으로 하는 대기업들이 많은 원유를 확보하여 시장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양소 기준을 낮춤으로써 고온 살균 과정에서 파괴되는 영양소가 많은 상온우유의 편의를 봐주려는 것이라는 주장임. 이에 대해 일부 업체들은 “낙농업계의 대부분은 영세업체들로 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우며, 안전기준을 강화할 경우 많은 업체가 도산하게 될 것”이라면서 “현실에 맞는 선택”이라고 반박함.

○ 일본,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 인가판단 연기

- 일본 농림수산성은 도교곡물상품거래소와 간사이상품거래소가 신청한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에 대해 6.28일에 인가할 방침이었으나, 6.27일 판단을 연기하기로 결정함. 이는 민주당이 당 의논을 고려한 대응을 요구한 데 이어, 이바라기(枳木)현이 불인가를 요청했기 때문임.
- 일본정부가 시험상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할 책임이 있어, 농림수산성은 “불인가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견해를 바꾸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농림수산성은 당과의 조정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임.
- 또한 농림수산성은 식량·농업·농촌정책심의회 식량부회를 6.30일에 개최할 예정임. 식량부회에서 쌀선물 시험상장 인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농림수산성이 6.30일까지 결론을 내릴 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임.

2. 유럽

○ 영국, 2010년 유기농 제품 판매 5.9% 감소

- 영국의 대표적인 유기농 인증기관인 영국토양협회(the Soil Association)에 따르면 2010년 영국 소비자들의 신뢰도 지수가 낮아지면서 유기농 제품 판매 또한 5.9% 감소하여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함.
- ‘2010년 유기농 연간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농 제품 매출액은 1993년 105백만 파운드(한화 1,859억 원)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 매출이 21.1억 파운드(한화 3.7조 원)에 달하며 최고치를 기록함. 반면 2009년에 18.4억 파운드(3.3조원)에서 2010년에는 17.3억 파운드(3.1조원)로 감소함. 유기농 제품의 주요 판매 경로는 대형 슈퍼 체인이 7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0년에는 유기농 야채와 우유의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2011년에는 가금류와 계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유기농 소고기의 매출액이 18%, 유아 식품의 매출액이 10% 증가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여전히 유기농 산업이 회복하여 다시 성장세로 돌아갈 징조가 보이고 있다고 협회 측은 주장함.

○ EU, E-coli 오염사태 대책 관련 특별농업장관이사회의

- 지난 7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 특별농업장관이사회에서 EU 농업장관들은 최근 독일에서 발생한 E-coli 박테리아 오염 사태로 인하여 유럽 농업인들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 등을 논의하였음.

1. E-coli 발생 관련

- EU 농업장관들은 최근 독일에서 발생한 E-coli 오염 사태와 관련한 식품 안전 문제와 동 위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식품 안전과 관련하여, EU 농업장관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음.
 - 모든 EU 회원국들은 이번 독일 E-coli 오염 사태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였고, 동건 오염의 원인이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많은 회원국들은 식품유통단계 별로 지속적인 조사를 하여, 유럽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여야 함을 강조하였음.
 - 많은 회원국들은 현 EU 식품안전체계를 평가하여, 회원국의 식품안전기관에 정보 유통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대하여 EU 집행위는 5.22일 동건 오염의 첫 번째 발생 보고 이후, 모든 EU 관련 기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조율하여 왔으며, 동 오염 사태를 계기로 현재의 정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동 오염 사태의 시장 파급효과와 관련하여, EU 농업장관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논의하였음.
 -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EU 및 회원국 차원의 과일,채소 시장의 상황(아무런 잘못이 없는 농업인들이 이번 위기로 인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음.
 - * 유럽농민연합(COPA-COGECA)은 이번 오염 사태로 인해 유럽 농업 분야에 매주 417백만 유로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 이사회에서 일부 회원국들은 이번 오염 사태가 EU차원의 위기이므로, 통상적인 시장 개입 조치(EU예산과 회원국 예산을 매칭 펀드 방식으로 활용)가 아닌, 특수상황조항에 따른 조치(전액 EU 예산으로 충당)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이에 대하여 EU 집행위는 EU 법령상의 특수 상황 조항(provision covering exceptional circumstances)에 근거하여 이번 오염사태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총150백만 유로 상당(손실액의 30% 수준으로 추정)의 손실 보

상을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 이러한 집행위의 제안에 대하여 다수의 회원국들은 동 지원액이 피해액에 비하여 매우 작은 수준이라고 하면서, 지원액 수준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였음.
- EU 집행위 농업담당 집행위원(Ciolos)은 보상액 수준이 낮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향후 보상액 수준을 높여서 회원국들에 다시 제안하겠다고 밝혔으나, 예산 제약 조건을 고려하고, 과다 보상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피해액의 100%를 보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언급하였음.

2. 유럽의 가뭄 상황 및 대책

- 이사회에서 프랑스는 최근 일부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가뭄 피해 상황(특히 축산 분야)에 대하여 보고하였음.
- 프랑스는 특히 현재의 가뭄 상황이 지속된다면, 일부 농작물의 경우 생산성 하락이 예상되며, 일부 축산농의 경우 사료 비용 상승을 우려하여 축산을 포기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이사회에서 다수의 회원국들은 가뭄 대책으로 5.17일 프랑스가 제안한 농가 직불금 지급 시기를 당기는 방안과 관련하여, 집행의 융통성을 제고하고, 표준 행정 절차를 시행하여 줄 것을 집행위에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하여 EU 집행위는 동건 직불금 지급 시기를 당기는 방안에 관한 집행위 의견을 이사회에 기제출하였으며, 집행의 융통성과 관련하여서는 회원국들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다는 내용으로 답변하였음.

○ WTO 무역협상안 연기

- 세계무역기구(WTO)는 6.8일과 9일에 예정되어 있던 무역협상위원회 회의를 6.22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전 회의에서 파스칼 라미(Pascal Lamy) 사무국장이 협상초점인 농업과 비농산품의 시장접근안을 제외하고 개발도상국의 지원책을 중심으로 12월 각료회의에서 선행합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각국 간 조정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임. 이는 미국이 지원책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벌써부터 도하 라운드 선행합의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음.
- 라미 사무국장은 선행합의에 대한 최종적 대안을 6.9일에 발표할 예정이었음. 연기이유에 대해 “(선행합의 내용에 대해) 정밀히 검토할 수 있는 시

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라미 사무국장이 전 회의에서 제안한 지원책은, 개도국산품에 대한 무세조치, 원산지규칙의 완화, 목화 보조금철폐 진행방식 등의 4개 항목임. 개도국에 대한 무세조치는 2005년 각료회의에서 합의됨.

- 그러나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2005년도 합의를 실시하지 않았음. 이번 선행합의에 대해 “주요국가 모두가 공헌해야 한다”고 강조, 중국을 염두에 두고 “목화 보조금 기부국가에 대한 정보 개시”를 요구함. 또한, WTO는 6월 8일, 농업협상의 위커의장이 이번 달 안에 취임할 것이라고 발표함. 위커의장은 귀국 후 뉴질랜드 외무무역성 차관에 취임할 예정임. 향후 WTO 일반이사회 의장은 농업협상의장 후임 선정에 착수할 것으로 보임.

○ 바이오연료 보조철폐

- 세계무역기구와 세계은행, 국제연합은 국제식량가격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오연료 보조금철폐를 요구하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6.10일 발표함. 6.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G20농업장관회의에 제출할 예정임. 곡물생산과 재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농업시장 정보시스템(AMIS)’ 확립에 대한 내용도 포함함.
- 정책제안서에서는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사탕수수생산량의 20%, 대두 등 두류유지작물 종자의 9%가 바이오연료의 원료로 쓰여졌다고 지적함. 원유가격이 상승하면 바이오연료의 수요가 늘어나, 이에 따라 곡물가격이 상승한다고 분석함. 이를 근거로 바이오연료의 보조금을 철폐하거나, 즉시철폐가 불가능할 경우 식량가격이 상승할 시에 바이오연료 보조금의 지급을 일시적으로 연기할 것을 제기함. 미국이 에탄올과 가솔린을 섞은 사업자에 대해 1갤런(약 3.8리터) 당 45센트의 세금을 공제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보조금을 폐지하였고, 유럽의 몇 나라는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제안서에는 식량수출국이 수출규제를 실시할 경우 조건을 명확히 할 것과, 수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수입국 등 관계국과의 협의를 신속하게 실시할 것을 제기함. 또한, 수출규제대상에서 국제연합의 식량지원을 제외할 것도 요구하고 있음.

○ EU, 식량/에너지 안보 관련 국제회의의 결과

- EU집행위는 6.14일 최근 국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식량/원자재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함. 동 회의에는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 EU 집행위원장과 각 부문의 집행위원들이 참석함. 다음은 주요 발표자의 발언 요지를 정리한 내용임.

1. 프랑스 대통령(Nicolas Sarkozy)

- 농산물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세계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나 극빈자들이 많은 개도국의 정치적 불안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G20 차원에서 이러한 국제적 불안정 요인을 완화시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성이 있음.
- 국제 금융시장의 위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듯이, 농산물/원자재 시장의 위기도 역시 투기에 기인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도 규제 강화가 필요하고, 이러한 규제 강화가 매우 시급히 필요함.
- ‘규제’라는 단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터부시하고 있으나, 규제가 반드시 통제나 보호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가 직접 가격을 설정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다만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이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자는 의미임.
- 2002년 설립된 JODI(Joint Organization Data Initiative)가 국제 석유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기능을 한 것처럼, 농산물/원자재 시장에 대해서도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논의를 G20차원에서 확산해나가려고 함.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계 인구를 먹여살리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농업 생산 능력이 70% 이상 증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의 농업생산 능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G20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하고, EU 공동농업정책의 개혁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야함.
- 원자재에 대한 파생금융상품 시장의 확대와 이를 통한 투기의 확대가 문제의 근원이므로,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관련 금융 거래시의 최소 현금 담보 제공 의무 부과, 거래 주문량 제한 조치 등의 정책이 필요함.

2. EU 집행위원장(Jose Manuel Barroso)

- 오늘 논의되는 의제는 성격상 글로벌 이슈이기 때문에 그 정책대안도 글로벌 대응이 되어야만 하는데, 최근의 도빌 G8 정상회의, 다음주 G20 농업장관회의의 논의는 이러한 점에서 바람직한 대응 방향이라고 생각함.
- EU집행위 차원에서는 10월에 원자재 시장에서의 정보 교류를 촉진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 제안을 발표할 계획임.
- 동 입법에는 석탄 산업계(비상장사 포함)의 재무 정보 공개 의무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관련 산업의 부정부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3. EU 산업담당 집행위원(Antonio Tajani)

-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의 근원은 2003~4년경부터 국제금융시장의 대규모 투자 자본이 이전에는 투자하지 않았던 원자재 시장에 대하여도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의 변동성도 커지고 관련된 투기도 늘어나게 되었다고 평가함.
- 최근의 농산물 시장, 광물 시장, 석유 시장 등의 국제 가격 트렌드에 일정한 연관관계가 나타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이러한 시장들이 국제적인 금융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음.
- 국제 원자재 가격 불안정성 문제는 많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문제로서 국가간, 국제기구간의 공조가 필요한 정책과제이고,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가 동 의제를 금년 G20 핵심의제로 제기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서 환영하는 바임.
- EU집행위 차원에서는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하여 14개 주요 원자재를 중점 관리하고, 아프리카 연합, 칠레, 러시아, 그린랜드 등 자원 부국들과의 상호 협력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4. EU 농업담당 집행위원(Dacian Ciolos)

- 농산물 원자재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금년 가을에 단기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임.
- 동 보고서는 곡물, 유지작물, 축산물, 낙농품 등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며, 각 EU회원국에서 사적/공적 재고 현황을 파악하여, 이 정보를 EU차원에

서 취합,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의 형태가 될 것임.

- 최근 국제 식량 가격의 불안정은 공급의 확대 속도를 뛰어넘는 수요의 확대에 기인한다고 보며, 이는 국제적으로 동물성 단백질 소비가 확대된 데에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토지나 자연환경 등의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공급 능력을 단기간에 확대하기 힘든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도 식량 가격의 불안정 문제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

5. EU 역내시장, 서비스 담당 집행위원(Michel Barnier)

- 선물, 옵션 등의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늘어나면서, 국제 상품시장(농산물 시장 포함)과 국제 금융시장간의 연관성이 증대하고 있음.
- Barnier 집행위원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연설 내용과 관련하여, EU집행위에서는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방안으로서 원자재 파생 금융상품의 거래 주문량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6.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Karel de Gucht)

- WTO의 업무 영역과 관련하여, 과거 생산 과잉 시기에는 WTO의 업무가 “수입 관련 장벽 완화 업무”였다면, 최근 식량/원자재 과소 공급(scarcity) 문제에 대해서는 WTO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 관련 장벽 완화 업무”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 또한 원자재 수출 제한 조치 관련 WTO 패널 결과가 다음달경 발표될 예정인데, 이 보고서는 향후 관련 분야의 중요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음.

7. EU 에너지 담당 집행위원(Gunther Oettinger)

- EU는 75%의 에너지를 역외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성 제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로 에너지 자급율도 높이고, 에너지 안보도 제고해야하는 실정임.
- 최근 원자력 발전 정책 등에서 일부 이견이 노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EU 차원의 통합적 에너지 정책은 강화되어야 하며, 향후 2030 에너지 로드맵에 따른 역내 에너지 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

여 막대한 규모의 EU 예산 및 민간 자본의 투자가 필요함.

○ G120 외압개막, 식량안보에 위기감

- 파리에서 6.17일까지 열린 G120농업단체회담에서 각국의 농업단체들은 의견을 교환함. 일본 J A그룹은 공정한 시장거래와 식량비축의 중요성에 대해 주장함. 또한 인구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식량부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식량안전보장의 위기감과 그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함.

<건전한 시장 필요·투기규제의 강화>

- 일본 J A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모데키 마모루(茂木守)회장은 농산물가격안정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고, 농산물 시장거래에 관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함.
- 구체적으로는 국제 농산물가격상승에 대한 대책을 제안함. 수출금지 및 제한으로 식량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함.
- 국제적 투기자금의 유입에 따른 식량가격상승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의 대상이 인류에 꼭 필요한 식량이라는 것이 문제이며, 가격안정을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대책의) 검토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함. 수출국과의 생산성에 큰 격차가 있음을 제기하고, 농업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정조치를 고수할 것을 주장함.
- 선물시장과 투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 특히 많은 수가 찬성함.
- 캐나다 단체는 “투기가 있는 한, 시장의 투명성은 없다.”고 하며, 식량가격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투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함.
- 미국 전국농민연맹(NFU·National Farmers' Union)의 Robert Carlson부회장은 현 선물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함. 원래 농가와 가공업자를 위한 시장이었으나, “돈 벌기위한 목적 때문에 시장의 규모가 커지며, 공평한 시장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존라이트너 유럽농민단체협의회(COPA) 회장은 “지나친 가격변동은 개선되어야 한다.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며, 과잉된 투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수출규제와 수출세에 관한 물이 필요하다”고 하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함.
- 대표토론회에서 앤 버그 유엔 FAO 컨설턴트는 투기로 인한 식량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해 지적함. 이에 관해 “투기에 따른 급격한 가격변동은

큰 문제이며, 시장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우려가 계속됨.

- 모데키 마모루(茂木守)회장은 세계적 식량안전보장에 대해서도 제안함. “국제식량가격 안정을 위해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농업지원이 중요함. 식량자급률 향상으로 기아를 줄이고, 이상기후현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산화탄소 감소가 가장 중요한 과제다”고 설명함.
- 식량자급률에 대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식량안전보장에 대한 중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옴. 선진국에서는 식량수입국인 노르웨이가 대표토론회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식량자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으나, (세계 식량문제의 대책으로서)선진국도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음.

<농산물증산가속화, 가격안정, 이상기후현상 대책>

- 총 6번의 대표토론회에서는 식량안전보장의 위기감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식량증산, 농산물가격의 안정, 이상기후현상대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치된 의견을 보임.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을 포함한 농업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의견도 많았음. 또한 세계농업단체조직과 농업에 특화한 국제기구를 조직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함.

<식량확보>

- 대표토론회에서 강연자들은 식량의 대대적인 증산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F A O의 Marcela Villarreal은 2050년까지 세계인구는 30%이상 증가할 것이라며, 식량생산을 70%정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감소추세에 있던 기아인구는 2008년 식량가격상승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변하여, 식량증산의 과속화가 커다란 과제임을 제시함.
- 패널리스트도 이상기후현상과 농산물에너지 수요증대, 정부개발원조 (ODA)의 농업투자 감소 등 어려운 현 상황을 지적함.
- 브라질 단체에서는 “바이오연료용보다도 식량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인도네시아 단체에서는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소규모 농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기후변화>

-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이상기후문제에서는 작부시기의 변경과

- 신품종의 도입이 유효하며, 연구와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국제농업연구협의그룹의 Bruce Campbell은 기조강연에서 기온상승의 영향으로 커피의 작부이전과 작물전환을 할 수 밖에 없는 콜롬비아현황을 소개함.
- 농업분야에서도 기온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학비료를 줄이거나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전개해야함. Campbell은 “연구개발과 휴대전화를 활용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 미국과 중남미의 각국의 보고에 따르면, 작부시기가 변하고 있으며, 삼림이 파괴되고 수확량이 감소함. 또한 품종과 작물전환에 드는 비용과 위험 부담도 새로운 문제로 지적됨. 가뭄에 대비한 저수시설과 작물 보험의 확대도 제안됨.

○ 독일, EU 유전자복제 육류 및 가공품 판매 제한 없이 수용

- EU가 추진한 유전자복제 육류의 역내 판매에 대해 독일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수용할 예정임. 이로써 영국, 네덜란드, 그리스를 중심으로 추진된 유전자복제 육류와 가공품의 EU 역내 판매가 특별한 제재장치 없이 가능할 전망이다. EU의 이번 결정으로 엄격히 규제해온 유전자 복제 육류와 유제품의 표기 의무화를 폐지함으로써 유전자복제 육류와 유제품의 판매 및 시장력 강화에 영향을 주게 됨.
- 미 식약청은 논란이 되는 유전자 복제 소, 돼지, 염소를 6년간 검사했으나 인체의 위험성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함. 이에 따라 미국은 2008년부터 유전자복제 육류의 슈퍼마켓 판매를 허가해 오고 있음. 반면, 소비단체들은 미량의 표본 채취를 통한 FDA의 연구결과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 많은 의문점이 입증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함. 소비단체 식품안전센터(Center for Food Safety)는 유전자 복제 육류의 정보가 부족해 소비자가 어떤 경로로 유전자 복제품을 섭취하는지 모름. 따라서 잠재적 위험성이 존재하는 미국산 유전자복제 육류의 수입이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단체의 우려와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2010년 미국의 대 EU27의 수출량이 소폭 증가한 반면, 독일의 대미국 쇠고기 수입량은 1,430% 증가함.
- 독일 소비자보호단체는 유전자복제 육류 판매가 현실화되자 표기 의무화 시행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슈퍼대장군 사고에 이어 또 하나의 이슈로 커질 가능성이 큼. 또한 광우병 이후 잠잠했던 EU 역내의 미국

산 육류 수입에 대한 무역분쟁 소지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아메리카/중동

○ 미국, 면화생산 증대 예상을 빚나간 생산량

- WSJ와 주요 언론 매체들은 올해 들어 면화 가격이 16% 폭등한 가운데 올해 미국에서 면화생산이 올해 약 5%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또한 미 면화협회의 게리 애덤스 부회장 역시 올해 면화 재배 면적이 약 14% 늘어날 전망했으나 올해 초 미국의 코튼 벨트인 텍사스의 가뭄, 중남부 지역의 홍수, 동남부지역의 강우 부족 등 기상 악조건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 국제 면화 가격이 본격적으로 급등한 건 지난해 8월부터였으나 그 이전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았음. 지난해 동안만 두 배 가까이 가격이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도 30%가량 급등함.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지난 여름 남아시아 일대를 휩쓴 이상기후로 인해 면화경작지 상당수가 물에 잠겨 공급량 자체가 크게 감소함. 여기에 인도 정부의 수출 제한 정책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음. 인도 정부는 자국 내 의류산업의 원료공급 차질을 우려해 면화의 국외 유출을 금지해버렸으며 이로 인해 더욱 불안정적인 국제 공급이 예상되면서 면사 가격의 폭등을 부추였음.
- 불안정한 면사 공급과 이로 인한 원단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의류 업계의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음. 이미 세계적인 불황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와 힘겹게 싸우고 있던 의류업체, 유통업체들은 깊은 탄식을 나타내고 있음. 블룸버그에 따르면 GAP, JC Penny 같은 대형 리테일업체들이 이번 면화가격 상승으로 인해 원단 공급업체에게 지불해야 할 납품가가 30%가량 인상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의류 제품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함.

○ 미국, 조지아주에 세계제일의 바이오매스 목재팔렛 생산시설 설립

- 바이오매스는 재생 에너지의 하나로 주로 나무나 자연식물 등을 이용해 얻어지는 에너지이며, 현재 미국에서 주목받는 대체에너지 중 하나임. RWE Innogy of Germany는 유럽을 선두하는 에너지 생산업체로서 스웨덴의 BMC와 공동작업으로 조지아 바이오매스 목재팔렛 생산시설(Georgia Biomass) 설립에 성공함.
- 미국 조지아주는 2,400만 에이커가 넘는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주로서 바이오매스 자원이 풍부하고 에너지 변환기술과 인력을 갖추고 있어 바이오

매스 업계를 리드할 원천지로 손꼽히고 있음.

- 조지아주의 기업친화적인 정책 또한 바이오과학 관련 회사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줌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주목을 받고 있음. 혜택으로는 해당 기업에 따른 세금을 줄이고 생물연료시설에 대한 허가증을 신속히 처리발급하고 있음. 또한 2006년 이래 조지아 주정부기관 및 연방정부의 에너지국(Department of Energy)을 통한 기부금 장려로 여러 기업의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

자료작성: 이정희.

주요 외신 동향 (2011.06)

□ 미국, 식품가격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심화

1. 주요 내용

<미국 식품물가 상승 가속>

- 스탠다드앤푸어스(The Standard & Poor's) GSCI 농산물지수(Agriculture Index)의 예측결과에 따르면, 식료품 8개 품목 중 7개는 기상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가격이 상승함.
 - ※ 그 밖에 달러 약세에 따른 수출증가, 재고부족 등도 식품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임.
- 옥수수의 선물가격은 작년대비 98% 상승했고, 밀(67%), 원당(44%), 쌀(25%) 가격도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냄.
- 식료품점과 레스토랑음식 가격은 4월까지 지난 4개월간 2.4% 상승했으며, 이는 1990년 이래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냄.
- 한편, 학계 및 식품업계의 전문가들은 최근의 식품가격 상승에 대해 우려를 나타냄.
 - 아이오와주립대 교수인 채드 하트(Chad E. Hart)는 소매물가가 올해 USDA의 전망치(3~4% 상승)보다 훨씬 더 오를 것이라고 밝힘.
 - ConAgra Foods Inc의 전 수석경제학자인 빌 랩(Bill Lapp)은 기업들이 금년 말까지 높아지고 있는 원가 인상을 가격에 반영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식료품 및 유가 상승으로 미국 소비자에게는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면서 현재 식품 가격 상승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우려를 나타냄.

<식품업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식품가격 인상>

- 미국 식품물가 인플레이션이 곡물, 육류, 유제품, 에너지 비용을 더 높아지게 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상에 따라 네슬레, 맥도널드, 홀푸드마켓 등 세계적인 식품기업들은 식품가격을 인상하고 있음.
- 세계 최대 패스트푸드체인 맥도널드의 피터 벤센(Peter Bensen)은 “재료 가격이 상승해 미국 내 햄버거 세트 가격을 3월부터 1% 올렸다”면서 “올해 미국과 유럽의 식품가격이 4.5%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미국 최대 유기농 식자재 업체인 홀푸드마켓의 월터 롭(Walter Robb) 공동

CEO는 “벤더들에게 올해 식료품가격을 올렸으며, 우리는 지금 당장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함.

- 세계 최대 식품회사인 네슬레의 CEO인 폴 벌키(Paul Bulcke)는 “향후 식품 물가상승이 더 확대될 것이며, 식품회사들은 높은 재료 비용을 최대한 흡수하기 위해 다른 부문에서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함.
- 금년 커피콩 가격이 2배 가량 올라 미국 커피유통업체인 스머커(JM Smucker)는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커피 브랜드인 폴저스커피(Folgers coffee) 가격을 11% 인상할 것이라고 밝힘.

<식품 가격 상승은 기상악화로 인한 농작물 작황 부진에 기인>

- 세계 최대 농업수출국인 미국의 식품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유럽, 중국, 미국 남부의 대평원 지역의 가뭄으로 수확량이 감소했기 때문임.
- 더욱이 최근 미시시피강의 홍수로 인해 옥수수, 콩, 쌀 등 농작물 파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
- FAO는 세계 식품가격이 4월을 포함해 지난 10개월 중 9개월 동안 가격이 올랐으며 지난 2월에는 최고가에 근접했다고 밝힘. 또한 농산물의 수급불일치로 인해 가격변동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인플레이션 조짐으로 인해 중국, 유럽 등을 포함해 24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음.

참고자료: Bloomberg(2011.05.25)

□ FAO, 식품가격 상승세 2012년까지 지속될 듯

1. 주요 내용

- FAO의 반기 보고서인 ‘Food Outlook’에 따르면 식품가격 상승세는 2012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가격 변동성도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함.
- 올해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대비 3.5% 증가한 23억 톤으로 전망되지만 식품가격 상승세를 꺾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생산량임.
- FAO의 통상부 이사인 데이비드 할람(David Hallam)은 “농산물의 수급상황이 불안정하여 식품 가격지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저소득빈곤국가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함.
- 올해 세계 식품 수입액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조 2,900억 달러로 저소

득빈곤국가들은 올해 식료품 수입에 30%를 더 지출해야 함.

<5월 식품가격지수 하락>

- 5월 세계 식품 가격지수는 전월의 235포인트에 비해 약간 하락한 232포인트로 지난해 동기대비 37% 상승함. 반면 곡물과 설탕의 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약간 감소한 반면 육류와 유제품 가격 지수는 상승함.
- 곡물: 265포인트(4월) → 262포인트(5월)
- 설탕: 346포인트(4월) → 311포인트(5월)
- 육류: 181포인트(4월) → 183포인트(5월)
- 유제품: 229포인트(4월) → 231포인트(5월)

<곡물 수급 현황>

- 올해 세계 밀 생산량은 러시아의 밀 생산량 증가로 전년대비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FAO의 분석가인 압돌레자 아바시안(Abdolreza Abbassian)은 “올해 흑해 지역의 날씨가 좋아 러시아는 850만 톤의 밀을 수출할 것이며 2011/12년도 곡물 수출량은 1,100만 톤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 반면 유럽의 가뭄과 미국 북부와 캐나다에는 강수량이 많아 밀 작황이 부진함. 특히 서유럽 최대 밀 생산지인 프랑스의 올해 밀 생산량은 지난해의 3,560만 톤에서 3,100만 톤으로 감소할 것임.
- 이로 인해 밀 수출량은 지난해의 1,280만 톤에서 600~700만 톤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 밀 뿐만 아니라 옥수수와 보리 등과 같은 잡곡 공급량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FAO는 잡곡의 재고비율을 2010/11년도의 14.2%에서 2011/12년도에 13.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축산농가 피해>

- 유럽의 가뭄으로 풀이 자라지 않아 축산농가도 피해를 입고 있음. 축산농가는 사료구입에 나서고 있으며, 일부는 사료 구입비 부담으로 인해 가축을 예정보다 일찍 시장에 팔고 있음.

<상승하는 식품가격에 G20 공동 대응>

- 한편 G20국가들은 농산품의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농업시장정보시스템(Agriculture Market Information System: AMIS)”을 구상하여 세계 재고와 생산에 관한 시장정보를 수집 및 분석할 계획임.
- 이는 생산감소, 수요증가, 재고부족 등으로 상승하고 있는 국제 식품가격 때문에 2007~2008년과 같은 식량위기의 재현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됨.
- 올해 G20 회의 의장국인 프랑스 브루노 르 메이르 농림부 장관은 “시장은 맹목적으로 운영될 수 없으며, 재고와 생산에 관한 믿을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프랑스는 이번 달 22~23일 파리에서 개최되는 G20회의에서 식량안보를 주요 의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AMIS”는 핵심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 이번 회의를 통해 “AMIS”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및 권한을 마련하고 사무국은 FAO에 설치할 계획임.
- 이번 “AMIS” 프로젝트에는 현재까지 농산품의 재고수준을 비밀로 했던 중국이 참여할 예정임.
- 메이르 장관은 “중국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재고수준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점차 단계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주장함.
- G20 관계자에 따르면 “AMIS”는 올해 말쯤에 운영될 예정이며, 초기에는 밀, 옥수수, 쌀, 대두의 월별자료를 제공할 예정임.

2. 시사점

- 농업시장정보시스템(AMIS)의 작동원리 및 운용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원내 관련 연구와 연계 등 추후 협력 및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 필요

참고자료: FAO(2011.06.07), The Wall Street Journal(2011.06.08), FINANCIAL TIMES(2011.06.07)

□ FAO, 새로운 농업 패러다임 “Save and Grow” 제안

1. 주요 내용

- FAO는 세계 인구 증가에 대응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해, 1960년대 녹색혁명(Green Revolution)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Save and Grow” 를 발표함.

- 지난 수십년간 집약적인 영농으로 인해 토양 오염, 생물다양성 감소, 수자원 고갈, 기후변화 등 전세계 자연자원이 황폐화되는 문제를 초래했다고 밝힘.
- FAO에 따르면, 세계인구는 현재 67억 명에서 2050년 92억 명까지 증가할 전망이므로, 식량 수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70% 이상 증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됨.
- 이번에 발표된 ‘Save and Grow’ 보고서는 전세계 25억 명에 달하는 영세농들을 대상으로, 보다 지속가능한 경작 방식을 제시함. 즉, 농업 생산비용은 낮추고 단수를 극대화하면서도, 바람직한 농업생태계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함.
- 경작 방식의 한 예로, 정밀농법(Precision agriculture)은 외부 투입물을 적시·적량 투입함으로써, 경작에 꼭 필요한 만큼만 투입하는 기술이며, 해충관리도 살충제 사용 감소를 위해 핵심적인 기술임.
- 그 외에도 유기 토양, 홍수 조절, 곤충을 이용한 수분 및 방제 등 생태친화적 접근을 포괄하고 있음.
- 또한 실질적인 도입을 위해 각국의 정책입안자는 농업인이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는 데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함.
- 구체적으로 신기술 교육 지원 확대, 국가 차원의 농업생산 프로그램 강화, 기후변화 대응 품종 보급, 비료·농약 등 투입재의 효율성 제고
- 국가별로는 선진국은 개도국에 대한 ODA 중 농업의 비중 확대, 개도국은 자국의 예산 중 농업 분야의 투입 비중 확대 제안

<참조>

- 1960년대 식량 증산에만 초점을 두었던 녹색혁명 이후로, 생산성 뿐 아니라 환경을 고려하는 농업을 뜻하는 기존의 개념으로는 UN의 녹색농업(Green Agriculture), FAO의 기후대응 스마트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 등이 있음.

* UN의 녹색농업(Green Agriculture):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식품공급을 보장 하면서 농가생산성과 수익성을 유지 및 증대하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고 점진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도하고, 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생태적 자원(토양, 물, 공기 및 생물다양성 자연 자본 자산 등)을 복구하는 농업’

* FAO의 기후대응 스마트농업(Climate-Smart Agriculture):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저탄소농법으로의 전환을 뜻하며, 개도국의 농업이 식량 안보 및 기후변화와 관련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된 최선의 과학 기술과 제도개혁, 금융 인프라 구축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참고자료: FAO,WSJ(2011.06.13)

□ FAO, 양우 식량 가격 상승과 변동성 확대 예상

1. 주요 내용

-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1-2020’ 보고서는 식량 수요 증가 전망에 비해 생산량 증가 속도가 매우 느려 식량 가격 상승과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며, 향후 10년간 식량가격이 30%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품목별로는 급속히 증가하는 개발도상국 중산층의 소비 증가로 가금류와 돼지고기 가격은 각각 30%, 20%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곡물 가격도 약 20% 오를 것으로 예상함.
- 세계 식량 생산량은 향후 10년 동안 연간 1.7%씩 늘어날 전망인데, 이는 지난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2.6%)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임.
- 밀 생산량은 2020년까지 연간 0.8% 증가한 7억 4,600만 톤이 전망되며, 수급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예상됨.
- 반면, 아시아 국가들의 주식인 쌀 생산량은 2020년에 5억 2,800만 톤이 예상되는데, 연평균 증가율은 1.3%로 수요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해마다 심해지는 기후변화도 식량 재고의 감소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며, 이로 인해 10억명에 달하는 전세계 기아인구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수년간 급변하는 국제 곡물 가격의 불안정성은 전 세계적으로 큰 문

제점이 되어왔지만, 앞으로 식량부족에 따른 급격한 가격 변동은 일상화 될 것이라고 보고서에는 밝힘.

- 이와 관련하여 G20 장관들은 내주 중 식량 생산과 비축에 대한 전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임.
- 이에 대해 OECD와 FAO는 보다 정확한 예측을 통해 곡물 수급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요구는 지지하지만 금융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식품가격을 올리는데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피할 것이라고 밝힘.
 - OECD와 FAO의 관계자는 선물시장에서의 투기적인 활동이 장기적으로는 식품가격 변동을 유발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움직임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은 각국 정부가 식량 관련 정보와 식량거래의 투명성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함.
 - 개발도상국이 식량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투자가 확대되어야하고, 식량 위기에 따른 위험과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자크 디푸(Jacques Diouf) FAO 사무총장은 최근 국제곡물 시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가격 변동성은 농산물 시장의 특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힘.
 - 아울러 기아인구의 89%가 살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향후 10년간 기아인구가 47%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국가에 대한 농업투자와 농촌개발을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FAO 사무총장은 밝힘.

2. 시사점

- 투기자본의 시장왜곡, 신흥국가들의 수요 증가,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으로 국제사회는 식품 가격변동성 확대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원자재 가격 상승은 식품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국제 식품가격의 추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최근 세계 식품가격 상승에 대한 장·단기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

※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1-2020’은 세계농업에 게재할 예정으로 작업 중

참고자료: FAO, WSJ(2011.06.17)

□ 일본, 72년만에 쌀 선물거래 재개할 듯

1. 주요 내용

- 일본은 72년만에 쌀 선물거래를 재개할 계획임.
 - 일본농림수산성은 도쿄곡물거래소(Tokyo Grain Exchange)와 칸사이상품거래소(Kansai Commodities Exchange)에서 2년간의 시험기간을 거쳐 현물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본격적인 상장신청을 받을 계획임.
- 일본은 지난 1930년 세계 최초 선물거래소인 오사카의 도지마 쌀시장(Dojima Rice Market)이 문을 연 후, 1939년까지 쌀 선물거래가 이뤄짐.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으로 쌀 수급을 통제하기 위해 시장이 폐쇄됨.
- 칸사이상품거래소의 가쓰오 스즈키(Katsuo Suzuki)는 “쌀 선물상장은 쌀 가격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다”라고 주장함. 또한 선임부농업장관인 누보 쓰쓰이(Nobutaka Tsutsui)는 “쌀 선물상장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함.
- 반면 일본 농업협동조합중앙회(Central Union of Agricultural Co-operatives)는 쌀 선물거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함.
 - 지난 3월에 발생하였던 지진, 쓰나미로 인한 피해와 현재 높은 식품가격으로 쌀 선물거래에 대해 투기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 또한 쌀 선물거래는 쌀 산업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진 농업정책을 약화시킬 것이며, 지역 브랜드에 중점을 두는 일본의 쌀 산업 현실과 맞지 않음.
- 칸사이상품거래소와 도쿄곡물거래소는 쌀 선물거래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함. 도쿄곡물거래소는 빠르면 7월에 쌀 선물거래가 도입될 것이라고 주장함.

2. 일본농업신문(2011.06.25, 28) 주요 내용

- 현재 일본 농림수산성은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을 지난 28일에 인가할 방침이었지만 연기하기로 결정함.
 - 이는 JA그룹(Japan Agricultural Cooperatives)과 자민당의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에 대한 반대와 이바라기현의 불인가 요청 때문임.

- 쌀 선물 시험상장여부에 대한 결정기한은 7월 25일까지로 약 한 달 정도가 남아 있음.

○ 농림수산성은 당과의 조정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임.

〈쌀 선물거래 시험상장에 대한 견해〉

	J A그룹	자민당	농림수산성
쌀 생산·유통에 미치는 영향	2005년도에 불인가판정(생산조정을 유도하는 정책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수 없다)과 현재와는 별반 차이가 없음.	선물거래의 투기적 성격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아, 쌀 생산현장과 유통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음.	호별소득보상제도 도입에 따라, 가격정책에서 소득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함.
		일본의 독자적인 다양한 쌀 생산 및 유통에 맞지 않음.	쌀 수급조정은 메리트 조치의 대대적 확대에 따라, 생산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선택제로 전환함.
쌀 정책과의 정합성	시장원리를 전제로 한 선물거래는 쌀 수급과 가격안정을 취지로 한 정책 및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모순됨.	선물거래는 국가가 쌀 수급과 가격안정에 책임을 진 식량법의 취지에 맞지 않음.	쌀 거래의 객관적 지표가격이 존재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선물시장은 생산자에 거래기준이 되는 가격을 제공한다.
		호별소득보상제도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선물거래실시의 근거가 되지 못함.	호별소득보상제도는 일률적인 단가로 지불되어지기 때문에 선물시장은 생산자에게 가격변동의 위험성을 경감시킴.
그 외 논점	동일본대지진 피해복구가 최우선이 되어야 함.	대지진피해와 원전사고로 불안에 떨고 있는 농업종사자를 고려하고 있지 않음.	투기자금에 따른 과도한 가격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장과 국가가 한 사람 당 거래량 및 시세폭을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조치를 실시해야 함.
	쌀이 투기대상이 되어 쌀시세의 급격한 변동을 초래함.	정부의 설명이 없고,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되어 있지 않음.	재해지역 복구는 중요과제이나 쌀 선물 시험상장에 대한 찬반은 법률의 인가기준을 만족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므로 국가의 자유재량이 아님.

참고자료: FINANCIAL TIMES(2011.06.24)

□ 미국, 홍수로 인한 파종시기 늦어져 곡물가격 압박

1. 주요 내용

- 미국의 주요 곡물생산지역은 홍수로 인해 옥수수, 밀 등 주요 곡물의 파종 시기를 늦추고 있음.
 - 옥수수, 밀은 5~6월에 파종을 시작해야 하지만 지난 19일 기준으로 파종을 마무리한 농가는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침.
- 미국의 주요 곡창지대인 미시시피와 미주리 강유역의 홍수로 인해 주요 옥수수 재배지역인 오하이오와 인디애나주는 옥수수 파종시기를 늦추고 있음.
 - 관계자들은 파종시기가 늦어질 경우 수확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곡물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함.
- 카길(Cargill)의 CEO인 그렉 페이지(Greg Page)는 “이번 홍수로 인해 250만 에이커의 옥수수 경작지가 유실되었다”고 주장함.
 - 홍수로 인한 경작지 감소와 늦어지는 파종시기는 에탄올 산업으로 곡물 소비 및 신흥국의 수요 증가와 옥수수 재고량의 최저수준인 상황과 맞물려 옥수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함.
- 주요 밀 생산지인 노스다코타와 몬타나주 등 평년대비 많은 비가 내려 밀 파종에 심각한 영향을 줌.
 - 올해 들어 밀 파종은 47% 감소하여 밀 경작지는 135만 5,000에이커로 이는 1959년 이후 최저 수준임.
- 지난달 노스다코타의 밀 가격은 52% 증가하여 미국 파스타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 지난달 슈퍼마켓에서 파스타 가격은 파운드당 1.231달러를 기록하여 1980년 이후 최고 수준임.

참고자료: FINANCIAL TIMES(2011.06.27)

자료작성 : 미래정책연구실

세계 농업 통계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세계 각국 돼지고기 수급 통계(2011)

그래프로 보는 세계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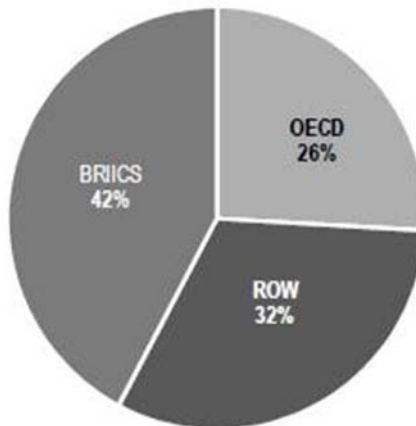
UN은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산림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산림을 통한 빈곤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1년을 ‘세계 산림의 해’로 지정하였다. 그리하여 세계 각국의 산림관련 단체들은 교육과 참여활동을 통하여 어린이, 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숲의 소중함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5월에 발표된 OECD의 ‘녹색성장을 향해(Towards Green Growth: Monitoring Progress)’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산림면적은 약 40억 헥타르로 전체 국토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3분의 2는 산림이 풍부한 10개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산림은 농업이나 도시에서 활용되는 곳을 제외한 곳을 의미한다. 지난 50년 동안 OECD국가에서는 산림면적이 약간 증가하거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전 세계적으로는 농축산업을 위한 토지개발과 벌채 등으로 산림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하여 이번 달 그래프로 보는 세계농업에서는 ‘세계 산림의 해’를 맞이하여 OECD와 BRICS국가들의 산림면적비율과 인구당 산림면적을 살펴보았다.

그림 1 전 세계 산림면적 중 국가별 비율(200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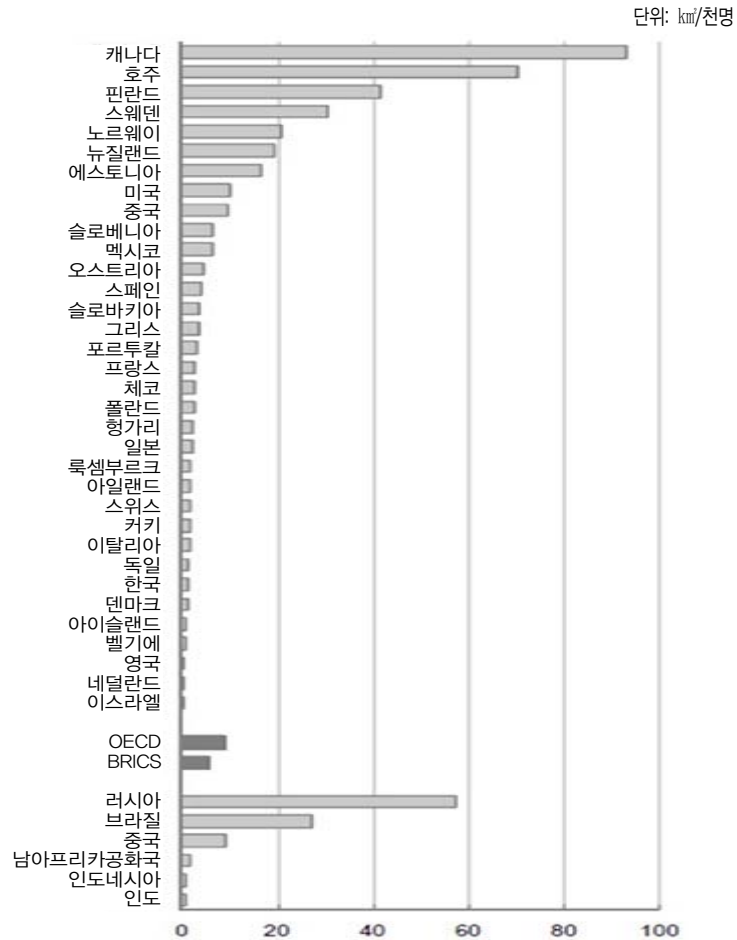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ECD, "TOWARDS GREEN GROWTH: MONITORING PROGRESS".

<그림 1>은 전 세계 산림면적 중 OECD, BRICS국가와 나머지 국가들의 산림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BRICS국가들의 산림면적이 42%, OECD국가는 26%로 나타났다. <그림 2>는 OECD, BRICS국가들의 인구당 산림면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2 OECD, BRICS 국가들의 인구당 산림면적(2008년 기준)



자료: OECD, "TOWARDS GREEN GROWTH: MONITORING PROGRESS".

OECD 국가 중 산림면적이 가장 넓은 국가는 캐나다로 인구 천명당 약 93.1km²에 달했고 호주(70.3km²), 핀란드(41.7km²), 스웨덴(30.6km²), 노르웨이(20.0km²), 뉴질랜드(19.4km²), 에스토니아(16.6km²), 미국(10.0km²) 등은 상대적으로 산림면적이 넓은 국가로 나타났다. 반면 OECD 국가의 평균인 8.6km²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가들은 이스라엘(0.2km²), 네덜란드(0.2km²), 영국(0.5km²), 벨기에(0.6km²), 아이슬란드(0.9km²), 덴마크(1.0

km), 한국(1.3km)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국토면적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 4번째로 높은 64.3%임에도 불구하고 인구천명당 산림면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BRICS국가 중 러시아(57.2km)와 브라질(27.3km)은 인구당 산림면적이 넓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중국(8.9km), 남아프리카공화국(1.9km), 인도네시아(0.7km), 인도(0.6km)가 그 뒤를 이었다.

참고자료

OECD, "TOWARDS GREEN GROWTH: MONITORING PROGRESS".

산림청, “2011 세계산림의 해 보도자료”.

작성자: 윤종열, 이정희.

세계 각국 돼지고기 수급 통계(2011)

표 1 세계 각국 돼지고기 수급 통계(2011)

국가	총 공급량 Total Supply			수출량 TotalExports		
	1000 MT CWE	비율%	순위	1000 MT CWE	비율%	순위
알바니아	28	0.03	44	-	-	-
앙골라	93	0.08	32	-	-	-
아르헨티나	290	0.26	18	1	0.02	13
아르메니아	20	0.02	50	-	-	-
오스트레일리아	567	0.51	14	42	0.67	8
바하마	9	0.01	53	-	-	-
벨로루시	457	0.41	17	-	-	-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26	0.02	46	-	-	-
브라질	3,276	2.94	4	630	9.98	4
캐나다	2,005	1.80	7	1,180	18.69	3
칠레	525	0.47	15	140	2.22	6
중국	53,080	47.62	1	330	5.23	5
콜롬비아	183	0.16	23	-	-	-
콩고	9	0.01	53	-	-	-
콩고민주공화국	49	0.04	36	-	-	-
쿠르디부아르	25	0.02	47	-	-	-
크로아티아	120	0.11	30	3	0.05	11
쿠바	134	0.12	27	-	-	-
도미니카공화국	108	0.10	31	-	-	-
에과도르	229	0.21	22	-	-	-
엘살바도르	25	0.02	47	-	-	-
유럽-27	22,925	20.57	2	1,750	27.72	2
가봉	9	0.01	53	-	-	-
그루지야	30	0.03	42	-	-	-
가나	8	0.01	56	-	-	-
과테말라	77	0.07	34	1	0.02	13
아이티	36	0.03	40	-	-	-
온두라스	39	0.03	39	-	-	-
홍콩	481	0.43	16	-	-	-
자메이카	11	0.01	51	-	-	-
일본	2,715	2.44	6	-	-	-

표 1 세계 각국 돼지고기 수급 통계(2011)

수입량 Total Imports			수입의존도 (수입량/총공급량)		Country
1000 MT CWE	비율 %	순위	비율 %	순위	
18	0.29	28	64.29	11	Albania
60	0.98	13	64.52	10	Angola
55	0.89	17	18.97	35	Argentina
10	0.16	42	50.00	16	Armenia
190	3.09	9	33.51	28	Australia
9	0.15	43	100.00	1	Bahamas, The
60	0.98	13	13.13	39	Belarus
11	0.18	41	42.31	22	Bosniaand Herzegovina
1	0.02	56	0.03	56	Brazil
220	3.58	8	10.97	41	Canada
15	0.24	33	2.86	50	Chile
410	6.66	6	0.77	54	China
12	0.20	37	6.56	46	Colombia
7	0.11	46	77.78	4	Congo (Brazzaville)
25	0.41	21	51.02	15	Congo (Kinshasa)
13	0.21	35	52.00	14	Cote d'Ivoire
60	0.98	13	50.00	16	Croatia
17	0.28	30	12.69	40	Cuba
25	0.41	21	23.15	33	Dominican Republic
7	0.11	46	3.06	49	Ecuador
4	0.07	52	16.00	38	El Salvador
25	0.41	21	0.11	55	EU-27
6	0.10	49	66.67	9	Gabon
12	0.20	37	40.00	25	Georgia
4	0.07	52	50.00	16	Ghana
19	0.31	27	24.68	31	Guatemala
6	0.10	49	16.67	36	Haiti
27	0.44	20	69.23	8	Honduras
360	5.85	7	74.84	6	Hong Kong
4	0.07	52	36.36	27	Jamaica
1,210	19.67	1	44.57	21	Japan

표 1 세계 각국 돼지고기 수급 통계(2011)

국가	총 공급량 Total Supply			수출량 TotalExports		
	1000 MT CWE	비율%	순위	1000 MT CWE	비율%	순위
카자흐스탄	231	0.21	21	-	-	-
북한	172	0.15	25	-	-	-
한국	1,420	1.27	10	-	-	-
키르기스스탄	32	0.03	41	-	-	-
마카오	29	0.03	43	-	-	-
마케도니아	22	0.02	49	-	-	-
멕시코	1,890	1.70	9	85	1.35	7
몰도바	62	0.06	35	-	-	-
몬테네그로	27	0.02	45	-	-	-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7	0.01	57	-	-	-
뉴질랜드	91	0.08	33	-	-	-
노르웨이	124	0.11	29	6	0.10	10
파나마	47	0.04	37	-	-	-
필리핀	1,360	1.22	11	1	0.02	13
러시아	2,765	2.48	5	1	0.02	13
세르비아	265	0.24	19	3	0.05	11
싱가포르	135	0.12	26	1	0.02	13
남아프리카공화국	180	0.16	24	1	0.02	13
스위스	253	0.23	20	-	-	-
대만	838	0.75	13	1	0.02	13
트리니다드 토바고	11	0.01	51	-	-	-
우크라이나	902	0.81	12	1	0.02	13
미국	10,917	9.79	3	2,121	33.60	1
우루과이	42	0.04	38	-	-	-
베네수엘라	134	0.12	27	-	-	-
베트남	1,920	1.72	8	15	0.24	9
전세계	111,465	100.00		6,313	100.00	

표 1 세계 각국 돼지고기 수입 통계(2011) (계속)

수입량 Total Imports			수입의존도 (수입량/총공급량)		Country
1000 MT CWE	비율 %	순위	비율 %	순위	
16	0.26	31	6.93	44	Kazakhstan
-	-	-	-	-	Korea, North
600	9.75	4	42.25	23	Korea, South
16	0.26	31	50.00	16	Kyrgyzstan
18	0.29	28	62.07	12	Macau
13	0.21	35	59.09	13	Macedonia
695	11.30	3	36.77	26	Mexico
15	0.24	33	24.19	32	Moldova
25	0.41	21	92.59	3	Montenegro
7	0.11	46	100.00	1	Netherlands Antilles
38	0.62	18	41.76	24	New Zealand
3	0.05	55	2.42	51	Norway
12	0.20	37	25.53	30	Panama
100	1.63	12	7.35	42	Philippines
855	13.90	2	30.92	29	Russia
5	0.08	51	1.89	52	Serbia
105	1.71	11	77.78	4	Singapore
35	0.57	19	19.44	34	South Africa
12	0.20	37	4.74	47	Switzerland
60	0.98	13	7.16	43	Taiwan
8	0.13	45	72.73	7	Trinidad and Tobago
150	2.44	10	16.63	37	Ukraine
413	6.71	5	3.78	48	United States
20	0.33	25	47.62	20	Uruguay
9	0.15	43	6.72	45	Venezuela
20	0.33	25	1.04	53	Vietnam
6,152	100.00		5.52		World

표 1 세계 각국 돼지고기 수급 통계(2011) (계속)

국가	생산량 Production			총 국내소비량 Total Dom. Consumption		
	1000 MT CWE	비율%	순위	1000MT CWE	비율%	순위
알바니아	10	0.01	47	28	0.03	44
앙골라	33	0.03	35	93	0.09	32
아르헨티나	235	0.22	19	289	0.28	18
아르메니아	10	0.01	47	20	0.02	50
오스트레일리아	350	0.33	16	504	0.48	14
바하마	-	-	-	9	0.01	53
벨로루시	382	0.37	15	457	0.44	16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15	0.01	43	26	0.02	46
브라질	3,275	3.13	4	2,646	2.53	5
캐나다	1,745	1.67	7	795	0.76	13
칠레	510	0.49	14	385	0.37	17
중국	52,500	50.23	1	52,580	50.37	1
콜롬비아	171	0.16	23	183	0.18	23
콩고	2	0.00	54	9	0.01	53
콩고민주공화국	24	0.02	38	49	0.05	36
쿠트디부아르	12	0.01	44	25	0.02	47
크로아티아	60	0.06	30	117	0.11	30
쿠바	117	0.11	28	134	0.13	26
도미니카공화국	83	0.08	29	108	0.10	31
에콰도르	222	0.21	20	229	0.22	22
엘살바도르	21	0.02	40	25	0.02	47
유럽-27	22,900	21.91	2	21,175	20.28	2
가봉	3	0.00	52	9	0.01	53
그루지야	18	0.02	41	30	0.03	42
가나	4	0.00	51	8	0.01	56
과테말라	58	0.06	31	76	0.07	34
아이티	30	0.03	36	36	0.03	40
온두라스	12	0.01	44	39	0.04	39
홍콩	121	0.12	26	481	0.46	15
자메이카	7	0.01	50	11	0.01	51
일본	1,285	1.23	8	2,497	2.39	6

표 1 세계 각국 돼지고기 수급 통계(2011) (계속)

재고량 Ending Stocks			재고율 (재고량/총 국내소비량)		Country
1000 MT CWE	비율%	순위	비율%	순위	
-	-	-	-	-	Albania
-	-	-	-	-	Angola
-	-	-	-	-	Argentina
-	-	-	-	-	Armenia
21	2.76	7.00	4.17	2.00	Australia
-	-	-	-	-	Bahamas, The
-	-	-	-	-	Belarus
-	-	-	-	-	Bosnia and Herzegovina
-	-	-	-	-	Brazil
30	3.95	5.00	3.77	3.00	Canada
-	-	-	-	-	Chile
170	22.37	3.00	0.32	7.00	China
-	-	-	-	-	Colombia
-	-	-	-	-	Congo (Brazzaville)
-	-	-	-	-	Congo (Kinshasa)
-	-	-	-	-	Cote d'Ivoire
-	-	-	-	-	Croatia
-	-	-	-	-	Cuba
-	-	-	-	-	Dominican Republic
-	-	-	-	-	Ecuador
-	-	-	-	-	El Salvador
-	-	-	-	-	EU-27
-	-	-	-	-	Gabon
-	-	-	-	-	Georgia
-	-	-	-	-	Ghana
-	-	-	-	-	Guatemala
-	-	-	-	-	Haiti
-	-	-	-	-	Honduras
-	-	-	-	-	Hong Kong
-	-	-	-	-	Jamaica
218	28.68	2.00	8.73	1.00	Japan

표 1 세계 각국 돼지고기 수급 통계(2011) (계속)

국가	생산량 Production			총 국내소비량 Total Dom. Consumption		
	1000 MT CWE	비율%	순위	1000MT CWE	비율%	순위
카자흐스탄	215	0.21	21	231	0.22	21
북한	172	0.16	22	172	0.16	25
한국	760	0.73	12	1,370	1.31	9
키르기스스탄	16	0.02	42	32	0.03	41
마카오	11	0.01	46	29	0.03	43
마케도니아	9	0.01	49	22	0.02	49
멕시코	1,195	1.14	10	1,805	1.73	8
몰도바	47	0.04	33	62	0.06	35
몬테네그로	2	0.00	54	27	0.03	45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	-	-	7	0.01	57
뉴질랜드	53	0.05	32	91	0.09	33
노르웨이	121	0.12	26	118	0.11	29
파나마	35	0.03	34	47	0.05	37
필리핀	1,260	1.21	9	1,359	1.30	10
러시아	1,910	1.83	5	2,764	2.65	4
세르비아	260	0.25	17	262	0.25	19
싱가포르	30	0.03	36	134	0.13	26
남아프리카공화국	145	0.14	24	179	0.17	24
스위스	241	0.23	18	253	0.24	20
대만	778	0.74	11	837	0.80	12
트리니다드토바고	3	0.00	52	11	0.01	51
우크라이나	730	0.70	13	879	0.84	11
미국	10,259	9.82	3	8,547	8.19	3
우루과이	22	0.02	39	42	0.04	38
베네수엘라	125	0.12	25	134	0.13	26
베트남	1,900	1.82	6	1,905	1.82	7
전세계	104,514	100.00		104,392	100.00	

표 1 세계 각국 돼지고기 수급 통계(2011) (계속)

재고량 Ending Stocks			재고율 (재고량/총 국내소비량)		Country
1000 MT OWE	비율%	순위	비율%	순위	
-	-	-	-	-	Kazakhstan
-	-	-	-	-	Korea, North
50	6.58	4.00	3.65	4.00	Korea, South
-	-	-	-	-	Kyrgyzstan
-	-	-	-	-	Macau
-	-	-	-	-	Macedonia
-	-	-	-	-	Mexico
-	-	-	-	-	Moldova
-	-	-	-	-	Montenegro
-	-	-	-	-	
-	-	-	-	-	New Zealand
-	-	-	-	-	Norway
-	-	-	-	-	Panama
-	-	-	-	-	Philippines
-	-	-	-	-	Russia
-	-	-	-	-	Serbia
-	-	-	-	-	Singapore
-	-	-	-	-	SouthAfrica
-	-	-	-	-	Switzerland
-	-	-	-	-	Taiwan
-	-	-	-	-	Trinidad and Tobago
22	2.89	6.00	2.50	6.00	Ukraine
249	32.76	1.00	2.91	5.00	United States
-	-	-	-	-	Uruguay
-	-	-	-	-	Venezuela
-	-	-	-	-	Vietnam
760			0.73		World

주: 돼지고기는 Meat, Swine을 의미함.
 자료: <http://www.fas.usda.gov/psdonline/>

M45-130 세계농업 제130호 (2011. 6)

등 록 제6-0007호 (1979. 5. 25)

인 쇄 2011년 6월

발 행 2011년 6월

발행인 오세익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동양문화인쇄포럼 전화 02-2242-7120 팩시밀리 02-2213-2247

E-mail: dongyt@chol.com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